hyunbulnews.com

현대불교

제837호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음력 4월 23일 · 불기 2555년 · 주간)

마음 씀씀이에 따라 사람과 축생의 격차가 나듯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성불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



만행을 마치고 다시 선정으로

불기 2555년 5월 17일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 100여 개 선원과 사찰에서 2200여 수좌들이 일제히 치열한 구도정진에 들어갔다. 하안거에 방부를 들인 수행납자들은 결제 하루 전날인 16일 저녁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7일 결제 당일 오전 10시경에는 사찰별로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 간의 정진에 매진한다. 사진은 16일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에 방부를 들인 수좌들이 선원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 · 3면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선왕실의궤… 오대산에

월정사·강원도 등 오대산 사고 보관 주장에 문화재청은 '글쎄'

환수될 조선왕실의궤 보관처를 두고 환수위 ·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미묘한 의견차를 보여 실록 환수 때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와 월정사, 강원도 지자체들은 의궤가 지역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규장각이나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될 경우 수많은 문화재들 속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어렵고, 관광 도시 강원도의 특성을 살리면 의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을 강조하면서도 조선왕실의궤가 월정사 소유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교계 및 지자체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교계와 강원도민들은 2006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환수 때 서울대 규장각 소장 결정에 실망한 바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는 일본 오쿠카 호텔에서 조선왕실의궤환국 기념 연회를 5월 13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환수위 관계자들은 의궤가 본래 보관됐던 강원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수위 공동대표 정념 스님은 "문화재는 제자리에서 빛난다. 강원도에 위치한 월정사는 조선왕조로부터 의궤를 수호할 수호총섭의 역할을 맡아왔다. 의궤 환수가 결정된 만큼 다시 오대산에 보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조선왕실의궤가 보관됐던 오대산 사고가 있는 평창군도 의궤가 강원도로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석래 평창군수는 "의궤 보관을 위한 박물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같은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인 강릉시 최명희 시장도 의궤가 강원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선왕실의궤는 일본 중의원에서 반환이 비준됐으나 환수를 반대하는 일본 자민당의 반대로 참의원을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민당이 18일 열린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도서협정 심의에 참가하기로 함에 따라 무난히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을 제외한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사민당은 의궤환수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선왕실의궤환수가 27일로 예정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올가을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의궤가 환수돼 국내에 들어오면 문화재청은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의궤 상태를 점검하고 보존처리를 하게 된다. 보존처리를 마친 의궤는 일단 문화재청에 보관되고 향후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적합한 보관처를 논의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현재도 내부적으로 조선왕실의궤 보관처에 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중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보관처에 관해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는지는 함구하고 있다.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일단 문화재청에 보관하게 된다. 월정사 사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선시대 문화재를 모두 전주 이씨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의궤는 당초 오대산 사고에 보관됐던 것이고 월정사는 수호사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종단의 변함없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2 · 13면

박기범 기자

837호 CONTENTS

현장속으로 5
한·중 천태종 조사기념당 개금불사 회향



특집탐방 12~13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일본 탐방



특집 18
김재일 대표가 걸어온 길



동국대, 일산에 바이오大 개교

의·약·한의학 바이오 분야 결집, 경기북부 최초 4년제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가 5월 19일 경기도 고양시에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를 개교했다.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에는 기존 동국대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의대와 한의대, 바이오시스템대, 약대를 비롯해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와 임상시험센터 등 관련 핵심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1단계 조성사업이 시작돼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으로 산학협력관과 강의동, 종합강의동이 완공된 상태다.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약학관은 8월 완공된다.

이날 개교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정각원장 법타 스님, 사무처장 종성 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최성 고양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최초의 4년제 대학 설립을 축하했다.

김희옥 총장은 이날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를 통해 제2 건학 운동을 배가 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동국대가 건학이념인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세계로 전해주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오메디 캠퍼스에는 약학대학 신입생 및 바이오시스템대학 신입생 일부, 의과대학 및 한의학과대학생 등 100여명이 이미 수학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곳에서 2000명의 재학생과 230여 교수진이 생활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시민운동의 큰 별 지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별세



생태 환경운동 등 불교시민운동을 이끌어 온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사단법인보리 이사장)가 5월 15일 오후 6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사단법인 보리 이사장,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숲 해설가협회 공동대표, 조계종 환경위원회 명예위원, btn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언론 · 환경 · 문화 분야에 걸친 시민운동에 한 획을 긋는 큰 역할을 해왔다. 관련기사 18면

조동섭 기자

불교, 통일을 말한다

25일,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 · 통일 문제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5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이종석 前 통일부장관이 '한반도 평화 · 통일문제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현 정세의 분석을 하고, 불교계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윤여준(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 이승환(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종학硏, 첫 학술대회

'한국선' 영역화 추진도

조계종 종지와 수행전통을 연구하는 종학연구소가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5월 30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선 정립을 위한 현대적 담론'을 주제로 개소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이 신라말의 선을, 이병욱 동국대 종학연구소 연구원이 고려초의 선을, 김방룡 충남대 교수가 고려 원나라 간섭기와 그 이후의 선 등을 발표한다.

이에 앞선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여름에 간화선 국제 학술대회를 주최하고 가을에는 '종학 연구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국선과 간화선을 영역화해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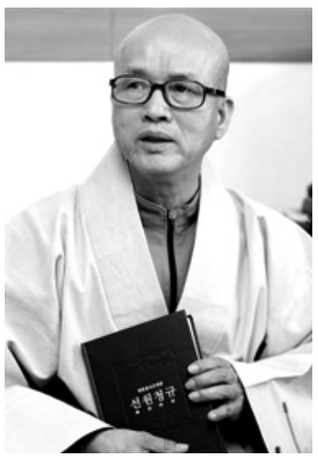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장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노우 스님과 불교를 묻고 답하다
108개의 문답으로 명쾌하게 알아보는 불교의 최상승 교리들!
백팔문답요집 百八問答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던지는 의문과 물음,
그리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엄밀히 선정하여 문답 형식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방대하고 복잡한 불교 철학과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불교의 깊고 넓은 사유
세계를 보여주는 불교 교리서이자 철학서.
노우스님 저 | 신국판 변형 | 343쪽 | 15,000원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저 | 사륙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진정한 행복은 수행통한 인격 완성”

‘선원청규’ 편찬 주역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 하안거 결제 맞아 참수행정신 강조



“행복은 대부분 잠깐의 가시적인 만족에 머물게 마련입니다. 수행을 통해 인격을 완성해 마음의 평화를 온전하게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불기 2555년 5월 16일 하안거 결제를 하루 앞두고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에서 만난 선원장 의정 스님은 하안거를 맞아 모든 대중이 수행을 통해 올바른 마음의 길을 찾기를 당부했다.

“일반인들은 산중에 들어앉아 수행하는 스님들을 보고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수행은 즐거운 것입니다. 특히 한국불교의 수행방식은 앉아서도, 서서도, 걸어다닐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생활선입니다. 대변을 보면서도 ‘이 뭣고’를 하면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에 매진하고 싶은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스님은 제대로 된 수행을 위해선 반드시 좋은 선지식과 스승을 찾아 배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책을 보고 매스컴을 통해 따라하는 수행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마음 길을 찾는 수억만 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역시 최상의 지름길은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아 불교의 선사상이 대안 사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스님은 이번 하안거에서 스님들의 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지난해 11월 선원청규편찬위원장을 맡아 한국불교사상 처음으로 한국 불교 풍토에 맞는 수행 규율인 〈선원청규〉를 만들었다.

그동안 한국불교는 중국의 청규를 따와 방편으로 사용해왔다. 중국에는 고 청규가 11가지 일본은 9가지 청규가 있다.

스님은 “선원청규의 의미는 크게 뛰어난 수행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며 “10년 정도 청규가 자리잡는 기간으로 보고 지금부터 참수행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 스님은…

양평 용문선원 선원장인 의정 스님은 1976년부터 인천 용화사 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스승으로, 그동안 극락암 송광사 불국사 운문암 봉암사 수도암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안거를 성만했다.

2005년에는 조계종단 수행지침서인 〈간화선〉 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2007년에는 조계종 전국선원 〈선원청규〉 편찬위원장을 맡았다. 2000년 양평 상원사에 용문선원을 복원해 개원하며 선원장으로 취임했다.

노덕현 기자

“재가자도 안거 기간 수행”

미황사 등 12곳 사찰, 재가안거 시범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만초)는 부산 · 경남지역 12개 전법도량에서 5월 17일부터 90일동안 ‘재가안거 수행결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초 스님은 “많은 재가신도들이 여러 방법으로 수행을 실천하고 있지만, 스승 밑에서 올바른 수행을 닦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사찰은 △거제 금강사 △구미 대둔사 △대전 만불선원 △대전 용화사 △부산 홍법사 △부산 미타선원 △부산 능인선원 △부산 혜원정사 △부산 대광명사 △부산 해광사 △울산 해남사 △해남 미황사 등 12곳이다.

‘선원청규’를 바탕으로 수행에 매진하는 일반 사찰과 달리 재가 안거는 ‘수행록’을 이용해 수행을 점검한다. 안거 기간은 90일간으로 용상방 게시와 자자포살법회(매달 음력 15일, 30일)은 승려안거와 동일하다. 역량에 따라 기본수행과 선택수행이 진행된다.

기본수행으로는 삼귀의와 수행서원문 염송, 7보 선행이 실시되며 운영사찰 수행법 등에 따라 △108배 △108관음 염송 △108 미소 자각 △경전 7독 등이 선택 운영된다.

이와 함께 대중결사는 재가자들이 생활로 돌아가 수행풍토를 유지하기 위해 △중생을 위한 서원 세우기 △매일 수행하기 등의 수행청규를 제정했다.

해제식은 8월 14일 운영사찰별로 실시되며 안거증도 수여된다. 이나은 기자

종교, 국가에 기대지마라

길희성 교수, 사회통합위 세미나서 주장



“어느 종교도 국가권력 또는 정부의 지원이나 시혜에 기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문화재 수호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조계종의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종교의 국가 · 정부간 원칙을 밝힌 발표가 나와 눈길을 끈다.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는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가 5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종교와 사회통합-상생을 위한 7대 종교간 대화’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 종교계의 상생을 위한 종교간 대화’를 주제로 강연한 길희성 교수는 현대 종교의 성격에 대해 “이제 어느 종교도 지나간 시대에 누렸던 독점적 지위를 다시 누릴 수 없고 거기에 향수를 지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길 교수는 “현대의 종교는 조선시대 유교나 고려시대 불교가 누렸던 것과 같은 영광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외부의 도움보다는 ‘홀로서기’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렇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종교는 이전보다 더 순수한 종교, 더 진정성을 지닌 신자들을 확보하는 종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선학원 선봉사 환경 정비

초조대장경 1000년을 맞아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보호각과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선학원 선봉사(주지 성수)는 대각국사비(보물 제251호)를 보호하고 있던 보호각을 개축한다.

선봉사는 사찰 자연경관을 저해했던 임시목조건물과 콘테이너 박스를 대신할 법당, 선원, 요사채, 주지실은 신축하고, 기존의 산신각은 대각국사비각과 함께 개축한다.

이상언 기자

박구원 만평



통도사 주지 선출 두고 내홍

자승 스님, “불교위해 지혜롭게 해결” 당부

차기 주지선출을 두고 통도사가 총림 해제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

5월 15일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명의로 “방장의 동의 없는 산중총회는 무효”라는 공문이 통도사와 말사 등에 발송된 가운데 통도사 종무소는 17일 ‘영축총림 통도사 중요현안 및 총림해제에 관한 건’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 24일 오후 2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영축총림 통도사의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도사 종무소는 “2차례 임회와 소위원회에서 중의를 모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맞게됐다”며 산중총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통도사는 방장 원명 스님의 추천을 받은 원산 스님과 총회의 대다수 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배, 정우 스님이 선출 방법을 두고 맞서는 상황이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은 이날 자신이 지목한 원산 스님을 차기 후보로 하는 추천서를 총무원 총무부에 접수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각 후보들의 요청에 따라 원산 영배, 정우 스님을 만나 “통도사 대중들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산중과 불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해결방법을 찾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사 민족문화수호단 창단 조계사(주지 토진)가 서산마애삼존불 성역화와 보원사지 복원 불사를 위한 ‘(가칭)조계사 민족문화수호단’을 5월 17일 창단했다. 조계사는 로터스월드와 미얀마 빈민 고아원 화장실 개선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5월 20일 나눔 · 실천 도량 선포식을 가졌다. 박기범 기자

문수 스님을 기리며

문수 스님 선양사업 준비위원회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함께 소신 공양 1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5월 16일 밝혔다.

준비위는 스님의 3가지 유지를 선양하고, 생명평화 정신을 계승, MB정권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5월 30일~ 6월 4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추모법회 및 부도탑 제막식, 생명평화 대화마당, 낙동당 지보사 순례 등을 추진한다.

다례 및 부도탑 제막식은 군위 지보사에서 5월 31일 진행되며 5월 30일~ 6월 3일까지는 1주기 추모제 및 생명평화 대화마당이 마련된다.

6월 11일에는 낙동강과 지보사를 순례를 통해 문수 스님의 소신 공양 의미를 돌아본다.

박기범 기자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무엇이 부족합니까?

한 권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없이 솟아납니다.
이 무궁무진한 자비의 에너지를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입니다. -본문 중

보경스님의 유쾌한 법화경 읽기
보경스님은 차근차근, 조목조목 법화경 구절 구절을 짚어주며 친절하게 강설한다.
스님의 종교를 넘나든 다양하고 감동적인 예화는 읽는 이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한다.

보경스님의 경전강의 컨닝페이퍼
보경스님은 각 품마다 품의 구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법화경 경전읽기’를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된다.
스님은 손수 강의를 준비해 직접 강의를 하며 쌓은 자신만의 ‘법화경 강의 노하우’를 그대로 세상에 공개했다.



보경 강설 ● 884쪽 ● 25,000원
신국판 양장 ● 2011년 4월 11일 발행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미국 University of the West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7년간 불교를 연구한 끝에
역편한 일아스님의 빠알리 경전 결정판!



일아 역편 / 신국판 / 양장제본 / 752쪽 / 값 28,000원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펴내” 〈한국일보〉
“붓다의 가르침 『빠알리 경전』 번역한 일아스님” 〈중앙일보〉
“초기불교 책 펴낸 ‘수녀 출신’ 일아스님” 〈한겨레〉
“수녀 출신 비구니가 본 ‘붓다의 가르침’” 〈서울신문〉
“수녀 그만 두고 출가, 美서 17년째 불교 연구” 〈경향신문〉

민족사

불기 2555년 동안거 입재식이 5월 17일 100여 조계종 선원을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2200여 수좌를 비롯한 전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퇴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하안거에 방부를 들인 수행납자들은 결제 하루 전날인 16일 저녁 결제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龍象榜)을 작성하고, 17일 결제 당일 사찰별로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 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동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수좌들을 격려했다. 한편 매년 하안거에는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수좌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하안거 기간 동안에는 함께 정진하게 된다. 안거(安居)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 (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하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법어 전문은 현대불교신문 인터넷사이트 현불뉴스(www.hyunbulnews.com)에 게재.

‘죽음을 각오하고 궁구하면서 의심 해결하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법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인가
조산본적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무엇입니까?” “사묘아두(死猫兒頭)이니라. 죽은 고양이 두개골이다.” “무엇 때문에 죽은 고양이 두개골이 가장 비쌉니까?”

이 화두에 등장하는 ‘사묘아두(死猫兒頭)’란 죽은 고양이 두개골을 말합니다. 이것은 귀하다고 하거나 천하다고 하는 대립의식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 해답을 찾게 하고자 하는 공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가치가 없는 물건이지만 여기에 대하여 비싸다거나 싸다거나 하는 두 가지 길을 모조리 차단하여 다른 모든 분별의 근거를 빼앗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선지식들은 죄 없는 고양이를 유인하여 마른 우물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공부하는 납자들을 절체절명의 궁지로 몰아넣어야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바둥거리듯이 생사에서 벗어날 공부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남전(南泉) 선사는 고양이를 두 동강 냈고 조산 선사는 죽은 고양이의 두개골을 말했지만 이는 세존께서 꽃을 들어 보인 것과 구지(俱指) 선사가 엄지를 들어 보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관음보살이 펴는 천개의 팔이나 구지 선사가 세운 한 개의 손가락도 알고 보면 매 한가지인 것입니다.

조산본적(曹山本寂) 선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죽은 고양이 두개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묘아두(死猫兒頭) 공안은 죽은 고양이를 화두로 삼아 많은 공부인들로 하여금 의문을 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더럽고 쓸모없는 흉물인데 어째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궁구하면서 이 의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이 선방을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용맹심으로 구순(九旬) 하안거 동안 부지런히 화두를 참구하시기 바랍니다.

졸객무졸주(卒客無卒主)하니
의가불의진(宜假不宜眞)이로다
갑자기 찾아 온 객을 잘 대접할 주인이 없으니
가짜를 내놓을 것이지 진짜를 보여줄 일은 아니로다.

‘칠흙의 암흑 속에 밝음의 씨앗이 자라고’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법어

칠흙의 암흑 속에 밝음의 씨앗이 자라고,
태양의 광명 속에 흑점의 어둠이 동한다.
어둠의 씨앗은 밝음을 찾아 움직이며,
밝음의 씨앗은 어둠을 향해 달려간다.
석가가 알기 전에도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니
우주 삼라만상의 인연법이 제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칠전선원을 중심으로 제방의 납자들은 빛의 요소를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여 진정한 참나를 찾으라.

진망본비구단물(眞妄本非求斷物)이며,
이법구공기유상(二法俱空豈有相)이리요.
무상무공무불공(無相無空無不空)이니
즉시여래진아물(即是如來眞我物) 이로다.



진실과 망령이 본래 끊어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참과 번뇌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상이 있으리요.
상도 없고 공도 없으며 공하지 아니함도 없으니
이것이 곧 여래의 참나인 물건일세.

‘참사람 되는 길 소욕지족 부터’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법어



천지간(天地間)의 순환은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어서, 오늘도 엄정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님의 몸이요, 부처님세계를 낱낱이 장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순환은 조그마한 사심(邪心)도 없이 제각각의 도리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직 사람들만이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 자신을 망치고, 나아가 자연마저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모든 탐욕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참마음을 회복하여 참된 사람이 되어야만,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고 이 세계를 재앙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사람이 되어 부처님세계를 참되이 장엄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참사람이 되는 길은 거창한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소욕지족(小欲知足)할 줄 아는 데서 부터 비롯됩니다.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실천행을 몸소 해나감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선지재기의단(參禪只在起疑団)
의거의래사화단(疑去疑來似火団)
불각전신도방하(不覺全身都放下)
대천사계일호단(大千沙界一毫端)
참선은 다만 의단을 일으키는데 있으니
오직 의정으로 오고가 불덩이 같이 되어
잠깐사이에 전신을 통째로 내려놓으면
대천세계가 한 터럭 끝에 있도다.

‘자신 태워야 밝은 이치 드러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법어



법계중생과백년(法界衆生過百年) 이나
차심무견몽중면(此心無見夢中眠) 이라
아미타불하구원(阿彌陀佛何求遠) 이리오
여아동명좌목변(與我同名坐目邊) 이로다
법계의 중생들이 백년을 살아가건만 이 마음을 보지 못하고 꿈속을 헤매고 있네. 어찌 멀리서 아미타불을 찾으려하는가? 내 근본이름과 똑같은 이가 눈앞에 앉아있거늘.

중생의 어리석은 무명의 구름이 법계를 가려서, 지혜의 태양이 빛을 뿜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독은 바다가 되고 산이 되어 자신을 집어 삼켜버리는데, 누가 나서서 그 불길을 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내달린 만큼 되돌아서는 결단과 용맹심을 내어, 스스로 무명의 산을 밝히는 대법거(大法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옮기는 걸음마다 인연의 끈은 정화되고 이치는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궁고이경무량겁(窮苦已經無量劫) 이나
불신상경여의진(不信常擎如意珍) 이라
부주구시무상모(不住舊時無相貌) 하고
외구지식야비진(外求知識也非眞) 이로다
곤궁한 고통을 무량겁이나 지나왔건만
내 손에 여의보배 들고 있었음을 믿지 못하네.
옛 부터 지닌 무상의 근본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선지식을 찾는다면 참되다고 하지 못하리라.

‘공부 애써도 생각이 발라야”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법어



이번에는 불탄절(佛誕節) 연등불사가 끝나자 곧 여름 결제가 되니 우선 연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제법문을 할까 합니다.

고인의 게송에 개개면전명월백이요 인인각하청풍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얼굴에는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발아래는 맑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이 자성광명을 발하고 있지만 업식에 가려져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연등법회는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자성광명을 찾아내서 부처님처럼 수용하자는 서원을 세우는 의식인데 요즘에 와서는 본원을 망각하고 사원경제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가는 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대혜어록(大慧語錄)에 당초장위모장단(當初將謂茅長短)터니 소요원래지불평(燒了元來地不平)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이 들쑥날쑥 났다고 해서 태워버리고 보니 땅이 본래 울퉁불퉁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애써서 해도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부에 의심이 나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의심을 풀고 가끔 조사어록을 살펴봐서 사견이나 편견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야행(夜行)에 막답백(莫踏白)하라. 불수정시석(不水定是石)이니라. 밤에는 흰 것을 밟지 말라. 물에 빠지거나 돌부리에 채일까 합니다.

주장자를 세 번 구르고 하좌(下座)하다.

‘참선하는 하나만에 일심’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법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쉬어 고요하고 갈애를 소멸한 사람은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람은 좋고 싫음을 떠났기에 성내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교만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과연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다생에 익혀온 습성을 정복하고 근본에 체달해야 물심이 일여한 도리를 자가용으로 쓰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만공 선사(滿空禪師)는 일심이 곧 만상이고 만상이 곧 일심이다 이것이 가깝지도 멀지도 아니하여 건곤과 더불어 같이 덮이고 실렸으며 일월과 더불어 같이 비추어서 원융무애하고 자유자재하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심은 물과 심이 둘이 아닌 진여법계(眞如法界)의 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선일착최당연(參禪一着最當然)
이륙시중요기의(二六時中要起疑)
홀득통신한한출(忽得通身寒汗出)
행행보보전전기(行行步步轉全機)

참선하는 하나만이 가장 좋은 거라네
행주좌와에 애써 의심을 일으켜라
홀연히 전신에서 식은땀이 흘리고 나면
하는 일마다 대기대용이라네

제9회 대원상(大圓賞) 후보 공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 라는 기치 하에 불교의 현대적 재조명과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문 I (포교대상), 부문 II (콘텐츠대상)로 구분하여 제 9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부문 I (포교대상)

- **시상 부문 (개인 혹은 단체)**
  - **시상금** –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
  - **구 분** (1) 승가 부문 : 3인(곳) 이내, 상패와 상금
    (2) 재가 부문 : 3인(곳) 이내, 상패와 상금
- **수상자 추천 및 선정 기준**
  - **승가부문 (개인 혹은 단체)**
    (1)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업적이 많은 스님 개인 혹은 스님 중심의 단체/기관
    (2) 단체 / 기관은 설립 3년 이상, 회원 10명 이상인 곳
  - **재가부문 (개인 혹은 단체)**
    (1)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 단체는 단체 설립 3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
- **접수기간 : 2011년 7월 1일(금) ~ 7월 29일(금)**

부문 II (콘텐츠대상)

- **시상 부문 (개인 혹은 단체)**
  - **시상금** –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
    (1) 구분 (콘텐츠 부문)
    ① 스토리텔링(TEXT 대본 등 제출), 다큐멘터리(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드라마(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DOCUDRAMA(다큐+드라마, 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② 영화(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애니메이션(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INFORTAINMENT(정보+오락, 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③ 작곡(국악/양악/퓨전, DVD 혹은 TEXT 대본 등 제출), 연주, 공연(DVD 혹은 기타 자료 제출)
    ④ 전시(도록, 사진 등 증거 자료 제출)
    ⑤ 상기 관련 분야
    (2) 본인 및 단체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공동제작 · 합작 등 관련기관 · 단체 또는 외부 지원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는 불가함).
    (3) 응모자가 문화 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경험을 증명 시 심사에 참고함.
- **접수기간 : 2011년 8월 1일(월) ~ 8월 31일(수)**

※ 부문 I 과 부문 II 의 대상 수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음.
※ 일정 자격수준 혹은 공적사항이 본 상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 ·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수상 부문 및 상금 액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 : 제9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소정양식, 사진 부착) *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전화 : (02) 719-2606, 1855 *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일 주 문



용주사·화성시 무한돌봄 협약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5월 10일 화성시청에서 화성시와 종교계간의 무한돌봄 사업 업무협력 협약을 맺었다.



대광사 명상수련센터 기공식
천태종 분당 대광사 주지 월도 스님은 5월 22일 명상수련센터 및 다도문화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구 반야선원 효종 스님 개인 시화전
대구 반야선원 효종 스님은 5월 11일 시낭송CD 제작 시화전을 대구 수성아트피아 멀티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진관사, 외국인 초청 사찰음식 시연회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5월 20일 여성리더스모임인 가든클럽 회원 50여 명을 초청해 '사찰음식 시연회'를 개최한다.



일산복지관, 가정의달 체육대회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은 5월 28일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서 제6회 어르신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다. (031)919-8677



혜선 스님, 동국대 장학금 기부
대구 금용사 주지 혜선 스님은 5월 17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제3차 정기 이사회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5월 28일 서울 견지동 중앙사무국 지하교육관에서 제3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성광문 씨 교정대상 봉사상
성광문 전 전북포교사단장은 5월 19일 서울신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봉사상을 수상했다.



원각불교사상연구원 학술대회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은 6월 4일 '염불신앙의 현대적 의의'를 주제로 천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나무여성, 여성인권 토론극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은 6월 22일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여성인권관련 토론극을 진행한다. (02)732-1367

기도하니 통했다

기도로 조계사 대중 움직인 정범 스님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가 내포 가야산 성역화 사업에 협력한다니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정범 스님(옥천사 주지 · 사진)은 조계사의 협력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며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님은 1월 13일부터 조계사 주차장 입구에서 민족문화 수호 발원을 위한 100일 천막정진을 가진 바 있다. 천막 정진 기간 동안 스님은 민족문화수호를 위해 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더 많은 대중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100일 정진을 회향할 때쯤 조계사에서 정범 스님을 찾아왔다. 내포 가야산 성역화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이다. 스님은 처음에는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지방본사와 중앙 사찰이 공통 사안에 협력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조계사는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 후 조계사가 할 수 있는 '문화결사'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1982년 수덕사에 입산해 사미계를 수지한 스님에게 수덕사와 내포 가야산은 고향과 같은 곳이다. 스님은 2007년부터 내포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내포 가야산은 수년째 '내포 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청남도는 문화유적지 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2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마애삼존불 앞에 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가야산 관통도로 사업은 인근에 지방도로가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개발을 바라보는 정범 스님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환경적으로나 불교계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개발입니다. 문화에 대한 인식도 결여돼 있는 각종 사업들로 내포 가야산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내포 가야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2007년부터 '백제의 미소길 걷기 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이용편의성'을 근거로 추진하려는 도로 건설보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지금 있는 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뜻이 담긴 산행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송전철탑 공사는 한국전력과 가야산연대가 공동으로 조사팀을 조직해 정기적인 활동을 펼치는 협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골프장 건설 계획은 철회됐다. 이제 가야산 관통도로가 가장 큰 과제로 남은 상황에서 조계사가 지방본사와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가야산 대찰 2곳이 폐사가 된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고, 관련 자료들을 발



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불교계 스스로가 나서서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정범 스님은 내포 가야산이 한국불교의 고난을 상징하는 불교 성지라고 강조한다. 내포 가야산에는 '백제

> 수덕사 현안에 조계사 대중 동참
>
> 문화결사를 실천하는 의미도 지녀

의 미소'라고 불리는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이 위치해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화엄십찰의 하나로 고려 광종 때 왕사였던 법인국사가 주석했던 보원사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보원사는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소실돼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가야사도 남연군 묘가 돼버린 채 터만 남아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다.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마애삼존불은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며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정범 스님은 불자들이 내포 가야산의 이런 역사성을 이해하고, 살아있는 성지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자들의 깨어있는 의식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 권력에 의해 폐사된 사연과 흔적을 오늘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종교편향이나 불교 폄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성지가 가야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내포 가야산 살리기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내포 가야산 살리기가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환경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노력이 불교 발전을 위한 길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인간은 본래 자연과 더불어 사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될수록 자연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불교는 '숲의 종교'라고 불릴 만큼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숲과 문화유산을 잘 지켜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는 것이 스님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정범 스님은 이런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내포 가야산을 불자들에게 알리고 지킴이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왔다. 2007년에는 산 중턱에 천막을 치고 기도 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런 진심어린 활동이 조계사 앞 100일 정진에서도 이어지면서 조계사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이번 협력으로 인적 · 물적 자원이 풍부한 중앙과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지방이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사찰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는 수많은 지방사찰들이 계속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박기범 기자

82세 노인 에베레스트 도전한다

네팔 우파드햐야 씨 세계 최고령 도전



지난 2008년 최고령의 나이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해 세계신기록을 세운 네팔인 민바하두르 셰르찬(80) 씨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다. 샤일렌드라 쿠마르 우파드햐야(82) 씨다.

원로에베레스트원정대 단장 램 진다지 구룽 회장은 "우파드햐야 씨는 이미 베이스캠프에 도착했고 계속 등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우파트햐야 씨는 4월 18일 미션을 내걸고 4월 27일 6000m지점에 있는 캠프1의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등반을 진행하고 있다.

우파드햐야씨는 네팔 정치사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1929년에 태어난 그는 1950년 네팔 공산당에 가입해 1952~1957년 당수가 됐다. 1986~1998년에는 네팔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만 아니라 지성인으로 네팔에서 프리랜서 작가와 시민사회운동도 활발히 펼쳤다.

불자로서 세계평화를 발원한 그는 80세가 됐을 때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해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네팔을 알리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등반을 진행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총무원 재무·문화부장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20일 재무부장에 도문 스님(사진 왼쪽)을, 문화부장에 진명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재무부장 스님은 조계사에 소임으로 종단 분위기를 잘 알지만 재무부 실제업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빠른 업무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문화부장 스님은 불교방송에서 8년간 방송을 진행해왔고 북경에서 포교에 진력해 그 소신이 뚜렷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문 스님과 진명 스님은 임명식 직후 "재무부는 종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종헌종법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화부 전문 인력들과 주변의 부실장 스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문 스님은 성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0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97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무봉사 주지 역임하고 조계사 부주지를 지냈다.

진명 스님은 정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했다.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했고, 중국 베이징 만월사 주지로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은 양곤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건립, 식수부족 공동우물 파기, 신뿌출가의식, 불자어린이 학용품 지원 등으로 전달되며 봉사단 현지 방문에 맞춰 후원물품도 직접 전달됩니다. 담당자 안내를 받으신 후 후원금 입금과 후원물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내역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봉사단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후원금 입금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로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봉행

불교법인연대 설립선포식·호국안민 기원대법회

창립 선포문

오천년의 유구한 역사속에 불법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어언 천육백여년 우리 민족의 영고성쇠의 운명과 더불어 같이 해 왔다. 불법이 흥할 때는 흥했고 불법이 쇠퇴할 때는 사회가 불안하였으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불교는 항상 호국안민의 旗幟기치를 들고 일어섰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蒙古몽고의 침략에 팔만대장경의 雕造佛事조조불사를 보았고 임진왜란에 西山서산, 四溟사명, 靈圭영규, 處英等처영등 大德대덕이 구국승병을 일으켜 조국을 수호했고 卍海만해는 삼일독립선원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불교에서 이루어졌음을 본다. 이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모든 불자들은 커다란 矜持긍지와 저성이 促求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一佛弟子일불제자로 求道구도의 길에는 많은 방편의 길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정법궤도를 離脫이탈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異端이단이요 魔道마도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수 많은 종파가 난립하고 한 없는 신행단체가 簇出족출하고 있음을 본다. 여기서 우리 모든 불자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많은 사상과 주의를 달리하는 종교와 종파가 난립하여 문자 그대로 多宗教社會다종교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제 불교는 대내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불교연대의 협의체 출현이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불기 2555년 현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주축이 되어 이사장 합의로 불교법인연대/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친애하는 이천만 불자여러분! 우리는 아집과 독단을 버리고 오로지 불법중흥과 호국안민을 위해 화합으로 총단결하자. 이 길만이 삼보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불기 2555(2011)년 4월 27일 발기인 일동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아 귀하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기원법회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불교법인대표들이
모여 21세기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의견을 수렴, 불교법인연대/연합회를 창립하고
그 선포식을 봉행하는 법석에 고명하신 법하를 초대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초 청 인
불교법인연대 / 연합회
총재 덕웅 지산 회장 혜암 영월
법인이사회 이사 일동 합장

일 시 : 불기 2555(2011)년 5월 31일 (음, 4.29) 화요일
· 오후 3시 30분 - 불교법인연대 선포식
· 오후 6시 - 호국안민기원제등법요식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강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문 의 : 연합불교방송 011-356-3427 / 일붕신문 010-6253-4936

나라는 달라도 부처·조사의 가르침은 하나

한·중 천태종 사부대중
국청사 조사기념당 개금 회향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국청사 방장 가명 스님


국청사 조사기념당에서 봉안된 천태지자 대사상(가운데) 의천대각 국사상(오른쪽) 상월원각 조사상

中 국청사서 5월 16일

낙성 제16주년 기념법회도

한국 천태종과 중국 천태종 본산 국청사가 천태조사 선양사업을 통한 양국간 우애를 다졌다.

한국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중국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방장 가명)는 5월 16일 천태지자 대사, 의천대각 국사, 상월원각 조사를 모신 조사기념당 개금불사 회향법회 및 낙성 제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한국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총무원장 정산 스님, 운덕 前 총무원장 스님,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과 교무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용암 스님, 규정부장 영제 스님 등 천태종 스님들과 성지순례차 참석한 신도 250명이 동참했다. 중국 국청사에서는 방장 가명 스님과 감원 윤관 스님, 수좌 극혜 스님 등 7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점안법회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에 이어 중국불교식 점안의식과 한국불교식 점안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낙성 제16주년 기념법회는 △권공축원 △국청사 방장 커밍 스님 법어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법어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종정 도용 스님은 "천태조사의 법광이 시방을 비추니 중토(中土)로부터 해동에 이르기까지 만 중생이 이 법에 의지해 해탈을 얻으니 모두가 환희하네"라는 법어를 내렸다. 이어 스님은 "1995년 양국 천태종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한·중 조사기념당을 세워 역대 조사들의 공덕과 법력을 기린 바 있다"며 "오늘 이 자리 역시 요익중생의 미래 불사를 담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청사 방장 커밍 스님은 "지자 대사의 법은 우주 법계의 으뜸이요, 시시때때로 법을 설하시니 미혹의 마음이 열리고, 팔만의 강과 모래, 먼지를 모두 멸하시고 천태지관문으로 들어가셨네. 의천·원각 조사가 그 법을 받들어 한국에 천태의 법을 전파해 중생을 구제하네"라고 법어를 했다.

이에 앞선 15일, 국청사 환영만찬에서 중국 국청사 감원 윤관(允觀) 스님은 "한·중 천태종 교류는 1400년 전부터 이어졌다. 최근 세계평화를 위해 두 나라의 노력은 16년 전 한·중 천태종 조사기념당 낙성으로 다시금 시작됐다"며 "이런 교류는 황금유대라 할 수 있으며, 양국 천태종 간 관계를 깊게 하고, 서로 이해, 발전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한국의 사부대중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중국 국청사와 한국 천태종이 역사적으로 끈끈한 정을 이어오는 등 과거의 깊은 인연에 기인한다"며 "서울연등축제에 원꽝 스님(국청사 감원) 등 중국 천태종 일행이 참석한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 천태종이 한집안과 같이 우의를 다져 불교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타산 보제사 방장 스님과 환담 모습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의 법어 모습

법회 후, 천태종 사부대중은 천태산 지자육신탑(智者肉身塔)을 참배했다. 해발 1400m 고지에 자리한 지자육신탑은 지자 대사 입적 후 대사의 법신을 보관한 곳이다.

이후 국청사 일정을 모두 마친 천태종 사부대중과 성지순례단은 17일 구화산, 아미산, 오대산과 함께 중국 4대 불교성지로 손꼽히는 관음성지 절강성 보타산을, 18일 항주 영은사, 영복사, 19일 무석 범궁 등을 참배했다. **절강성=조동섭 기자**

■국청사 한·중 조사기념당은?

중국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 한·중 조사기념당은 한·중 천태종이 공사비를 공동 부담해 2년 간의 공사 끝에 1995년 6월 17일 낙성했다. 국청사의 가장 윗 건물인 관음전 왼편에 중국 전통 사찰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조사전은 건평 232㎡ 규모로, 천태조사 세분의 청동좌상이 모셔져 있다.

조사당 중앙에는 천태종을 창시한 수나라 지자대사상이 그 오른쪽엔 한국에 천태종을 개립한 대각국사상, 왼쪽엔 근대 한국 천태종의 중흥조인 상월원각대조사상이 봉안됐다. 상의 크기는 지자대사상 190cm, 대각국사와 상월대조사상은 각각 180cm이다. 각 상의 뒤편에는 조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 또한 벽면에는 한국과 중국 천태종의 법통 계승과정이 도표로 그려져 있다.


국청사 조사기념당 제막 모습

"한·중·일 한자리서 지자 대사 열반 기릴 것"

국청사 조사기념당 개금불사 주도한 총무원장 정산 스님



"16년 전 중국 국청사에 한·중 천태종 조사기념당 건립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양국간 협력관계가 이번 개금불사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한·중·일 천태종이 지자 대사 열반재를 함께 봉행하는 등 천태종간 국제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산 스님(사진)은 이번 개금불사 회향에 이어 6월 14일에는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에서 제4회 한·중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님은 조사기념당 건립과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봉안 배경에 대해 故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회고했다.

정산 스님은 "조박초 회장은 부산 삼광사를 방문해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불자까지도 수행으로 똘똘 뭉쳐있는, 당시 중국불교와 차별화된 한국 천태종의 모습에 크게 감명 받았다. 조 회장은 그러한 모습이 천태종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라는 3대지표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중일 3국 천태종 교류에도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중국과 일본 천태종 스님을 초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천태종은 지진 복구로 1명만 참석해 아쉬움이 있었다. 중국 천태종은 국청사 감원 윤광 스님 등 8명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지자대사 열반일에 한·중·일 3국 천태종이 국청사에서 함께 법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향후 공동학술대회를 열자는 제안도 이미 해두었다"고 말했다.

중국 국청사는

한·중·일 3국 천태종의 발원지이다.

진나라 선제 태건 7년(서기 575년) 천태종 개창조인 지자 대사는 천태산에 자리를 잡았다. 선제는 지자 대사를 위해 천태산에 '수선사'를 지었다. 지자 대사는 수선사에서 10년 간 수행 후 진나라 5대왕 후주의 간청에 금릉(현재 남경)으로 자리를 옮겨 불경을 강의했다.

얼마 후 진나라는 수나라에 의해 멸망하자 지자 대사는 행각을 떠났다. 수 문제 개황 15년, 지자 대사가 10년간의 행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선사는 황폐해져 있었다. 지자 대사는 복원에 나섰지만 완공을 보지 못하고 원적에 들었다. 수양제는 "절이 완공되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말에 복원을 지원한뒤, '국청사'로 부르게 했다.

국청사는 천태종 제16조인 의통보운 존자가 법맥을 이은 곳이다. 한국 천태종을 중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수행하기도 했다.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 오색공단등 / 팔각접등 / 만월등 /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승하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개념 기술로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하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하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교자유 불심 빛났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울 불자 2만5000명 적극 동참



사회부장 혜경 스님(사진 가운데)이 주민발의 성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 발의 서명이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목표인원을 무사히 달성했다.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와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주민발의 성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5월 16일 한국역사불교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서울시는 주민발의를 위한 최소 인원을 지역 유권자의 1%인 8만 185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가 받은 서명은 8만5000여명이다. 이 중 2만50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게재 등 유효 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원은 1만1000여명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오던 중 서명 종료 시한을 한 달 정도를 남기고 대불청과 협의를 가졌다. 당시 서울본부측은 주민발의를 위한 목표 인원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달여의 짧은 시간 동안 대불청과 불교계는 불자들에게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알려 목표 인원을 채울 수 있었다.

대불청은 이사회를 통해 주민발의 서명 운동 동참을 결의하고 정우식 회장이 서울 지역 36개 사찰을 방문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직할교구 서울지역 사찰에 협조 공문 및 서명용지를 발송하고 일요법회 때 불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전을 펼쳤다.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취합된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5월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명부를 검토 후 요건에 미흡한 서명인 여부를 확인한 뒤 교육청 의견을 첨부해 서울시의회에 전달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 본회의에 제출한다.

대불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서울본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까지 2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르면 10월 경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발의 원안은 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심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원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심의 모니터링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불청은 또 이번 주민발의 서명 성공을 계기로 특정 종교 강요 사태 방지를 위해 조례제정 전국 확산에 나선다. 이미 경상남도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대불청 전국 각 지부와 지회를 통해 이번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이번 일은 주민발의의 성공적 케이스로 평가받을 수 있다. 앞으로 지역 불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부장 혜경 스님은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이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박 기 범 기자의 라후라존자를 찾아서

"따뜻한 도시락에 부처님 마음 담아요"

김완희 능인복지관 사랑 나눔회 회장



김완희(사진 · 63) 회장과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사랑 나눔회'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아침 9시면 복지관 주방에 모여 숙달된 솜씨로 맛있는 반찬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찬은 따뜻한 도시락에 담겨 능인복지관이 지원하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

"다들 봉사도 꾸준히 하고, 주부 경력도 오래된 분들이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힘든 것도 잊고 정도 쌓입니다."

사랑 나눔회 회원들은 집에서 서로 음식을 만들어와 나누어 먹기도 하고,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도 교환한다. 이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만든 반찬은 영양은 물론 사랑도 듬뿍 담겨 맛이 일품이다.

더구나 지금은 도시락을 배달하는 팀이 따로 있지만 몇 해전까지는 사랑 나눔회 회원들이 직접 배달도 맡았다. 그래서 '사랑나눔회'는 그 분들이 행복해하고, 도시락을 먹고 건강해질 모습을 상상하면서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김완희 회장은 작년 봄에 강북으로 이사를 갔다. 봉사가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복지관에 와야 한다. 출근 시간과 겹쳐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지만 긍정적인 성격의 김 회장은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젊은 시절 약대를 다녔던 김완희 회장은 학창시절부터 의료봉사에 참여했다. 결혼 후에는 아기를 키우면서 이웃 집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책을 읽어주면서 돌봐주기도 했다. 맹인들을 위한 도서 녹음 봉사에도 참여하는 등 김 회장에게 봉사는 삶의 일부분이다.

"봉사활동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복지관이 능인선원과 연계돼 있어 불자로서 마음도 더 편하고 불심이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을 만나 정말 행복합니다."

김완희 회장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성격도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법회도 더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법문을 주변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집착없는 선행과 선심을 강조한 말인데,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깨달음을 얻고도 군림하지 않고 자신을 낮춘 부처님의 모습이 봉사의 정신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본받으며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박기범 기자

포교원, 장애인 전법단 출범

장애인 합동수계법회 및 편의시설 설치 추진

사회 취약분야에 대한 법회지원을 위한 장애인전법단이 출범했다.

2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장애인전법단 출범식을 개최한 포교원(원장 혜총)은 장애인불자 모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법단은 지거 스님(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을 단장으로, 세영 스님(신륵사 주지),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 현각 스님(성불원 대표)을 자문법사로 구성했으며, 장애인 복지와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 22명을 지도법사로 임명했다.

장애인 지원전법단에는 장애인 불자모임 '보리수 아래' 최명숙 회장, 엄재면 원심회 회장, 장애인 복지기관 및 장애인 신행단체 실무대표자 18명을 위촉했다.

전법단은 장애인 포교를 위해 △불교장애인복지 개념 및 사상 정립 △장애인포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장애인 정보화 증진 △조계종 및 사찰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확대 등을 중장기 과제로 삼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법단은 장애인법회 거점사찰을 선정해 지역별 합동법회를 열고 기초교리교육과 장애인 불자 합동수계법회를 개최하는 등 불자장애인 신행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법단은 계단 및 법당 난간에 비탈길을 설치하고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이동 및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포교원 측은 "향후 전법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활동비를 지원하고 필요시 각 기관에 포교원 명의의 협조공문을 시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불교 생명·복지 한자리서 고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6일, 전법회관 6층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5월 26일 오후 2시 전법회관 6층에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이정호 상무이사(인드라망 소비자생활협동조합)가 '불교생명운동과 불교사회복지의 연대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정호 상무이사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기초한 생활협동조합의 활동 및 불교생명운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협동조합의 다양한 콘텐츠를 불교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포교원, 신도단체 임원연수

28~29일 전통불교문화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신도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신도단체 임원연수를 실시한다.

행사는 5월 28~29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신도연합단체와 직장직능단체의 중앙, 지부 · 지회의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자성과 쇄신 결사 공유 △신도단체 현황 및 조직 활성화 방안 △포교종책 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자성과 쇄신결사의 실천을 위해 신도단체 및 직장직능단체들의 종단적 정체성 확립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파라미타, 장보고 길따라 문화탐방 실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는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과 함께 8월 6~12일 '제2회 장보고 길따라 문화탐방 및 청소년국제교류'를 실시한다.

문화탐방 및 국제교류 행사는 청도에서 녹차밭 체험, 중국학생 가정방문 및 저녁식사, 청조맥주공장 견학, 위해시 적산풍경구 및 적산 법화원 방문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참가희망자는 파라미타 회원 중학교 1학년 이상 가능하다. 문화탐방은 현직 지도교사로 진행팀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 청소년 15명당 지도자 1명이 인솔한다.

참가비는 체재비, 왕복선박료, 비자, 여행자보험, 프로그램 포함 47만원이다. 접수는 5월 31일까지 (02) 723-6165

이상언 기자

문화 탐방 전 충실한 교육부터

우리는 선우, '현장법사의 실크로드 탐방'

불교지성인을 위한 신개념 실크로드 탐방 패키지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와 포교전략연구소에서는 세계역사문화탐방 시리즈로 '현장법사의 실크로드 탐방'을 실시한다.

문화탐방은 8월 23일~9월 1일 중국 서부 서안, 난주, 돈황, 투르판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6월 1일~7월 13일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6월 15일~7월 6일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불교와 도교의 만남 서유기' 정규과정과 집중과정 강의가 진행된다.

(02)2278-8672 이상언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바자회 실시

6월 2~3일 나무 갤러리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애주)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 불교여성광장(AGORA) 건립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바자회 물품은 여성불자 108인의 작품 및 소장품들로 악세서리, 노리개, 도자기, 불교용품, 화장품, 의류, 장류, 밑반찬류 등이다.

바자회 수익금은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및 여성불자들을 위한 교육 및 역량을 결집할 통합공간인 '불교여성광장(AGORA)' 건립에 쓰인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대 구 053-566-1116 울 산 052-260-1037
부 산 051-441-0111 경 남 055-932-5877 제 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악한 과보는 불법을 멀리하게 해

양승규 연구교수, 티베트불교 사상으로 업과 윤회 풀어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미(一味)로 회통한다. 도차제(道次第)에서 업과 윤회 기본 정신은 〈반야경〉에서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 가르침을 섭수하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양승규 동국대 연구교수는 5월 14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불교학연구회(회장 박경준) '업(業)과 윤회(輪廻)'를 주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승규 교수는 티베트 종합 수행 안내서인 〈Lam-rim(道次第)〉을 중심으로 티베트 불교의 업과 윤회 관점을 수행의 차원에서 설명했다.

양승규 교수는 "〈Lam-rim(道次第)〉은 업과 윤회의 이해를 통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해명되고 있다"며 "업과 윤회는 불교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인도에서 설명돼 왔으며 불교 이외의 종교와 철학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해왔지만 불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업과 윤회의 방식은 다르다"고 말했다.

양승규 교수는 下士道, 中士道, 上士道 수행단계인 삼사도(三士道)의 번역의 틀을 깨고 작은사람, 중간사람, 큰사람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도차제〉에서 '업설'의 가르침은 세상의 원만함만을 획득하려는 작은 사람[下士道]에서 설명된다. '작은 사람'은 현생



의 안락만을 염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정도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 이들에게 내생이 있으며, 현생의 안락함만큼 내생의 안락이 중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업설을 가르친다. 양 교수는 "십악업(十惡業)과 십선업(十善業)에도 과보는 따르며, 선과는 일체지의 깨달음으로 이끌 수 있지만, 악과는 불법을 닦을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이끈다고 설명한다"며 "〈도차제〉에서는 악업을 바르게 참회해 함으로써 수행으로 악업 소멸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사람을 위해서는 악도와 고통을 설명하는데 그쳐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까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차제〉에서 '윤회'에 대한 문제는 중간사람[中士道]에 이르러서는 윤회하는 방식과 이유를 사성제의 고제(苦諦)와 집제(執諦)로 집중 설명한다.

양 교수는 "중간사람은 윤회에 해탈하는 적멸과 안락의 정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중간사람과 상응하는 〈도차제〉에서 고제를 설명하는 것은 수행의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이다"며 "중간사람은 고제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관찰행을 통해 관찰할 대상을 잃지 않고, 대상에 대해 들뜨거나 가라앉지도 않도록 분명하게 대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고제는 윤회의 결과라면 집제는 윤회의 원인이다. 윤회의 원인은 번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도차제〉에서는 집제를 번뇌의 중심으로 설명한다. 번뇌의 본질과 갈래, 번뇌를 통해 업을 쌓고 죽고 태어나는 방식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큰사람[上士道]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람으로 대승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의 길이다. 양승규 교수는 "〈도차제〉에서는 큰사람의 도차제로 완성된다. 작은사람과 중간사람에 상응하는 〈도차제〉에서 윤회의 과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큰사람을 위해 방편적으로 시설한 것이며 개인의 증득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처님은 무여열반에 든 성문과 연각을 깨워서 대승의 길로 이끈다. 대승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보리심이고, 대승의 길이 보살행이고, 대승의 목적이 무주처열반에서 중등정각을 성취했다.

양승규 교수는 "〈도차제〉의 기본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회통하며 그 중심축에는 큰사람의 도차제인 대승의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다"며 "업설과 윤회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은 보살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유해 스스로 악업과 윤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행의 방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언 · 천진영 기자

선원청규 정신으로 돌아가면 불교 살아나

한국선학회 '선원청규' 주제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선학회(회장 송묵 · 사진)는 5월 14일 동국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이하 〈선원청규〉) 발간을 기념해 한국불교의 수행과 〈선원청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원청규〉편찬위원장 의정 스님(양평 용문선원 선원장)이 '〈선원청규〉와 수행'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주제발표에는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이 '〈선원 청규〉의 편찬 의의와 그 내용'을, 김호귀 동국대 연구교수가 '〈수선결사문〉의 수선 작법과 수선결사의 이념'을, 연세대 신규탁 교수가 '〈범망경〉의 계율과 수행'을, 창원문성대 이덕진 교수가 '〈선원청규〉와 한국불교 수행의 나아갈 길'을 발표했다.

의정 스님은 "생활선의 종합지침서인 청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간화선을 회복하고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규에 나타나는 특색으로 대중운력을 통해 노동을 수행화한 보청법(普請法)과 차(茶)생활이 곧 수행이라는 생활선을 구체화한 선다례(禪茶禮)는 선종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 스님은 "한국 선종의 근본 수행법인 간화선이 삶과 수행이 분리돼 있다"며 "간화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해 위기에 직면 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님은 "선원의 내부를 정비하고 밖으로 정법을 유포해 나아가야할 때라며 청정대중들은 두려움 없이 성찰하고 실천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월암 스님은 "〈선원청규〉의 편찬의의는 한국선불교 100년의 역사에 최초로 제정됐다는 역사적 의미와 한국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데 있다"며 〈선원청규〉를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다.

김호귀 연구교수는 〈수선결사문〉을 백파가 독자적으로 선관을 제시한 것으로 선리(禪理)에 대한 참구와 실제를 실천하기 위한 수선 방법 및 이념을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 했다.

김 연구교수는 백파가 수선결사를 실천하기위한 구체적인 지침인 〈사중규승〉의 일곱 가지 항목을 통해 "〈사중규승〉의 이념은 육바라밀의 보살도에 있으며, 수선의 궁극적인 목표 역시 보살도의 실천이다"고 설명했다.



이덕진 교수는 "청규는 불교의 근본정신의 계승과 현실토양에 적합한 새로운 실천체계로서 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진영 기자

단신 모음

불교진흥원 제9회 대원상 후보 공모

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철)은 제9회 대원상(大圓賞) 후보를 공모한다. 포교대상, 콘텐츠대상 두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각각 7월 1~29일과 8월 1~31일 이며 총 상금은 9000만원이다. (02)719-2606

성철 스님 100주년 기념 2차 학술포럼 개최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기념 2차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근대불교 100년과 퇴옹성철'을 주제로 5월 26일 오후 1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02)2198-5100

동국대 불문연 봉축세미나 개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5월 28일 오전 10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봉축세미나를 개최한다. 목포대 최연식 교수 등 5명이 주제발표 한다. (02)2260-8507

문화부, 불교서적 6권 우수학술도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389종의 도서를 '2011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했다. 불교서적으로는 〈용수의 사유〉(신상환, 도서출판b), 〈육조단경〉(정은주, 풀빛) 등 6권이 포함됐다. 선정 목록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pec.or.kr

금강대, 제16회 인문한국 콜로키움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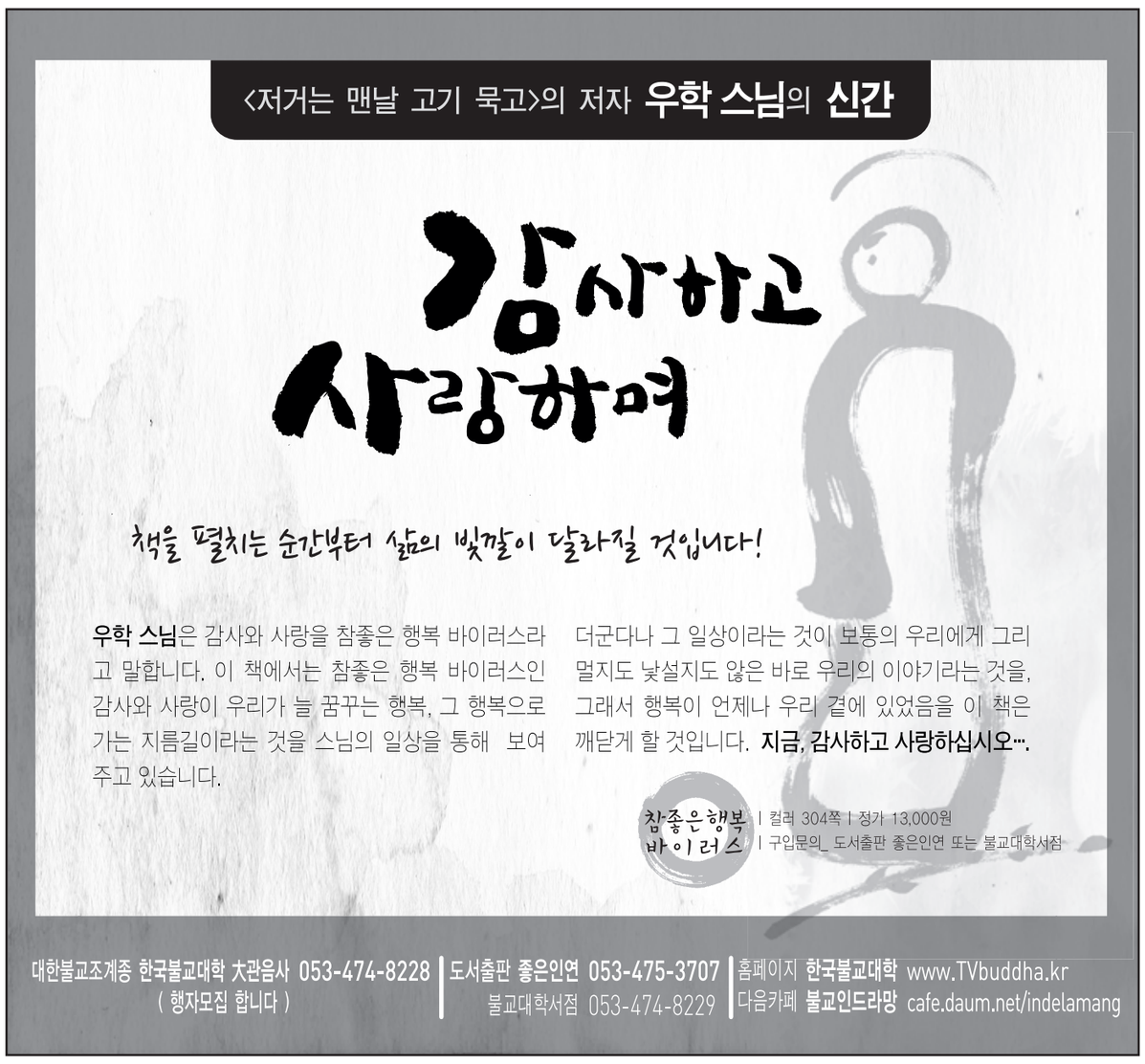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5월 25일 오후 3시 금강대학교 본관에서 '불교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제로 제16회 인문한국(HK)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하유진 씨와 박보람 씨가 주제 발표했다. (041)731-3621

동국대 불문연 '불교학보' 인용지수 1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발행 〈불교학보〉가 2008년 기준 인문학 KCI인용지수가 종교학 분야 1위 및 전국 대학연구소 발행 학술지 6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www.nrf.re.kr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5월 3일~6월 12일까지 2층 왕실 생활실에서 보물 제1660호 및 제1661호인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과 8종의 불교경전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02)3701-7500





"노무현 前 대통령은 부루나 존자"

정토원 추모법회… 부산 전역서 노무현 前 대통령 2주기 추모행사 잇따라

김해 봉화산 정토원장 선진규 법사



"故노무현 前대통령은 불교를 포교한 진정한 부루나존자입니다. 과거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수행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골마을의 작은 절에 대통령의 유골함이 모셔지고, 대국민적인 49재를 봉행하면서 엄청난 포교효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故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5월 22일 노 前 대통령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는 김해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에서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김해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은 노 前 대통령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녀간 사찰로 알려지면서 2009년 장례식부터 49재를 치르는 동안 봉하마을에 200만 명의 추모객 중 정토원에도 약 70만 명이 다녀갔다. 매일 50~60대의 대형버스가 정토원을 향하는 좁고 험준한 산길을 오갔지만 단 한차례의 경미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루 0.5리터 생수 1만여 병을 방문객에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날이 갈수록 생수 확보에 애를 먹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보시가 들어왔다.

49재 이후 정토원에서 이웃종교인들의 방문과 참배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49재 역시 이웃종교인들은 불교를 폄하할 때 미신이라고 비하했다. 하지만 노 前 대통령의 49재는 전국민이 공감하고 화합하는 거룩한 추모의식이었다.

선 원장은 "올해 2주기추모제는 전국 27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그 종교성향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이웃종교인이고, 불교는 전무했다"며 "불자로서 살다가 죽음으로 불교를 포교한 노 前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불교계에서도 발심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정토원에는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20평 남짓의 쉼터 및 전망대가 조성됐다. 전망대를 기점으로 5분 거리의 사자바위를 거쳐 호미든관세음보살상까지 오르는 계단산책로에는 '대통령의 길'이 새로 생겨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523개의 추모등이 부처님오신날부터 25일까지 불을 밝혔다.

그밖에 부산시내 곳곳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행사가 4대 종단을 비롯한 시민사회연대단체가 주축이 돼 진행됐다.

'노무현대통령 2주기 추모행사 부산추진위원회'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부산지역 야 4당과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부산시민운동단체연합, 부산노사모, 부산시민광장 등 시민사회연대단체 등을 주축으로 5월 한 달간 부산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과 '노무현 대통령 2주기 추모행사 부산추진위'는 5월 12일 부산시의회에서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과제와 부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22일에는 부산대에서 '파워 투 더 피플 2011, 부산 콘서트'를 개최했다.

박지원 기자

죽고싶던 마을 살맛나게

박용하 부산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용하관장(사진 가운데)이 복지관 직원들과 웃고 있다.

부산진구 개금3동 산 아래 한 아파트는 한때 2개월에 1명 꼴로 자살을 했다. 1000세대의 보금자리인 단지는 9평 남짓의 공간에서 3대가 부둥켜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멈췄고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잇단 자살은 이웃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남겼다.

최근 이 아파트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반딧불이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맹활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지역민들은 주변 동에서 자살을 한 이후,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기봉)으로 찾아와 천도재를 지내달라고 부탁했다.

박용하 개금종합사회복지관(조계종부신연합회 재무국장) 관장은 독거노인을 위한 자살예방프로그램으로 '반딧불이 오케스트라'를 개발했다.

1000세대 중 독거노인을 1차 선별 후 '우울증 척도검사'를 통해 선별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제안했다. 지역의 음대생 및 음악학원장 봉사자와 연계해 연주하기 쉬운 악기 위주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음악 속에서 생명존중과 불교의 윤회사상을 배운 이들은 더 이상 자살로 삶을 마감하지 않는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불교계가 부산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된 최초의 복지관이다. 옛날 원효 스님이 민중불교를 펼치셨던 것처럼 민중 곁에서 불법을 전하자는 여러 스님들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를 창립했고, 불국토의 첫 복지관이 이곳이기도 하다.

31명의 직원들은 매일 오전 근무 전 예불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낭독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기적인 사찰 참배를 통해서 서서히 불자가 돼가고 있다.

10년째 복지관을 이끌어 온 박용하 관장은 불교법난 당시, 청년회원으로 활동하던 대각사 스님들이 영문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연행돼가는 모습을 목격한다.

불교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군사독재정부가 민중을 길들인다는 이유로 불교를 범죄의 온상으로 폄하해, 교구본사의 스님들은 물론 중소 사찰의 주지 · 재무 · 총무스님들을 무장군인이 강제로 연행해 조사한 사건이다. 그날 이후 재가불자로서 할 일에 대해 고민한 끝에 정관 스님의 어린이포교 원력을 받들어 어린이 포교단체인 동련(이사장 심산)의 전신인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에서 청년불자로서 열정을 쏟아냈다. 이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의 사무국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청소년 및 사회복지 포교로 발걸음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재무국장 소임을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부산 교계에서는 복지관하면 '어느 절 어느 스님이 하는 것'이라며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불교계 사회복지관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포교의 최일선이라고 여기는 참여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자리에 스님과 절이 서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청년불자로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어린이 · 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포교 사각지대를 묵묵히 지켜온 그의 발걸음이 자리이타의 행을 실천하던 부루나 존자를 닮았다. 박지원 기자



청송교도소 봉축법회 및 교화공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4일 경북북부(청송) 제3교도소(소장 김안식) 청송교도소에서 봉축법회 및 교화공연을 봉행했다. 봉축법회에서 부산 보리암(주지 도일)과 청송 진흥사(주지 현종), 동화사 풍물단원 등 봉사자 70여 명은 재소자와 풍물단원이 한데 어우러져 '난타' 북 공연 등을 진행했다. 이날 김안식 소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감호자 교정교화사업에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불교계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며, 10년 가까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불교교정위원 이점숙 보살(석정사 감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054)971-1778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곳곳서 장학금 전달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잇달아 마련됐다.

부산 범어사 산내암자인 금강암(주지 정만, 조계종 기획실장)은 5월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2회 금강암장학회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2명에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총 3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051)508-4509

양산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오사(주지 정관)에서도 꿈나무장학회 전달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현재 꿈나무공부방에 재학중인 중학생 6명과 든솔학교(주민센터 운영 방과후학교) 재학생 10명에 각 60만원, 동부산대학생 6명에 각 50만원 등 총 13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051)542-7949 박지원 기자

해처럼 빛나는 행복의 나라

6월 4~5일 제5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심산)은 6월 4~5일 충북 보은 속리산유스타운에서 51번째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어린이청소년위원회와 동련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와 대한불교교사대학,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동련 동화구연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는 화랑 스님(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정각원장)의 '쉼 없는 정진', 류종형 소장(사상심리연구소)의 '정진할 도반들과 나누는 기쁨과 복덕' 강의 외에도 김광호 부학장(대한불교교사대학), 정범 스님(중앙종회포교분과위원장, 옥천암 주지),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등의 특별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051)864-4569,4570 www.dongryun.net 박지원 기자

몽골불교 한국친선방문단

동북아시아 평화기원 및 몽골불교 한국친선방문단 환영법회가 5월 1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봉행됐다. 국제 불교교류단체 함께하는세상(이사장 지성)이 마련한 이날 법회에는 지성스님, 류병선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알땅게르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관음사 20주년 합창제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창건 20주년 합창제를 5월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합창제에서는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이 창건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직접 작사한 '한국불교대학 환상곡'도 처음 선보였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 국내특허 제0751485호
•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그날의 상처에 부처님 자비를”

광주 불교계, 5·18 광주항쟁 31주년 추모제 봉행… 다양한 행사서 영령 위로

한국 민주주의 중요한 전환기인 5·18은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에게는 큰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매년 추모행사와 나눔 행사들이 진행된다.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을 맞아 불교계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혜령)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5월 18일 국립 5·18묘역에서 유가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18 민주영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산 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과 혜령 스님을 비롯해 전통불교영산회 회원스님들이 참여해 전통영산작법 시현을 통해 민주영령의 편안한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행사는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에 이어 묘역을 순례하는 봉송이 이어졌다.

혜령 스님은 “아직도 그 아픔이 씻기지 않은 영가들에게 지극한 마음으로 의식을 봉행하는 것이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광주전남불교NGO연대(대표 현지)주최로 추모법회가 원각사(회주 현고)에서 봉행됐다. 7시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법일 스님(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과 현고 스님의 인사말과 추모 공연이 펼쳐졌다. 추모 공연에는 민중가수 류의남씨와 김경일 시인의 ‘오월’ 추모시 헌송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5·18당시 활동했던 현고 스님, 이순규 원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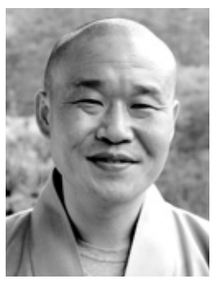
이에 앞서 15일에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주최로 망월동 구묘역에서 작은음악회가 진행됐다. ‘꽃진 자리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음악회와 함께 참배객들에게는 주먹밥 518개를 나눠주고, 차와 떡 나눔도 함께 진행됐다.


천도재 봉송을 하는 스님과 유가족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서 전기를 만들어 팝니다

공양소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문빈정사 법선 스님



지구온난화와 일본 원자력 발전의 잇따른 사고로 인해 이제는 안전한 청정에너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와중에 광주 무등산자락의 한 사찰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사진)이다.

법선 스님은 문빈정사의 공양소 옥상위를 청정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만들었다. 사찰에서 버려두는 공간인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매월 4~50만원의 수익금을 적립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해 ‘기적의 발전소’라 불리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빛으로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무공해 발전소입니다. 지난 세월 자연환경과 정신적 청렴의 공간이었던 사찰이 이제는 미래의 친환경 공간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SDN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발전소는 18평 면적의 집열판을 통해 시간당 평균 8.5kw. 하루 3~4시간 정도의 강한 빛으로 만들어진 40여kw의 전력을 한 달간 모으면 약 4~50만원의 기금이 쌓인다. 문빈정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축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전력회사(한전)의 송전망에 접속시켜 생성된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한다. 40kw는 일반가정 세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향후 25년 정도 안정적으로 생산한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뜻하는 무량광불에서 이름을 따 無量光(무량광)발전소라 명명했어요. 이를 계기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세간에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지요.”

무량광발전소의 이름처럼 1년 동안 만들어진 기금 500여 만원은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에 사용된다. 특히 소외되고 힘든 계층에게 작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빈정사에서 친환경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지렁이 학교, 올챙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환경과 생태 불사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무량광 발전소는 불상을 모시거나 건물을 짓는 불사가 아니라 지구를 살리는 불사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현재 지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부(富)의 시소를 가리면서 제로 게임을 하는 섬과 같은 곳이다. 화석연료의 과다사용과 원자력의 사용은 우리에게 큰 과보를 남긴다. ‘친환경에너지가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린다’는 무량광발전소의 건립이념처럼 불교계도 친환경에너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무량광발전소가 주목받는 이유이며, 불교가 미래 친환경적인 자립산업으로 키워야할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자들과 주민들 함께 손잡고 ‘얼쑤’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위한 한마당 큰잔치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민을 위한 한마당 큰잔치를 벌였다.

불교계 복지관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제)은 광산구 구민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안잔치인 ‘한마음·한가족·한마당’ 행사를 5월 19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영2차영구임대아파트 임대인대표자회와 지역사회복지관이 협력해 마련했다. 여기에 원각사, 길상사, 선덕사 등 지역 사찰과 생명나눔실천회광주전남지역본부와 자비신행회 등 불교단체들이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11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패와 각종 상이 수여됐다. 2부에서는 사물놀이, 모듬북, 민요, 통기타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 후에는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공사 준공식도 열렸다.



행사를 마련한 도제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아 힘차게 살아가는 지역주민을 위해, 따뜻한 세상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cc 채혈로 새 생명 희망찾기

광주생명나눔, 소아암백혈병 환우 위한 캠페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5월 11~13일 나주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 학생회관과 17~18일 전남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2011년 아픈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프로젝트 - 3cc 채혈로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촛불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11일 나주동신대학교 총장실에서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간호학과 2학년 김소희 학생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현지 스님은 “작은 인연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말로 가장 숭고한 보살행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비움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

고창 선운사,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대웅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비움과 나눔-회향’을 5월 8일 개최했다.

‘비움으로 가득차고 나눔으로 더해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고창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초청해 흥겨운 축하 무대를 마련하고 고창군청과 강호 항공고, 성내하늘땅센터에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법만 스님은 “세대간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신행회, 바자회 개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비신행회 어르신 식당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밑반찬 마련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자선바자회에서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옷과 책, 잡화, 가방, 신발 등 1000여점의 물품이 판매됐고,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가장의 집에 전달 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순천 선암사 효 큰잔치 개최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대웅전 앞마당에서 선암사복지봉사단과 선암사불교대학봉사단이 주관하는 ‘효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큰스님과 경담 스님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마련했다. 행사는 최숙자 명창 외 5명의 민요와 박석순 명창의 시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선암사 영산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재 시연이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사 봉축 법요식 봉행

김제 금산사(회주 태공월주, 주지 벽산 원행)는 5월 10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봉축 법요식에는 태공월주 대종사를 비롯해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등 대덕스님들과 김백호 전라북도 신도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각급 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봉축법요식에서 태공월주 대종사는 “불자들은 동일법성의 진리를 알고 나의 불성을 깨우는 동시에 남의 불성을 깨우며 서로 아끼고 도우며 살아갈 때 모두가 부처님이다”라고 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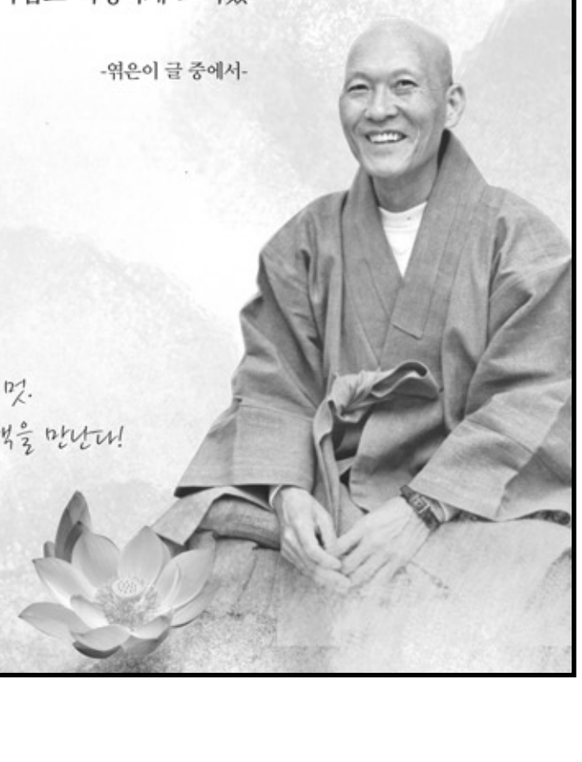
법정스님의 미공개 친필편지

“평생을 걸쳐 써 오신 주옥같은 글들도 모두 말빚이므로 거두어들이라는 유언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개구리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 계시다면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고 꾸짖으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제게 주신 스님의 육필肉筆을 모아 이렇게 책으로 엮는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스님이 수행자로서 지니신 기상이 더러 어떤 사람들에겐 지나치게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졌을지 몰라, 스님 내면에 이토록 다감하고 따뜻한 면들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엮은이 글 중에서-

마음하는 아우야!

출가하는 청년법정의 고뇌와 가족에 대한 애틋함.
방황하는 아우에게 들려주는 형님의 진솔한 가르침.
이십대 젊은 날의 법정스님이 아끼던 책들과 친필 속에 담긴 멋.
‘무소유’ 책 이전, 알려지지 않았던 법정스님의 인간적인 예백을 만난다!



신간발행

박성직 엮음 | 양장·올컬러 친필편지 원본사진 수록
nockyawon@gmail.com/070-8812-7160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1〉
선각 국사 도선 (上)
(先覺國師 道詵, 827~898)

선종의 정신, 고려 창업의 기틀을 제공하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힘을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임명하여 분수(焚修)하게 하고 각각 그 종파[業]를 다스리도록 하라. 뒷날 간신이 정치를 집권해서 승려의 청탁을 받아들여 각 종파의 사찰을 서로 빼앗거나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모든 사원은 다 도선(道詵)이 지정한 산수(山水)의 순역(順逆)을 추점하여 개창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정한 곳 외에 함부로 더 창건한다면 지덕(地德)을 손상시켜 국업이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짐은 훗날 국왕과 공후, 후비(后妃)와 신하들이 각각 원당(願堂)이라 핑계하여 더 지을까 걱정이다. 신라 말 경쟁하듯이 사원을 창건하여 지덕이 쇠약하여 결국에는 멸망하였으니, 경계할 일이다."(〈고려사〉 권2, 태조세가, 태조 26년 4월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고려 태조가 후세에게 남겼다는 〈훈요십조(訓要十條)〉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다.

〈훈요십조〉는 고려시대를 관통했던 국가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국가정신을 말하는 첫째 항목은 국가의 창업이 부처의 은덕에 힘입은 것이며,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되 사원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고, 둘째 항목은 지덕(地德)을 보존해 국가가 영속될 수 있도록 도선 국사가 정한 자리 외에 별도의 사찰을 더 창건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고려 승려를 말함에 있어, 그 첫 번째에 선각 국사 도선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도선 국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훈요십조〉를 먼저 들먹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흔히 도선 국사는 '사탑비보설(寺塔裨補說)'의 주창자, 바꾸어 말하면 한국적 풍수지리의 시조 정도로 여겨지는데, 〈훈요십조〉의 이 같은 기록이 도선 국사에 대한 우리의 인상을 결정짓게 된 계기가 된 부분이다.

대개 이 기록을 접한 사람들이 느끼는 도선 국사에 대한 인상은 음양가(陰陽家)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절과 탑을 세워서 산수(山水)의 형세에 따라 적절히 배치해 땅의 덕[地德]을 보완한다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도선 국사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많은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훈요십조〉, 고려 태조가 자신들의 자손이 귀감으로 삼도록 했다는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앞서의 왕조인 신라가 망한 결정적 원인들에 대한 태조의 반성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항목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신라 말 사원의 운영권을 두고 종파간의 다툼이 심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국가정신의 원형이 된 불교 교단 내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의 핵심은 왕족은 물론 대신귀족들이 함부로 원당(願堂)을 짓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인데, 신라 멸망의 원인을 무분별한 원당건립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곧 무분별하게 원당을 건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책으로 도선 국사의 '사탑비보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경 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⑦

10년의 공부가 헛된 것이라니, 무엇이 문제인가?

만봉 선사의 말씀은 계속된다.

어머니로부터 출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안일하게 생활한 것에 크게 야단을 맞은 아들은 '어떻게 해야 중노릇 잘하는 것인가?' 하고 곰곰히 생각하던 중 영혼을 천도하고 각종 불공을 집전하는 의식승(儀式僧)이 고승의 모습으로 부각됐다.

아들은 아버지의 천도(薦度)를 염두에 두면서 그날부터 10년 동안 각종 범패(梵唄)와 영산작법(靈山作法)등의 의식을 익혔다. 어느 날 큰 재(齋)를 열게 되자 아들은 어머니를 모셨다. 큰 고깔에 가사 장삼을 입고 영산작법을 멋있게 집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달려들어 지팡이로 아들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놈, 아버지를 천도하고 제도해 달랬더니 무당노릇 하려고 절에 들어 왔느냐!"

어머니의 뜻을 몰라 크게 당황한 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참된 중노릇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시 며칠을 생각하다가 설법을 잘하는 강사(講師)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일류 강사스님을 찾아갔다. 〈초발심자경문〉부터 〈화엄경〉까지를 모두 배워 마치고 이름 있는 강사가 된 뒤, 아들은 다시 어머니를 모셨다.

제자들을 데리고 절 입구까지 나가서 극진히 환영해 모셨지만, 막상 불경을 가르치는 아들을 본 어머니는 마찬가지로 크게 나무랐다.

"글 배우고 글 가르치려면 속세에서 할 일이지 무엇하러 절에까지 와서 야단이냐!"

'십년의 범패 공부, 십년의 불경공부가 모두 헛된 공부라니? 무엇이 문제인가?'

또 다시 고민하던 아들은 〈전등록〉과 〈선문염송〉을 펼쳐보았다. '아하! 중노릇 잘하는 법이 바로 여기 있구나.'

아들은 '자성(自性) 자리 찾는 것이 참된 공부'라는 것을 깨닫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1년이 지난 뒤 어머니는 소식이 끊어진 아들을 찾아 나섰다. 제자들로부터 '혼자 산 속으로 가더라'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날부터 어디엔가 아들이 있을 그 산 속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굴 안을 들여다보니 산발한 머리에 누더기를 걸친 채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 얼굴에는 땟물이 흐르고 피골이 상접하여 볼품은 없었지만 틀림없는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통곡했다. 선정(禪定)에 잠겨있던 아들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에 도를 깨쳤고, 어머니는 선정에 잠겨 있던 아들이 눈을 뜨는 순간 그 눈에서 뿜어 나오는 형형한 안광(眼光)을 보고 도를 깨쳤다. 모자가 함께 도를 깨친 것이다.

이야기를 끝낸 만봉선사는 스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발심(發心)이 제대로 되었으니 변치 말고 공부 잘해 줄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셨다. 짤막한 도담(道談)한 편과 한마디의 격려였지만, 스님은 만봉선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났다.

경봉 스님은 훗날 회고하시기를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나도 참되이 중노릇을 잘하여 기필코 도를 깨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게 자리를 잡았고, 온 몸에는 새 기운이 가득 채워지는 듯했다고 하셨다.

만봉 선사로부터 이러한 깊은 감동을 받았던 스님이셨기에 80의 고령에도 스님은 밤을 새우며 정진하시며 참선수행하는 스님들을 격려하셨다.

선방(禪房) 수좌들이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에 들어가거나 세 시간만 자는 가행정진(加行精進)이 시작되면 스님은 수좌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밤새 헛기침을 하시거나 한밤중에 과자 봉지를 들고 선방으로 찾아가시곤 했다. 조는 사람의 등을 두드려 주고, 과자를 나누어 주시면서 간단한 선문답과 격려의 말씀을 들려 주시며 절차탁마(切磋琢磨)해 주셨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일 묵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6 – 마음의 두 얼굴: 불선과 선

선과 불선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 수이고 어떤 것이 나쁜 수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둑을 잘 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반드시 바둑의 정석을 배워야 한다. 정석은 서로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수순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익힌 다음 바둑을 둔다면 나쁜 수를 줄이고 좋은 수를 많이 두게 되어 결국 바둑에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바둑을 둔다면 나쁜 수를 좋은 수로 알거나, 좋은 수를 나쁜 수로 알아서 바둑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에 유익한 마음과 행복한 삶에 해로운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인 삶의 정석을 알아야 한다. 현명한 결정을 통해 행복한 삶에 유익한 마음을 선(kusala, 善)한 마음이라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통하여 행복한 삶에 해로운 마음을 불선(akusala, 不善)한 마음이라 한다.

결국 삶의 정석이란 선과 불선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한다. 이를 세속의 정견(正見)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착하지 않은 마음은 세상 왜곡시키고
선한 마음은 있는 그대로 세상 보게 해

불선한 마음은 대상을 잘못 아는 어리석음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다.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탐욕이나 대상을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난다. 탐욕에 바탕을 둔 마음은 대상을 집착하는 탐욕, 그릇된 이치를 고집하는 사견, 자신이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집착하는 자만의 형태로 나타난다.

성냄에 바탕을 둔 마음은 대상을 싫어하는 성냄, 남의 성공을 싫어하는 질투, 자신의 성공을 남과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 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거나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여 번민하는 후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불선한 마음은 행복의 내용을 왜곡시켜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며 우리의 삶을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하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선한 마음은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찾게 해준다. 선한 마음은 알아차림(sati)을 바탕으로 한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선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에는 알아차림이 있다. 왜냐하면 왜곡이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선한 마음인데 알아차림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상에 대한 탐욕이나 성냄이 없이 대상 자체와 만나게 한다. 이런 상태에서 지혜는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즉 본질적으로 행복인 것은 행복으로, 괴로움인 것은 괴로움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지혜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세상의 진실을 통찰하게 한다. 이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는데 유익한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 한다.

선한 마음은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대상의 본성을 꿰뚫어 아는 지혜,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 타인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덜어주고자 하는 연민,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지혜와 자비는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다. 이상의 마음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선한 마음이 된다.

이런 선한 마음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보시, 마음을 잘 단속해 악행 하지 않도록 하는 계율수행, 집중력을 기르는 선정수행,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지혜수행을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불선한 마음은 세상을 왜곡해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고, 선한 마음은 세상의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진정한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선인지 불선인지를 명확히 이해한 후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계발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바른 수행이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일묵 스님(제따와나 방배선원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3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까지(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당사자나 가족들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횡사 악사요...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불교계 사회적기업 '연우네 김치찌개' 개업…조미료 '無', 양질의 '식사', 저렴한 '가격'

3300원 김치찌개가 만들 행복 메들리



9900원으로 3명이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3300원 김치찌개 전문점 '연우네 김치찌개'에서는 할 수 있다. 한 끼 식사에 7000원을 호가하는 요즘 3300원짜리 식사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3300원짜리 김치찌개에는 조미료가 0%, 먹고 나도 속이 편하다. 밥은 국내산 최고급 쌀로 바로 해서 찰기와 윤기가 흐른다. 유일한 반찬인 콩나물은 질기지 않으면서 오독오독 씹힌다. 김치찌개 재료는 사찰에서 계약 재배한 배추로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협력업체에서 만든 조미료 안 들어간 김치, 자연방사로 사육된 냉장상태의 돼지고기, 콩나물 등 부재료는 국내 농산물을 사용했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1호 연우와함께(대표이사 이상근)는 5월 19일 경기도 의정부 금오동에 직영센터 '연우네 김치찌개 · 로컬푸드 가게 및 학교급식지원 복합매장 1호점'을 개업했다. 이상언 기자

■3300원으로 운영 가능한가?

식재료 급등으로 식당가에서 저가의 부실한 수입 농 · 축산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연우네 김치찌개'는 철저하게 양질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신 산지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것.

'연우네 김치찌개'는 180평 규모로 144석의 자리가 여유 있게 배치됐다. 찌개는 3300원, 음료 1000원, 맥주 2500원, 소주 · 막걸리 2000원, 공기밥 700원이다. 쌀 · 김치 · 돈육 모두 국내산이다. 메뉴와 반찬도 김치찌개와 콩나물 1개로 단순화해 음식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침과 저녁 식사 500인분 판매를 원칙으로 손님이 더 많이 온다고 해서 더 받지 않는다. 손님을 더 받으려는 순간 욕심을 낳고, 음식을 저장하기 시작하면 '고용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질 좋고 맛있는 식사 제공, 조미료 無'라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가게는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이웃 가게들의 수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저녁 8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술도 오전에는 4인당 1병, 저녁에는 1인당 1병만 판매한다.

식당 운영에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일부를 무료의료봉사 및 무료급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과 순환을 위한 사회공공서비스'를 실시한다.





점포장은 사업으로 실패한 개인 신용 회복자, 취약계층에게 맡겨 그들의 사업 실패 경험을 활용해 재도약의 기회를 준다. 직원도 한 매장에 최소 4~5명(전체 직원의 30% 이상)은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해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그밖에 점포는 월 1회 이상 양로원, 고아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및 기부행사를 통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토록 했다. 복합매장과 학교급식 지원에서 얻은 수익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2/3,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 추진 중인 조선왕실의궤반환 등 해외에 약탈당한 우리문화재 환수운동 지원사업 기금으로 쓰인다.

연우와함께는 수익에서 원재료 50%, 인건비 등 30%, 점포장 10%, 본사 10% 분배한다. 본사는 10%의 수익을 사업 발전을 위한 홍보 · 마케팅 및 식재료 생산지 관리에 재투자한다.

연우네김치찌개 1호점은 기업, 사찰, 개인의 후원으로 만들어 상생하는 공동체인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형태를 선보였다.

1호점 내부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숍이 함께 운영된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전통 명품 장류, 선물세트, 사찰생산 유기농 제품 등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꽤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료 및 시설비는 서울 견지동 조계종 중앙신도회 건물인 전법회관 시공을 맡았던 성일건설(사장 황윤성)이 후원했다. 그밖에 사찰은 토지를 공급해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각종 시설 물품은 기업과 개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연우와함께는 2011년까지 직영매장 10곳, 2013년까지 서민형 가게 100곳을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이상근 대표이사는 "직영매장으로 점포의 개설은 노량진 · 학원가 · 신림동 고시촌 등 젊은 층 밀집지역 중 식비의 부담이 큰 곳, 화성 새터민 등 취약계층 지역, 안산 · 가리봉 · 김포 · 시흥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점포 개장 운영할 계획"이라며 "2015년까지 불교계 사회적 기업 100개 창출, 1만개의 일자리 창출, 10조의 수익을 내 사회로 이익을 회향하겠다"고 밝혔다. (031)851-7302

tip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성도 함께 추구해 '착한 기업'으로 불린다.

〈인터뷰〉 이진선 의정부점 대표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고, 밥 맛있게 하고, 콩나물 맛있게 무치겠습니다."

이진선 연우네 김치찌개 의정부점 대표는 의정부 지역 시민운동가다. 이 대표에게 연우네김치찌개 운영은 곧 지역 시민운동이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수십억 손해를 본 그는 공생만이 살길이라고 확신했다. 지역 시민운동가로서 김치찌개 집을 한 이유도 생존을 위한 수익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나눔 공동체라는 취지가 그를 이끌었다.

"의정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늘 생각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착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 나눔 실천하겠습니다."

그는 의정부 인근 남양주 봉선사와 조계종립 학교인 광동고 · 영석고, 지역시민 간 생산, 운영, 소비, 사회환원이라는 조직 연계를 통해 함께 바른 소비문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시도하게 된다.

"책임감이 앞섭니다. 김치찌개와 함께 로컬푸드 숍을 함께 운영하는 제1호 연우네 김치찌개 · 연우네 장바구니가 사회적기업의 성공 모델이 돼야 2013년 100호점 개장도 이뤄질 것이고, 일자리 창출 · 착한가격 · 무료급식운동 · 문화재 반환운동 이라는 파급 효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이진선 대표는 매장을 단체손님이 여유 있는 공간에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양주 대장금 파크로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친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연우와함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기업을 모토로 하고 있다. 사회 빈틈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 낯익은 문제에서 참신한 해법을 제시한다. 자원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익은 사회에 환원한다."

불교계 사회적기업 연우와함께(대표이사 이상근)는 일자리 창출과 이익을 소외된 이웃과 사회로 환원해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연우와함께는 친환경제품공급 및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공정무역, 불교공예, 문화 콘텐츠, 농촌마을 개발, 문화인 생태 마을조성 사업, 해외약탈문화재 환수운동지원 등 다양한 전략적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연우와함께는 지역불교 사회적 기업 종합 지원으로 일사일사(一寺一社)를 통해 각 사찰이 가지고 있는 인적 · 물적 자원의 사회적기업을 추진한다. 불교계 종단 교구별 네트워크 구축,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불교경제사회지원 센터도 추진 중이다.

신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도 주요 과제다. 연우네김치찌개와 같은 △개인회생자 ·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친서민적 먹거리 △종단별 복지재단 사회적기업화를 통한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창출

무료 의료·급식 봉사

一寺一社 네트워크 구축

운영 노하우 공유 △불교계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로컬 푸드 등 착한 생산 · 유통 · 소비를 위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근 연우와함께 대표이사는 "불교계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좋은 텃밭이다. 텃밭에서 기른 과일과 채소를 이웃과 나눠먹듯 불교계가 가지고 있는 인적 · 물적 자원을 국가 · 시장 · 시민경제와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연우와함께는 2009년 10월 '착한나눔 · 착한나눔'의 바른 소비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0년 동국대 산학업무 · 조계종 중앙신도회 · 의정부 광동고 학교급식사업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노동부 사회적기업 제2010-10호로 인증 받은 후 올 3월부터 의정부 광동중 · 고등학교 식자재 납품을 체결했다. 친환경 먹을거리 온라인 쇼핑몰 연우와함께. com, 1661-1233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김윤수 전 부장판사가 펴낸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 역주서!

청량의 소에 의한
대방광불화엄경(I~VII)



알기 쉬운 번역과 상세한 역주로 독자들을 화엄의 정수로 이끌어주는 책!

80권본 화엄경을 한글세대 독자가 읽기 쉽게 번역함은 물론, 화엄경 주석의 백미로 꼽히는 청량징관의 「소초」를 번역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우리말 번역과 실차난다 한역본을 함께 수록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 이치가 깊고 넓음은 물론 분량마저 방대하여 접근이 어려웠던 화엄경에 대한 상세하고 치밀한 최초의 해설서이다.

김윤수 역주 | 전7권 | 총 6,000쪽 | 정가 300,000원 | 한산암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붓다북 www.unjusa.com



타국서 귀양사는 우리 문화재 빨리 돌아오길

한국문화재 탐방단, 에도성·도쿄국립박물관서 우리문화재 발자취 추적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와 '한국문화재 일본 탐방단'은 5월 12~14일 일본 내 우리 문화재 현황을 둘러보는 탐방을 진행했다. 선조의 숨결이 스며있는 문화재들은 약탈된 채 일본 박물관에 버젓이 전시돼 있었다. 탐방단은 이런 광경을 보며 의궤환수를 시작으로 일본 내 우리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탐방단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에도성이었다. 그곳에는 탐방단이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조선왕실의궤'가 보관돼 있다.

에도성은 일본 최고 정무기관으로 에도 막부 시절 쇼군의 거처로 사용되던 곳이다. 메이지 유신 때 황실의 교토 어소가 에도성으로 이전된 후 줄곧 일왕이 거주하고 있는 '황궁'이다. 탐방단은 일본 황실에 의궤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에서 일본이 의궤를 약탈물·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탐방단은 에도성 입장 후 의궤가 보관된 도서관 건물 앞에 도착했다. 도서관에 들어가 직접 의궤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도서관은 평상시에도 자유롭게 개방되지 않는 건물이었다.

비가 내리는 속에서 탐방단은 할 수 없이 도서관 앞에 모여 우산을 든 채 '한국문화재 일본 탐방단'이라는 명칭이 게시된 현수막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그러자 그 순간 에도성 경비대가 몰려오면서 탐방단을 제지했다.

탐방단이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경비대는 현수막에 적힌 글귀의 의미를 묻고, 기자단의 카메라를 검열하겠다며 촬영 장면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잠시 후에는 일본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탐방단의 활동을 제지했다. 일본 경찰은 탐방단에게 모든 확인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마치 불순한 시위대처럼 취급하는 모습에 탐방단은 또 다른 설움을 느껴야 했다.

한참 동안의 설명과 실랑이 끝에 탐방단은 에도성을 나올 수 있었다. 에도성을 빠져나오는 탐방단의 마음 속에는 하루 빨리 조선왕실의궤를 반환받고, 나머지 문화재들도 되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도쿄 국립박물관 박제된 우리 문화재

탐방 이틀째인 13일. 탐방단은 도쿄국립박물관을 찾았다. 도쿄 우에노 공원 안에 위치한 이곳은 일본 최초의 박물관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전날 일본 경찰과 에도성 경비대로부터 설움을 당한 탐방단은 도쿄국립박물관을 찾는 심정이 비장했다. 도쿄국립박물관에는 '오쿠라 컬렉션'으로 알려진 '오쿠라 다케노스케'의 수집품들이 전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오쿠라 다케노스케'는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도굴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간 일본 기업가로,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는 111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보관돼 있다.

'오쿠라 컬렉션'은 일본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유물이 망라된 '오쿠라 컬렉션'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발굴된 적이 없는 5~6세기 신라 금동투각 관모와 청동기 시대의 '견갑형 동기' 등 국보급 유물도 포함돼 있다.

도쿄국립박물관에는 '오쿠라 컬렉션' 이외에도 삼국시대와 고려의 유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약탈해 간 금산사 향로도 볼 수 있었는데, 향로 하단부에는 '금산사 미륵전'이라는 글귀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다. 또한 시주자, 포함된 재료의 내용과 비율 등이 설명돼 있다. 당초 일본은 향로의 상하도 구분하지 못해 거꾸로 조립해 전시하다가 최근 이를 바로 잡았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사무처장 혜문 스님은 "자신들의 문화재라면 상하도 구분하지 못해 거꾸로 전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결국 약탈한 문화재라는 증거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삼국시대(6~7세기) 유물 '여래양협시입상'도 전시돼 있었다. '여래양협시입상'은 삼국시대의 주물 기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 대표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은 "주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적 관심 필요한 문화유산 산재

탐방단은 서둘러 일본 국회로 향했다. 이날은 일본 참의원 본회의가 열리는 날로 중의원을 통과한 조선왕실의궤환수 비준안이 상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탐방단은 끝내 일본 국회에 들어서지 못했다. 의궤환수가 중의원 비준을 통과했지만 일본 참의원에서는 상임위원회조차 회부되지 못했던 것이다.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낮았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 헌법 제61조는 조약과 예산의 경우 중의원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궤환수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일본 국회 절차상 참의원 의결을 얻을 경우 의궤환수 절차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탐방단은 다시 영친왕 관저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친왕 관저는 일본 국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영친왕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로 고종의 일곱 번째 아들이다. 1907년 12월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 의해 일본에 인질로 잡혀갔다. 명목은 유학이었다. 영친왕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귀국하길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63년까지 일본에 머물렀다.

탐방단이 영친왕 관저를 찾았을 때는 출입문이 폐쇄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영친왕 관저는 아카사카에 위치한 그랜드 프린스호텔 내에 있었는데, 호텔이 최근 영업을 중단하면서 함께 문이 폐쇄됐다.

탐방단에 동참한 황사손(선왕이 죽은 뒤 인정된 황손) 이원 씨는 "의궤환수처럼 이 문제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친왕의 아픔과 관저는 되살려야 할 우리시대 근대문화유산이다"라고 말했다.

탐방단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조선왕실의궤환수 기념 연회가 열리는 오쿠라 호텔이었다. 오쿠라 호텔 맞은편에는 미술관인 오쿠라 슈코칸이 자리하고 있다. 미술관 뒤뜰에는 일본 실업가 오쿠라 가하치로가 일제 강점기 때 경기도 이천에서 가져간 이천오층석탑과 평양율리사지석탑이 있다.

평양 율리사지 석탑은 고려 시대에 제작돼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율리사에 있던 것이다. 이천오층석탑은 고려시대 이천시 관고동에 세워진 것을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으로 옮긴 뒤 오쿠라가 1918년 일본으로 반출했다.

탐방에 함께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는 이날 오쿠라 슈코칸에 서한을 전달하고 석탑의 반환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오쿠라 슈코칸 측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기범 기자



혜문 스님(사진 좌)과 정념 스님(사진 우)이 도쿄국립박물관의 우리 문화재를 살펴보고 있다.



탐방단이 의궤가 보관된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자 경비대와 일본 경찰이 제지하고 나섰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평양율리사지석탑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辛卯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 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천우종



의궤 환수에 보내준 국민 성원에 감사

[인터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최명희 강릉시장, 이석래 평창군수


정념 스님


최명희 시장


이석래 군수

"의궤환수는 온 국민의 쾌거입니다. 일본에 흩어져 있는 1000여 점 이상의 우리 문화재들이 모두 환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중요합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대표인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의 표정은 무척 밝았다. 월정사는 조선시대 '오대산 사고'의 수호사찰로 월정사 주지는 오대산 사고의 수호총섭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1922년 오대산 사고에 있던 실록을 일본이 강압적으로 약탈했고, 89년 만에 의궤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궤를 400년 간 수호해왔던 월정사로서도 기쁜 일이지만 환수를 위해 일본에서 노력해 준 여러 인사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와 많은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념 스님은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월정사뿐만 아니라 150만 강원도민, 나아가 전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유산이 89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고, 오래전부터 조선왕실의궤를 지키기 위한 수호사찰이 강원도에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면 지역문화 발전과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명희 강릉시장과 이석래 평창군수는 이를 '문화분권'으로 설명하고 조선왕실의궤의 제자리 찾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명희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궤가 돌아옵니다. 강원도민들은 의궤가 2006년 환수된 실록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 하고 규장각에 보관되지 않을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또 "의궤가 강원도로 온다면 강릉뿐만 아니라 전 강원도민의 힘을 모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문화분권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최명희 시장은 문화재청이 의궤를 관리하면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많은 문화재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강원도로 돌아오면 강원도민의 사랑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월정사가 위치하고 있는 평창군의 이석래 군수도 문화분권을 강조하면서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래 군수는 "중앙집권적 문화정책을 탈피한 문화분권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평창은 지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석래 군수는 또 "의궤가 돌아온다면 적절한 보관을 위한 박물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주민 공감대도 이미 충분히 형성돼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끝이 아닌 새로운 문화주권의 시작"

조선의궤환수위, 환국 기념 연회… 지속적인 반환 협력다짐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해 협력해 온 한일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문화재 반환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월정사, 봉선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으로 구성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일본 동경의 오쿠라호텔에서 환국기념연회를 5월 13일 마련했다.

'조선의 보물, 왕실의궤' 환국 기념연회에는 의궤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카사이 아키라 의원 등 일본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국 관계자들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 환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환수위는 의궤환수를 위해 협력해 준 일본측 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카사이 아키라 의원은 의궤 환수를 위해 한국을 2차례 이상 방문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베 토모코 의원과 우오즈미 유이치로 의원도 조선왕실의궤환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에 적극 협조했다.

이 밖에도 조선왕실의궤의 의미와 환수의 중요성을 보도해 전 국민적 관심을 끌어낸 KBS, MBC, 중앙일보 등 언론사 특파원과 와타나베 미쓰구 일조협회 회장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공동 대표 정념 스님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다. 오대산 월정사는 수호총섭의 역할을 해왔다. 월정사 주지로서 기쁘다"라고 밝혔다. 월정사는 조선왕실의궤가 환국되면 국민적 축제의 환국행사와 고유제를 지낼 예정이다.

또 다른 공동대표 김원웅 전 국회의원은 "약탈 문화재는 원소유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국가적 통례다. 일본은 동북아 평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속적인 문화재 반환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시케 에이코 의원은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왕실의궤환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동부서주했던 혜문 스님은 연회가 끝날 때까지 긴장한 모습이었다. 의궤환수는 이미 결정됐지만 함께 노력해준 사람들을 위한 회향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스님의 역할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사무처장 혜문 스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더 많은 문화재들의 환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기념연회에서 의궤환수를 위해 노력한 한 · 일 관계자들이 지속적인 문화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로… 평양으로…'

조선왕실의궤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2006년 9월 14일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동을 알렸다. 발족식 후 환수위는 일본 대사관에 '조선왕실의궤 반환요청서'를 전달했다. 2007년 8월에는 일본 공산당에서 오가타 의원과 카사이 의원이 한국을 찾아 오대산 사고를 방문했다. 2008년 8월경 환수위는 평양을 방문해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촉구하는 남북 공동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본에 제출했다. 의궤환수에 북한과 협력하게 된 것이다. 2010년에는 18대 국회에서 정식으로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런 노력 끝에 2010년 8월 일본 간나오토총리는 강제병합 100년 담화 발표에서 조선왕실의궤반환을 발표한다. 마침내 올해 4월 28일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도서 반환에 대한 비준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기범 기자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든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뵙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강서의 선맥이 몽땅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민사

한낮의 햇살로 도도하게 흐르는 감강이 고기비늘처럼 반짝인다. 멀리 보이는 강가의 정자 주변이 홍인 대사가 제자 혜능을 떠나보냈던 나루터라고 한다. 강소성의 성도인 남창의 지명이 홍주(洪州)였던 당나라 때에는 감강이 서강(西江)으로 불렸던 것 같다. 〈마조록〉에도 서강으로 나오고 있다. 순례 일행이 지금 가고자 하는 우민사(佑民寺)는 남창시내 8.1공원 부근에 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계사와 같은 위상의 절이라고 한다. 절의 규모도 원래는 대단해서 산문에서 일주문까지 말을 타고 가는 기마관산문(騎馬關山門)이라는 별칭이 붙었다는 것이다.

우민사가 처음 창건된 얘기는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남조 양나라 예장왕의 왕자 갈심의 집 언저리 우물에 사는 교룡(蛟龍)들이 서로 싸우므로 대불을 세웠는데 이후 진정이 된바, 갈심이 자신의 저택을 547년에 대불사로 바꾸었다는 것이 창건설화다. 교룡들은 갈심과 경쟁했던 정적들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불심으로 위기를 돌파했던 것 같다. 당나라 때는 황실의 국찰(國刹)로서 개원사로 바뀌고, 송대에는 능인사, 명대에는 영녕사, 청대에는 우청사, 민국시대에 우민사로 개칭됐다고 한다.

우민사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는 아마도 마조 대사가 주석하면서 강호의 선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때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민사를 마조 대사의 행화도량이라 하고, 마조선 즉 홍주종(洪州宗)을 개창한 도량이라고 부를 터이다.

그 옛날 홍주의 개원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조 대사와 방거사의 선문답이고, 또 하나는 마조 대사의 손상좌인 황벽 선사와 배휴가 회랑에 붙은 고승의 초상화를 놓고 문답하는 선화이다. 황벽 선사와 배휴의 선화는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이번에는 마조 대사와 방거사의 선화를 다루고자 한다. 선화로 들어가기 전에 방거사가 어떤 인물인지 〈방거사어록〉의 서문을 참고해 보는 것이 좋을 성싶다.

‘거사의 이름은 온(蘊), 자는 도현(道玄), 출신은 양양(호북성 양양) 사람이다. 아버지는 형양 태수로 있었다. 거사는 형양 남쪽에서 한때 살다가, 그 집 서쪽에 암자를 지어서 불법을 닦은 지 수 년 만에 가족 모두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현재의 오공암(悟空庵)이 그곳이다. 그 뒤에 암자 아래쪽에 있던 자기 집을 기증하여 절을 만들었다. 현재의 능인사(能仁寺)가 그것이다. 정원 년간(785~805)에 수많은 가보를 배에 싣고 동정의 상강으로 저어 나가서 강물 한가운데 집어던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마치 물 위에 떠내려가는 한낱 나뭇잎과도 같은 생애를 지냈다. 거사에게는 아내와 일남 일녀가 있었고, 대나무 세공품을 만들어 팔아서 조석 끼니를 때워나갔다.’

방거사가 선문(禪門)에 든 계기는 단하(丹霞)와 같이 장안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한 행각승을 만나 그에게 “관직에 오르는 것이 불위(佛位)에 오르는 것만 못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홀로 불법을 공부하다가 석두 선사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전해진다.

“일체 존재와 무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에 석두 선사는 그의 입을 막았는데, 그 순간 그는 현묘한 선리를 터득했다고 한다. 이후 거사는 남악 형산을 떠나 서강이 흐르는 홍주의 마조 대사를 찾아가 또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바, 이때의 문답이 마조서강(馬祖西江)이란 공안이 된다.

“일체 존재와 무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 버리면 그때 가르쳐 주지.”


마조 대사가 주석하면서 승속을 불문하고 홍주종의 선풍을 날렸던 우민사.

이때 방거사는 크게 깨닫고 오도송을 지었다.

시방이 다 한 자리에 모여
각기 무위를 닦고 있구나.
이 자리 바로 부처 뽑는 곳
마음 비우고 급제해 돌아가네.
十方同一會 各各學無爲
此是選佛場 心空及第歸

이와 같은 방거사를 〈대광명장(大光明藏)〉 중권의 방거사장(龐居士章)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일체 존재와 무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라”

‘석두를 본 순간, 거사의 의기는 이미 그와 통하고 있었다. 거사는 이 의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집약하여 보란 듯이 마조에게 던졌다. 그러나 마조의 한마디 기침소리에, 얼음이 녹듯 기왓장이 부수어지듯 그의 의심도 깨끗이 풀어졌다.’

방거사는 마조 대사가 자신의 입적도량인 보봉사로 가기 전에 2년 동안 머물렀던 것 같다. 그 무렵에 방거사가 마조 대사에게 물었다.

“역력한 본래인(本來人)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눈을 위로 올려 떠주십시오.”

그러나 마조 대사는 눈동자를 밑으로 내리깔았다. 거사가 말했다.

“내내 같은 이 무현금(無玄琴)을 스님 또한 능숙하게 잘 타시는군요.”

이번에는 마조 대사가 눈길을 위로 올렸다. 여기에서 거사가 절을 올렸다. 마조 대사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뒤따라온 거사가 마조의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바보짓을 한 것 같습니다.”

거사는 마조 대사에게 다시 물었다.

“물은 근육도 뼈도 없지만 만석(萬石)을 싣는 배라도 거뜬히 떠받칩니다. 이것은 어떠한 도리입니까.”

이에 마조 대사가 말했다.

“여기에 물도 배도 없는데 근육이니 뼈니 하는 것은 또 웬 말인가.”

질문을 던진 거사가 발판 삼아 서 있는 그 자리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을 선문에서는 소탕문(掃蕩門)이라고 하는데, 이 소탕문 덕분에 거사는 깨달음의 인연을 더 깊게 짓지 않았을까 싶다. 마조 대사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궁지에 몰렸으나 공부인으로서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순례 일행은 우민사 산문 앞에서 하차한다. 산문 안쪽에 ‘마조도량 우민사’라는 편액이 보인다. 절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하여 답답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마조 대사의 그림자나마 남아 있어 다행이란 느낌이 든다. 천왕전을 지나니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동불전(銅佛殿)이 보인다. 18톤 크기의 동불이 봉안돼 있어 전각 이름이 동불전이 된 모양이다. 동불전 마당에는 우리나라 조계종 종조인 도의 국사 구법기념비가 서 있다.

그러고 보니 우민사는 도의 국사가 마조 대사의 고족제자인 서당 지장 선사에게 법을 받은 절로 순례 일행에게도 뜻 깊은 곳이다. 기념비 첫 문장에도 도의 국사가 구법 입당하여 제방을 참방하다가 이곳에서 서당 지장 선사를 만나 여래심인을 인가받아 육조의 종지를 한국에 최초로 전했다고 음각돼 있다. 수불 스님이 마조선이 국내로 전하게 된 인연을 말씀하신다.

서당 지장에게 법을 인가받은 도의 국사 육조의 종지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하다

“마조 스님이 이곳에서 한 16~17년 정도 주석하고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많은 강호의 제현들이 마조 스님을 찾아뵙고 선문답을 하고 한판 내동댕이침을 당하는 그런 장소가 이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당 지장 스님이 여기서 주지로 사실 때 우리나라 도의 국사가 찾아왔을 겁니다. 서당 지장 스님에게 심인을 인가받은 도의 국사는 귀국하여 설악산 진전사에 은둔했고, 국사의 심인이 제자 염거 화상에게, 다시 보조 체징 선사에게 전해졌으며 체징 선사는 헌안왕 3년(859)에 전남 장흥 보림사를 창건하고 가지산문을 열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곳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발원지와 같은 곳입니다.”

〈조당집〉 제 17권 설악 진전사 원적선사편에 도의 국사 행장이 짧게 소개되고 있는바, 요약하자면 이렇다.

‘서당의 법을 이었고 명주에서 살았다. 선사의 휘는 도의요, 속성은 왕 씨이며 북한군에서 살았다.(중략) 강서 홍주 개원사로 가서 서당 지장에게 머리 숙여 스승으로 모시고, 의심을 풀고 막힌 체증을 푸니, 서당 대사는 마치 돌 틈에서 옥을 고른 듯하고 조개 껍질에서 진주를 주워낸 듯이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

그리고는 이름을 도의로 고쳐주었다.

이어, 두타의 길을 떠나 백장산 회해화상께로 가서 마치 서당 화상처럼 하니 백장이 이렇게 말했다.

“강서의 선맥이 몽땅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

백장도 사형인 서당 못지않게 도의 스님을 찬탄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바, 도의 국사가 육조의 종지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 종헌종법에 도의 국사를 종조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민사 경내의 나뭇가지에는 수많은 붉은 리본들이 걸려 있는데, 아마도 신도들의 축원문인 것 같다. 티베트인들이 긴 장대에 거는 오색 깃발인 룽다와 같은 듯하다. 수불 스님이 붉은 리본들이 매달린 나무 밑으로 가 마지막 회향법문을 준비하신다. 우민사를 오기 전 감강 가에 있는 등왕각에 들렀을 때 나와 아내가 왕과 왕비의 복장을 빌려 입고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스님이 그 점을 지적하며 말머리를 푸신다.

“소설가 정찬주 씨 내외가 등왕각에서 왕과 왕비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누가 저에게도 스님도 한 번 찍어보라고 권하기에 ‘저는 왕 노릇하는 것보다 머리 깎고 수행자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하고 말했지요. 더구나 괜히 왕 사진 찍은 인연으로 다음 생에 왕이 되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왕이 좋겠지요. 허나 저는 머리 깎은 수행자가 좋아요. 그러니 초지일관해야지요. 우민사라는 절 이름처럼 백성 가까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량으로 불법을 마음껏 전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웃나라 중국으로 와 먼 오지까지 순례를 다닌 행운을 누렸습니다. 과거의 선승들은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었던 그런 곳까지 우리는 단숨에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좋은 세월 속에 살고 있는 거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겁니다. 인연 따라 또 다시 순례 와서 자기 점검하고 늘 공부하는 마음자세로 수행자다운 풍모를 지닐 수 있게끔 정진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민사 산문을 나서는데,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 속에서 한 중국여성이 수불 스님 앞으로 와 공양물을 올리더니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린다. 스님이 여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원을 한다. 아마도 여인은 불단에 올릴 공양물을 스님에게 무심코 보시한 것이리라. 문득 부처님께 정성으로 켠 등불은 태풍도 끄지 못한다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가난한 여인이 떠오른다. 지고지순한 정성이야말로 성불에 이르는 첫 걸음이 아닐까. 1,2차 순례 길에서 일행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준, 가슴에 맑고 향기로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게 한 여인의 불심이었다고 믿어진다.〈끝〉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법정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불일암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듣는 정찬주 작가

재가제자 정찬주 작가가
법정스님의 수행처를 찾아 깨달은 명상의 글


법정스님의 빠삐용 의자

스님의 수행처를 다 순례하는 동안 나는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스님은 꽃 피듯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사유하신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홀가분해지고 자기다워지는 삶이 무소유의 삶인 것이다. “나도 없는데 하물며 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귀 속의 귀’가 열려야만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스님, 뵙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찬주



그대 만의 꽃을 피워라
법정스님의 자기다운 영혼은 무엇인가?
정찬주의 마음기행

문의 (02)3144-3700 | www.Yolimwon.com 열림원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64〉

눈앞의 일부터 해라

학승이 물었다.
"바로 눈앞에 직면한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바로 직면한 사나이야."

問 覿面事如何 / 師云 你是覿面漢

눈앞에 직면한 일은 바로 닥친 일이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눈앞의 일'이다. 사람이 사는데 무엇이 바로 직면한 일일까? 조주 스님은 그것은 '바로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선(禪)은 비유로 세상사를 설명한다. 직면사를 멀리 찾을 필요 없다. 눈앞에 사람이 있으면 오로지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에게 어떤 조언과 행동이 적합한지 생각할 뿐이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직면사이다.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직면사이다.

인생의 의미를 멀리 보지 마라.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직면사이다. 평소 어떻게 대하고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떤 행동을 보여야 자식이 장차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직면사를 잃고 그때그때 적절한 처신을 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후회한들 무엇 할 것인가. 현재 직면한 일이 그대의 인생이고 도(道)이다. 그 직면사를 똑바로 보고 소홀히 하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가 지향하여 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밭갈이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야."

問 如何是佛向上人 / 師云 只者牽耕牛底是

향상인(向上人)이라는 말은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향상인(佛向上人)이라 하면 부처가 지향해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을 뜻한다.

밭을 가는 농부는 묵묵히 밭을 갈 뿐이다. 장차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줄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다만 묵묵히 농부의 길을 간다. 가끔 그 일이 즐거워 노래도 하고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추기도 하지만 그 모두 자연의 오묘함에 감동된 사람만이 자기를 버리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부처가 지향하여 가는 길도 농부의 길과 같다. 사람의 마음 밭을 갈고 가꾸는 것은 장차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는 중생의 마음 밭을 묵묵히 간다. 생각해 보라. 마음을 빼놓고 어찌 지구의 평화를 논하겠는가. 지구를 구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한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요원하다. 그래서 조주 선사는 부처님을 밭가는 농부에 비유한 것이다.

"이녀, 이녀, 어~히~ 워워!"

학승이 물었다.
"다급한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그처럼 물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말하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말하지. 최고로 빨리 신발을 신고 물위에서 말을 달리고 서울 장안에 도착해도 신발 끝조차 젖지 않는 거야."

問 如何是急 / 師云 老僧與麼道 你作麼生 / 云不會 / 師云 向你道 急急著靴水上立 走馬到長安靴頭猶未濕

앞에서 나온 '직면사'에 대한 것은 눈앞에 닥친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여기서 말하는 '급하다'는 것은 '가장 빨리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가 강한 문답이다.

조주 스님이 "최고로 빨리 신발을 신고 물위로 말을 달려 서울 장안에 도착해도 신발 끝조차 젖지 않는다"라고 한 말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도 얼마나 빠른지 물방울이 신발을 젖게 하는 시간보다도 더 빠르게 장안에 도착해 신발 끝도 젖지 않을 정도로 신속한 것을 말한다. 우리 속담에 '왼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오른 발을 내딛고 오른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왼 발을 내딛어 달릴 정도로 바쁘다'는 말과 같다. 이 정도 되어야 그것을 가히 급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정도의 급한 일이 무엇일까?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너 자신을 아는 거야." 무불선원 선원장

선어록 해제 44 한국선과 선어록 15 선가귀감(禪家龜鑑)

불제자가 지켜야할 생활지침서

〈선가귀감〉은 〈선가구감〉이라고도 발음한다. 내용은 그 제목처럼 선가(禪家) 나아가서 불가(佛家) 전체의 승려들 및 초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지켜야 할 생활지침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청허휴정이 40대 중반에 〈선가귀감〉을 저술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의 서문에 나타나 있다. 곧 불법을 공부하는 자들이 근본을 망각하고 세간법에 빠져 있음을 한탄해 그 폐해로부터 구제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방대한 경전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한 수백 마디를 간추려서 짧은 종이에 기록했기 때문에 〈선가귀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따라서 글은 간략하지만 뜻은 깊기 때문에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서 깊이 궁구해 묘용을 터득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것이다.

곧 출가한 납자가 지녀야 하는 본분과 수행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를 말한 지침서이고 강요서이며 개론서이다. 때문에 그 형태는 각종 경론과 어록에서 특별히 마음에 새기고 힘써야 할 내용을 발췌하여 엮은 내용에다가 청허휴정 자신이 개인적인 해설과 게송의 형태를 빌려 평석을 가한 것이다. 그런 만큼 본문에서는 자상한 타이름과 투철한 각오를 지닐 것도 함께 부탁하고 있다.

방대한 경전 수백 마디로 추려 모으고
어록 등 문구마다 게송 형태 평석 붙여

전체의 내용은 대략 분류하면 9가지 주제 가운데 첫째는 본분(本分)과 신훈(新熏)이다. 본분은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입장이라면 신훈은 후천적으로 성취되는 결과를 말한다. 본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일물(一物) 곧 깨침이나 진여나 열반과 같이 언설과 개념을 초월한 그것은 본래부터 뚜렷하고 신령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으며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일상의 중생의 입장으로 보면 숱한 번뇌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부득불 그 번뇌를 제거하는 방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곧 신훈에 해당한다.

둘째는 선교의 차별이다. 참선자는 교학을 익혀야 하고 교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는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불교의 선수행 가운데 12세기 송나라 시대에 출현한 소위 간화선(看話禪)이란 화두를 통해 깨침에 이르는 방식이다. 그 수행방법을 곧 화두를 참구한다 내지 화두를 든다고 말한다. 이리하여 화두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무슨 화두를 들어야 하는가, 화두를 무엇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넷째는 수행하는 신해(信解)의 자세에 대해 설명한다.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고 망념과 욕심을 버리며 집착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섯째는 수행과 깨침[修證]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곧 계율을 잘 지키고, 선정삼매에 들어야 할 것을 말한다. 때문에 "음란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참선하는 것은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살생의 마음을 지니고 참선하는 것은 귀를 막고 소리를 높이는 것과 같으며, 도둑질하는 마음을 지니고 참선하는 것은 깨진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는 것과 같으며, 속이는 마음을 지니고 참선하는 것은 똥으로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이런즉 설령 지혜가 많더라도 그것은 모두 장애만 될 뿐이다"고 말한다.

여섯째는 갖가지 수행의 방편에 대해 설명한다. 선수행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남에게 재물과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보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다스리는 인욕, 주문을 암송해 지혜를 터득하는 주력수행, 절수행을 통해 겸손과 공경의 정신을 배우는 예배수행, 부처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염불수행, 온갖 지혜를 터득하도록 해주는 경전에 대한 공부 등을 곁들여야 할 것을 설명한다.

일곱째는 출가의 정신에 대해 설명한다. 출가자의 본분으로서 "출가정신은 일신의 안일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등 따뜻하고 배 부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이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生死) 곧 윤회로부터 벗어나고, 번뇌를 제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중생 제도의 정신을 잇고, 자신이 중생이 깃들어 살고 있는 욕계·색계·무색계의 삼계를 벗어나서 삼계에 빠져 있는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고 말한다.

여덟째는 출가자의 신분이라면 최소한도 선의 역사에 대한 안목을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해 선종의 오가에 대해 설명한다. 선종의 오가는 당나라 시대에 형성된 선종의 대표적인 다섯 분파 곧 임제종, 위앙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청허휴정의 법맥은 임제종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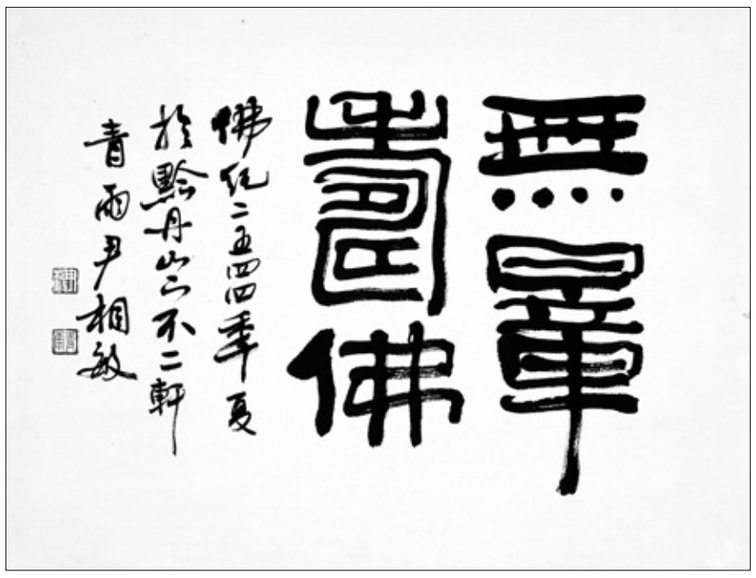
아홉째는 선수행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무집착(無執着)과 무분별(無分別)에 대해 설명한다. 자신과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도 집착을 버리고 이것저것을 따지는 분별심을 내지 말 것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선가귀감〉은 특별히 참구에 힘쓰는 납자들은 물론이고 불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불교 특히 선법의 이해를 위한 좋은 길잡이의 역할이 되고 있다. 후반부의 선종오가에 대한 교의 및 법맥의 이해는 조선중기 당시의 법계의식을 엿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는 임제종의 정통을 계승해 온 자부심과 더불어 교학에 대한 일종의 선법 우월의식도 아울러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12 무량수불(無量壽佛)



무량수불

무량수불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대승불교의 부처 가운데 가장 널리 신봉되는 부처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명의 한이 없는 부처님의 덕을 찬양해 무량수불이라 일컬어진다. 아미타여래(阿彌陀如來)와 함께 병행해 사용되며 미타(彌陀)·무량불·무량광불이라고도 한다.

이 작품은 인전(印篆; 도장새기기 위한 전서)을 쓴 작품으로 량(量)과 수(壽)를 강조해 길게 표현함으로써 대각선구도를 이루게 해 변화와 안정감을 주고 있다.

量 : 헤아릴 량
壽 : 목숨 수

청어불수무
우검기불량
윤단이
상산오
민하오
불사
이년
헌하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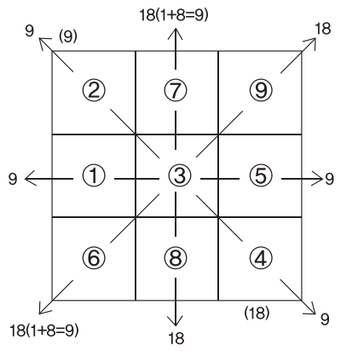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 · 금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지자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6개월]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 수,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수, 금요일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토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금,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원증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매화는 반만 필 때 운치가 있고, 벗꽃은 활짝 피어야



봄볕이 완연하고 벚꽃잎이 눈발처럼 날리는 4월 중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신춘은평휘호전시장에서 법정 스님 길상사 법회 때마다 10년 넘도록 스님을 외호했던 벽파碧坡 홍기은 거사(71)를 만났다. "처음모실 때는 굉장히 깐깐하셨어요. 부처님 오신날 극락전 앞에 처마 좌우에 큰 연등을 걸잖아요. 그 연등에다가 '법정 대화상'이란 꼬리표를 달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스님께서 보시고는 '저거 왜 달았어?' 그러세요. '모르겠습니다.' 고 말씀드리니 '떼어요.' 이러시는 거라. 난처해서 '스님들이 붙이신 걸 제가 어찌 뗍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손수 떼어버리셨어요." 세상에 큰 스님 작은 스님이 어디있냐시던 어른이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으리라. 풀 먹인 모시적삼처럼 손을 스치면 베일 것처럼 자신에게 엄격한 어른이셨다.

"처음에는 주차장에서 행지실로 모시고 갈 때 그냥 별 말씀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시거나 '여기는 벌써 꽃이 피네?' 하면서 한 두 마디 겨우 입을 떼던 어른이 날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그 날카롭던 성격이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시면서 살가워지셨어요. 2008년도인가? 행지실 문 앞에 있으니까 외호하던 사람들 몇몇이 함께 들어오라고 부르셨어요. 나보고 당신 왼쪽에 앉으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는 거야. 몸이 편찮으셔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셨지만, 내색을 안 하셨어요. 뭐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감히 어떠신가 여쭤볼 수도 없고 그러던

> 웃어, 웃어! 동네어르신처럼
> 부드럽고 도타웠던 어른스님

차에 부르셔서…, 어렵고 조심스런 어른이 사진을 찍을 때 '웃어, 웃어!' 그러시면서 부드러운 동네어르신처럼 말씀하시더라고." 스님은 늘 상대 처지를 헤아리셨다. 이런 걸 불편해 하는구나. 이러면 좋아하는구나 싶으면 바로 당신을 맞추셨다.

"어지간하면 길상사를 빨리 떠나시려고 하셨어요. 빠를 때는 점심공양 끝나고 바로 가시기도 하고, 언젠가? 사월초파일 길상음악회를 하던 날. 늦게 끝났어요. 그 바람에 밤 열한 시 넘어서가셨어요. 그런 날은 주무시고 가실 만도 한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늦어서 너무 피곤하실 텐데 운전이라도 제가 해드릴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안돼!' 그러시더라고. 밤 열한 시가 넘어서 가셨는데 몇 시나 돼서 도착하시겠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 모습을 뵈면서 참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길상사를 빨리 떠나시려고 하는 까닭을 급한 성정 때문이리라고 여겼다. 그런데 정작 까닭을 알고 보니 깊은 생각 끝에 나온 결단이었다. "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한 절에는 주지가 둘이 있으면 안돼요. 아니 할 말로 나 보러오지, 주지 보러오겠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주지가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 당신이 있으면 질서가 서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어요. '마음은 닦는 게 아니라 쓰는 것' 이라던 당신 말씀처럼 마음씀이 남다르셨지요." 결국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어쩔 수 없이 길상사에서 하루를 묵으셨다.

"강원도에서 손수 차를 몰고 오시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남이 모는 차를 타도 힘이 드실 연치에. 어떤 때는 청향당에 모셔서 한두 시간 쉬게 해드렸어요. 행지실에는 손님이 자꾸 찾아오니까. 차를 몰고 먼 길 가실 생각을 하면 손님이 찾아왔다고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더군요. 그래서 스님께서 잠깐 바깥나들이를 나가셨다고 둘러대곤 했어요. 그렇게 쉬고 나시면 한결 몸이 가뿐하신가 봐요." 나이 들

> 늦어도 강원도로 떠난 뜻은
> "절에 주지가 둘이면 안 돼"

어가는 스님을 곁에서 뫼시면서 느끼던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나는 벽파 거사 눈매가 그윽하다.

"한 번은 행지실 올라가시다가 길섶에 핀 야트막한 꽃을 보고 '벽파 거사 이게 무슨 꽃인지 알아?' 물으셔요. 조그맣고 땅바닥에 붙어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고 말씀드리니, '볼품없지? 가까이 들여다봐야 보이니까. 가장 순수하면서 끈질긴 들꽃이라고…' 그러셨어요. 뭔가 이름도 알려주셨는데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길섶에 핀,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던 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 곱더라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싯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보면 스크린 도어에 가끔 시를 하나씩 써놨잖아요. 어느 날 '들꽃'이라는 시가 번쩍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들꽃이라, 어른스님한테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었으니까. 문효치란 시인이 쓴 시인데 간단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피네. / 누가 보거나 말거나 지네. / 한마디 말없이 피네. 지네.' 아무튼 참 이 시인이 대단하다 생각했어.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뿐이라는 말이잖아요. 진리에요. 불법佛法을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야! 나한테 이런 시를 만나는 행운이 찾아오다니 그것도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서…' 필기도구가 없어 가, 핸드폰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잊어버리기 전에 얼른 정리해 함께 서예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프린트해서 돌렸어요. 인생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보니 모두 감탄을 하는 기라. '아! 좋다고.' 그런데 체육관에 같이 다니는 젊은 사람들한테 주니까 반응이 별로야. 삶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와 닿는 이야기를 철부지들이 어찌 알겠나 싶더구먼." 피카소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그리기까지 50년이나 걸렸다.

"스님은 우리 나무나 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봄이 되니까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꽃이 피니까 봄이 온다.' 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스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법문이고 시에요.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 운치가 있고, 벗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다. 복사꽃은 멀리서 봐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배꽃은 가까이서 볼 때 그 맑음과 뚜렷함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고 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셨느냐 말이에요. 스님 말고도 오천만 국민이 다 봤는데, 몰랐잖아요. 스님 눈엔 어떻게 그런 게 다 보이시는지 참." 무엇하나 허투로 보는 법이 없으셨던 법정 스님은 늘 알아차림 가운데 계셨다.

법정 스님과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할머니, 어머니가 모두 독실한 불교신자였어요. 그러니 모태신앙이라고 봐도 될 거야. 자연히 우리 집 사람도 따라다녔어요. 고부가 완전히 불교에 홀딱 빠졌어요. 그렇지만 나는 분위기만 젖어있었지 절에 잘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어느 날 〈무소유〉를 비롯한 스님 책을 몇 권 가져다 줬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길상사엘 가게 됐어요. 어느 날인가 법당에서 나오니까 집사람이 거사림 입회신청을 떡 해놓은 거라. 그 뒤로 일요일엔 어지간한 일은 미루고는 길상사로 가는 일을 1순위로 삼았어요. 거사림 회원이 되고 처음 돌아온 사월초파일 날 거사림 회장이 나보고 어른스님 외호를 맡아달라고 해서 스님과 인연이 시작되었지요. 오시는 시간부터 가실 때까지, 행지실에서 면회객들도 통제를 하고, 나중에는 아예 종무소에서 주차장 키도 나한테 맡겨놓고 그랬어요.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행사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오시면 안내

천도재·예수재 용품은 동진기획·붓다쇼핑에서…

그동안 동진기획 · 붓다쇼핑을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구성 : 금강경탑다라니,지장경탑다라니, 아미타경탑다라니, 신묘장구탑다라니,천수다라니,개팔전,상평통보,만관, 신묘장구대다라니,지전,봉투

종이영가옷 (남자/여자/동남/동녀/수자)



A형-남 정가 1,500원 (할인가 1,200 (100벌 이상)) A형-여

B형-남 정가 1,300원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B형-여



C형-남 정가 1,200원 (할인가 950 (100벌 이상)) D형-여 정가 1,100원 (할인가 900 (100벌 이상))

동남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100벌 이상)) 동녀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부모은중경·목련경 정가 4,000원 (할인가 2,400 (50권 이상))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50원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 크기 : 53×180㎜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100개 30,000원

• 남자/여자/위패



종이신발(남/여) 1켤레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축원카드 칼라

축원카드 금장(가로/세로)

할인가 60원(2,000장 이상)

정 가 10,000원(100매)

• 크 기 : 268×190㎜



자비도량참법(세로)

할인가 9,000원(20권 이상)

정 가 15,0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

할인가 1,800원(100권 이상)

정 가 3,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농협:121068-56-042256 ◆우체국:612416-02-031008 [예금주:강태규]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해 드리고, 원불교 교무님이나 수녀님들이 오시면 또 그 카고, 그러다보니까 어른스님 둘레 분들은 대강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박4일 여름 선 수련회를 두 번 동참했어요." 처음 수련회 때 '벽파碧坡'라는 법명을 받았다. '푸른 언덕', 법정 스님 출가에 앞서 쓰던 호가 '청산靑山'이었던 걸 떠올려보면, 각별하다. 그 각별한 푸름 때문일까? 벽파 거사가 늘푸른 군인들을 위해 군포교에 나선 지 12년이 넘는다. "우리 막내가 공군 출신 아니요? 그 애가 군에 있을 때 일요일이면 어디 갈 때가 없으니까 군법당엘 가서 천수경하고 반야심경을 다 외운 거라. 군법

법정스님을 만난 행운아
스님! 그리워서 그립니다

회가 군인들을 오리지널 불자들을 만들더구먼. 막내 때문에 군포교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우리가 군법당 다니는 일은 진짜 잘 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벽파 거사는 지금도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국군벽제병원에 있는 군법당, 자견사自見寺를 찾는다.

입적하신 날이 3월11일 목요일 벽파거사가 서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사 한 분이 어른스님이 삼성병원에서 길상사로 출발하신다고 전화가 왔다. 단걸음에 길상사로 달려갔다. 그 때가 오전12시 반. "2시 다 되서 길상사 범종이 울렸어요. 한없이 울었죠. 다비식 끝날 때까지 집엘 들어가지 못했어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장사익씨 노래 '봄날은 간다.'가 나오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어른스님 생각도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 어떻게 좀 깨어나야 하는데, 스님 생각만 하면 눈물 바람을 해요. 스님이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낀데. 스님이 '벽파 너무 집착하지 마. 나, 별나라 어린왕자하고 같이 잘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시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부처님열반도를 보면 제자들은 물론 사천왕들도 이젠 외호할 부처님이 안 계시다는 슬픔에 땅을 치고 통곡한다.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린 게 그림이고, 그림 솜씨가 없는 사람이 궁리 끝에 만든 부호가 글씨라는데 떠난 분을 그리워함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벽파 거사는 제8회 신춘은평휘호대회에서 일반부 한글부문 대상을 탔다. 서예공부 3년 만에 이룬 쾌거로 가르친 선생을 비롯해 둘레 분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는데…. "저하고 같이 서예를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한문서예를 했어요. 그런데 저만 유독 한글서예를 했어요. 스님 글 '미리 쓰는 유서'를 보면 '내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고 한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어른스님을 떠올리면서 한글서예를 했어요. 스님은 말씀도 참 쉽게 하세요.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 우리 식구는 '텅 빈 충만' 이 말에 반했대요. 어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너무 말이 멋지다 이거야. 텅 빈 건데 '충만'이라니.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그게 공空이다 공.'이라고 했어요. 참 대단하시지 않아요? 스님이 한글을 아름답게 빛내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셨어요. 세종대왕께서도 반가우셨을 거야." '만남은 눈뜸이다. 친구는 내 부름에 대한 응답.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한다.'처럼 스님께서 풀어내신 주옥같은 표현들



벽파 거사가 이제야 뒷짐을 졌다. 법정 스님이 길상사에 오실 때 마다 거사는 주차장에서 행지실로 또 행지실에서 극락전으로 모시며 항상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말이다. 일흔을 넘겼으니 뒷짐을 질만도 하건만 항상 공손한 모습을 봤던 내게는 생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련과 법당의 기둥을 번갈아 보는 그의 눈빛이 아쉬움에 가득 찬 것 같아서 스승의 빈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나온 회상의 몸짓이었음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셀 수 없다.

"우리 집 보살이 가끔 '당신은 법정 스님을 만난 게 참 행운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암. 행운아지 당신 때문에 다 그리됐으니 당신이 내 생애 최고 행운이자 선물이지. 당신이 스님과 엮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무슨 복에 스님을 뵈었겠어?' 그러지요." 은근히 당신 복밭을 자랑하는 팔불출 벽파 거사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해진다.

"법정 스님쯤 되시면 대단히, 우리하고 다른 큰 뭔가가 있지 않겠나? 여기는데 격 없이 소탈하고 누구한테든지 편안하게 대하시곤 했어요. 뭐랄까? 아주 평범한 농부처럼 꾸밈이 없으세요. 이 시대 큰 어른이셨지요. 꼭 어떤 뭘 배우지 않더라도. 스님이 세상에 계시는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고 울림이었잖아요. 현장 스님 말마따나 한국사람으로 태어나서, 티베트 스님처럼 사시다가 인도스님처럼 가셨어요. 스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죠." 법정 스님 입적 뒤에 더 열심히 길상사에 나가고 맑고 향기롭게 회원 만남의 날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벽파 거사. "스님께서 길상사를 10년 동안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치시다가 '그럼 맑고 향기롭게 활동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는 맑고 향기롭게 회원들 얘기를 받아들여 길상사가 생겨났잖아요." 법정 어른스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깊어, 우짜든지 '맑고 향기롭게'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스님 뜻을 잘 받들어 맑고 향기롭게 거듭나는데 힘을 보태는 게 당신 몫이라고 여긴다는 벽파 거사, "새는 머리나 날개로만 날지 않고 온몸으로 난다."며 말씀을 거둔다. 이 말씀 끝에 조계종군종특별교구장을 지내셨던 일면 스님 말씀이 떠올랐다. "느그는 주불主佛해라! 난 후불탱화할 테니."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진다

봄 가을로 대부분의 학회가 개최된다. 그 가운데 한국선학회만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정보도 교환하는 유익한 자리이다. 그날따라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의욕이 넘쳤다. 학회에서 매번 느끼는 면면이 있다. 그것은 모순이다. 〈한비자〉 난(難)이란 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순(矛盾)은 창과 방패란 말이다. 그런데 그것이 대립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나 행동을 말한다.

초(楚) 나라에 한 병기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창을 들고 '자아,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아무리 여물고 단단한 것이라도 단 한 번에 꿰뚫고 맙니다'라고 자랑했다. 그런가 하면 방패를 들고 선전할 때는 '자아,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 번 찔러 보시오. 그러면 그 결과가 어찌 되겠소?'

장사꾼은 대답이 궁해지고 말았다.

모순이란 자가당착(自家撞着)과 같은 말이다. 히 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거친 어투로 대중의 고요한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심사일까.

〈벽암록〉 제29칙의 내용을 보고자 한다.

물고기가 헤엄치면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진다[魚行水濁 鳥飛毛落]. 이렇듯 평범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주인과 손님을 확실하게 분별하고 흑과 백을 환히 나누어 본다면 바로 밝은 거울에 사물이 비추듯이 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손바닥 안에 야광주가 있듯이 원전자재(圓轉自在)로 구르게 되어 한인(漢人)도 호인(胡人)도 다 비치고 소리나 빛깔로 야광주의 진짜를 다 알아낸다.

〈벽암록〉에서 시사하는 점은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수행자가 그림자를 떨치지 못하면 더욱 위험한 일이다. 이름이란 그림자, 연륜이란 그림자, 상(相)의 그림자 말이다. 상의 극복이야 말로 공부의 첩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도가 터진다, 도를 깬다는 말을 하는데 도란 물건이 깨어지듯이 뭔가가 깨진다거나 풍선이

상(相)의 그림자 떨쳐야 도 깨친다

형상도 없고 무게도 없는 마음공부도 그 공부가 여일한지 아닌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다. 즉 점검(點檢)이다. 여기서 점이나 검 모두 조사한다는 뜻이다. 선사는 수행자의 소질 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역량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가의 과정이 따른다. 범어로 수행을 pratipatti 라고 한다. '얻는다' 든가 '확신'이란 뜻이 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혹은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를 아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학문의 세계에서 검증이란 더 철저한 지도 모를 일이다. 교육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태함이 보이면 이내 경책이 따르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다.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이란 승찬 스님의 가르침은 모두 학문세계나 정신세계의 수련자들에게 통용되는 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학회에서 한 발표자의 글과 태도를 보고 느낀바가 많았다.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다 가릴 수는 없다. 학회는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곳이 아니고 나의 학문세계를 대중 앞에 적나라(赤裸裸)하게 드러내어 대중으로부터 점검 받는 엄숙한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성전과도 같은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충실

'펑' 하고 터지듯이 뭔가가 터지는 것을 도를 깨닫는 것으로 착각하여 살고 있지나 않는 지 각자의 성찰이 필요하다. 아마 우리는 옛 선사들의 표현 방식에 착각을 일으키고 '터진다' 느니 '깬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음알이에 집착하여 알음알이에 머무르면, 그 알음알이가 '나'를 망친다. 알음알이를 형상화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 여기에 있다.

필자는 마음이 클클하면 산에 오른다. 산이라야 생활 주변에 있는 인왕산이나 남산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큰 준비 없이도 쉬 오를 수 있어 좋다. 기온이 많이 올라 재넘이가 산들산들 불면 심호흡으로 시원함을 만끽하곤 한다. 계절은 절기에 따라 적절한 선물을 무진장 쏟아내곤 한다. 받아쓰는 것은 오직 인간의 몫이다. 바쁜 일상에서 희황상인(羲皇上人)의 삶을 그리워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단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쉬어감, 여유, 반추는 우리를 희황상인의 유유자적한 삶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상의 나부랭이는 떼어내기가 쉬우나 마음의 나부랭이는 보이지 않아 떨치기가 만만치 않네.

동국대 선학과 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엇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숲에서 살던 환경보살, 마지막 길도 숲에서 숲으로

김재일 대표가 걸어온 길

김재일 대표는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숲 해설가 협회 공동대표, 조계종 환경위원회 명예위원, 불교TV 자문위원으로 언론 · 환경 · 문화 분야에 걸친 시민운동에 한 획을 긋는 큰 역할을 하였다.

〈언론분야〉 1990년 3월 '보리방송모니터회'를 창립해 방송의 역기능 폐해를 감시하고 MBC 불법 선교방송을 13년 만에 중단시키는 등 불교의 교권 확립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93년 '보리방송문화상'을 제정해 불교계 유일한 종합언론상인 '불교언론문화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통문화분야〉 1991년 시민단체인 '두레문화기행'을 창립해 현재 전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문화유산답사 단체를 만들었다. 현재까지 20년 동안 600여 차례의 답사를 통해 우리문화유산을 알리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향락위주의 여행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건전한 여행문화로 바꿔놓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경주문화엑스포 개관 기념 불교문화사진전을 열어 세계인들에게 불교의 문화유산을 자랑하기도 했다.

〈환경분야〉

1. 두레생태기행 창립 - 1994년 생태, 체험, 전통 중심의 환경단체 '두레생태기행'을 창립하여 우리나라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의 접합을 시도하는 새로운 방향의 생태탐방 교육을 처음 시도하였다. 인간 중심의 환경교육을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교육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놓았다. '전국생태기행 지도자 100인 워크샵'을 주도적으로 개최해 올바른 생태기행과 탐방을 위한 '생태기행 및 탐방지침'을 마련했다.

2. 사찰생태연구소 창립 - 2002년 3월 '사찰생태연구소'를 설립해 '전국 108사찰 생태조사'를 10년 원력으로 시작해 지난 2008년 마무리했다. 또한 불교의 생명자비사상을 외국학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불교계 환경교육과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근래에는 불교수목원 설립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 제안해 불교수목원 설립을 위한 환경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불교경전 속의 식물' 간행을 위해 '불교경전 속의 식물목록 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분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서울특별시 위탁사업으로 서울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했으며, 2003년 2007년 '사찰생태해설가' '사찰생태문화지킴이' '사찰생태문화안내자'를 양성해 배출했다.

〈저술활동〉 그 동안 펴낸 단행본으로는 〈산사의숲〉 시리즈 10권을 비롯해 〈생태기행〉(전3권), 〈생명산필〉, 〈우리 민속 아흔아홉마당〉(전2권) 〈우리고궁〉, 콩트집으로 〈제목만 바꿉시다〉 〈남자에게 다리가 셋이었다면〉 교육 교재용으로 〈대중을 위한 방송이해〉, 〈TV바로보기와 인터넷 바로하기〉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서울 봉은사서 영결식 여주 신륵사서 수목장 봉행

불교 언론 · 환경 · 문화 분야에 걸친 시민운동에 한 획을 그은 고 김재일 대표(사찰생태연구소)의 영결식이 5월 18일 봉은사에서 환경위원회葬으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등 종무원 부장단 스님들과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 등 스님들, 유가족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영결식은 고인이 1994년 설립한 생태시민모임 두레의 전기동 회원의 사회로 시작해 두레 류윤희 회원의 고인의 걸어온길 낭독,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영결법문,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의 추도사,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의 조사, 김용광 시인의 조시, 봉은사 합창단의 조가 등이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한 불교계 대표들은 수십년간 불교계에 헌신해 온 고인을 보내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함께 그 뜻을 잇겠다는 발원을 했다.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환경보살로서 20여 년 간의 어려움에도 대원을 실천하심은 바로 진흙 속의 한송이 연꽃과 같았다"며 "'불교는 숲의 종교다'는 말씀과 함께 사찰 생태의 이정표를 세운 고인의 뜻을 이어 고인이 기획한 불교수목원 추진의 뜻을 잇겠다"고 말했다.

김재일 대표의 아들 김병주 씨는 "2003년 발병 후 마치 스스로를 녹여 불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가족들의 만류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셨다"며 '울지 말아라. 울지마라. 나 잘 살다가 간다. 모두 모두 사랑한다'는 김 대표의 유언을 소개했다. 이어 운구는 화장한 뒤 여주 신륵사로 옮겨져 뒷산 한그루 나무 아래서 수목장으로 봉행됐다.

노덕현 기자



내가 꿈꾸는 불교수목원

김재일 대표가 본지(823호 · 2월 17일자)에 기고한 마지막 칼럼으로 불교수목원 건립의 필요성과 생태환경에 대한 고인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사회에 숲에 대한 관심이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산림관리 차원을 넘어 휴양 및 치유의 숲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불교도 수목원 설립에 뜻을 모을 때이다.

왜 불교수목원인가

시원적으로 불교는 불법승(佛法僧) 삼보가 숲과 함께 해온 숲의 종교다. 불교의 정체성과 포교강화를 위해서도 불교수목원은 있어야 한다. 아침고요수목원 등 종교성격을 지닌 수목원이 이미 10년 전에 국내에 선을 보인 바 있다. 현재 사찰림 관리와 사찰 조경식생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바, 수목원을 조성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불교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 불교수목원은 지금 시작해도 늦은감이 없지 않다.

불교수목원 운영은 누가하나

불교수목원 설립의 주체는 현실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가장 적임자이다. 불교계 재원이란, 재무구조가 튼실한 조계종 대형사찰과 천태종 등 각 종단이 투자 형식으로 협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불교법인체나 1000만 불자들의 성금이 보태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수목원의 사업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지만, 불교는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우선 넓은 사찰림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수목원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기존의 사찰림에다 조성하기 때문에 식물 식재비용을 다른 수목원에 비해 많이 줄일 수 있다. 또, 조성 후 입장료와 시설 사용료를 비롯해 묘목 판매, 기술과 연구 용역 등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대규모 다목적 종합수목원을 만들자

불교 수목원은 소규모의 테마수목원이 아니라 1600만㎡ (약 50만평) 이상의 '수목원+휴양림' 형태의 다목적 종합수목원이다. 불교수목원 조성은 적지 선정이 중요하다. 아열대식물원과 편백 삼나무 숲 조성이 가능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지역이 무난하다. 그 가운데 연평균 기온이 따뜻하고 해풍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좋다.

불교수목원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생산의 숲'이다. 수목원에 대규모 양묘원과 육종장을 두고 각종 식물들을 재배 생산 분양한다. 전국의 사찰은 물론 일반에 조경수와 초화류를 공급한다. 두 번째는 '관람전시의 숲'이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화본류와 목본류를 식재해 이용객들이 돌아보게 한다. 휴경지에는 1만 불자들이 '내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면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만인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로 '불교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형 온실하우스를 지어 부처님이 성도한 보리수를 비롯해 경전에 나오는 다양한 식물들을 재배 전시한다. 넷째로 불교수목원은 '산림박물관'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산림문화 전시 기능을 가진 테마박물관으로, 한국불교가 우리 숲을 지켜온 역사 전시관을 함께 두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지를 유치원, 청소년, 일반시민, 불자들을 대상으로 숲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용객들을 위한 숲해설도 여기서 담당하고, 강사를 외부에 파견할 수도 있다.

최근 '올레길' '둘레길'과 같은 곳에서의 걷기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따라서 불교수목원은 휴양림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넓은 숲을 확보해 질병 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피톤치드 방출량이 많은 편백 삼나무 중심으로 숲을 조성해 생태주택을 지어 한방 의사를 상주시켜 하루 이틀 단기가 아닌 일주일 또는 한 달 이상의 코스를 통해 실질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약초원을 두고 약초를 재배하고 약재를 생산 · 판매한다.

'명상의 숲'과 같은 수행의 숲을 마련해 수행숲을 마련하고 시민선방을 지어 참선과 명상을 원하는 이들이 머물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3개월 무문관 프로그램에서부터 1~3일 단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걷기명상을 위한 명상의 숲길 조성도 필요하다. 여기에 조성된 숲으로 수목장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불교는 종교라는 특성 외에 수 천년의 문화유산을 가진 보고(寶庫)이다. 필자는 불교의 주체성을 살리고 시대적 역할을 다하려면 상징적 사업으로 불교수목원이 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시 돼야할 것은 종단의 결단력과 사부대중의 의식전환이다.

싱그러운 생명으로 오소서 추모사



당신을 아는 불교인 뿐 아니라 불교시민운동을 하는 모두에게, 항상 믿음직한 형님이고, 스승이고, 도반이셨습니다.

1985년 당시 불교는 종권투쟁으로 혼란스러워 누구하나 교권이 당하는 피해를 돌아볼 겨를이 없던 시절이었고 종교를 편향, 불교왜곡 등 방송과 언론의 기조에 대해 불교 내 누구하나 관심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도반들과 더불어 봉고차를 끌고 다니며 지방의 방송사를 찾아 항의하는 활동을 해서 결국 13년간 편향된 방송을 폐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챙길 줄도 모르고, 개인의 이익을 챙길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오는 것들은 모두 털어 사회를 위해 불교를 위해 헌신해온 분입니다.

김재일 선생님은 문화유산답사가 유행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훨씬 이후까지 총 20여 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우리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사랑하도록 '두레문화기행' 단체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실제 답사문화 붐을 가장 오래 그리고 폭넓게 해오신 분입니다.

또한 '사찰생태연구소'를 만들어 암으로 8년간 투병하는 가운데 7년여에 걸쳐 108개 사찰의 생태 모니터링을 마치고 '산사의 숲' 시리즈 10권의 책을 기어코 완간 해놓으셨습니다.

'불교사찰의제 21'을 만들어 전국 사찰이 생태적으로 재구조화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신 분입니다. 이제껏 그가 해온 일은 사회적 균형을 맞추려는 일이었지 불교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시민운동가로서의 모범적 삶,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많은 중생들이 생명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나무로 숲으로 물로, 바람으로 더욱 싱그럽고 풍성한 생명으로 다시 오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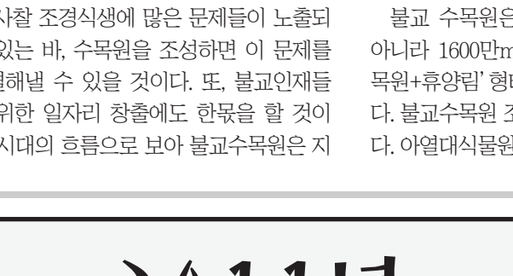
유정일 (에코붓다 공동대표)

2011년
'적하수오'
묘목 분양 성황리 종료

스님 및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1년 적하수오 묘목분양이 마감되었습니다.

더 공급하여 드리려해도 2011년 준비하였던 묘목이
모두 분양되어 부득이하게 공급해 드리지 못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 더욱 많은 적하수오 묘목을 준비하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하수오 묘목 분양에 열열한 성원을 해주신
스님 및 불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문 의 : 010-8442-4444(상담) / 010-3534-8366(농장)
■ 묘목 재배 농장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176번지

전국 사찰전문 공급업체
다영보이 茶瑩普珥
순수자연 야생보이차



1. 중국 운남성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청정지역의 야생차엽을 현지인들이 채취하여 현지 공장에서 제품화하고 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제품입니다.
2. 정식 수입통관 절차 및 부산세관 식약청의 무농약 ·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 하였고 2010년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무농약 입증검사 실시 통과한 제품입니다.
3. 다영보이는 1996년 약 12년 이상 정성을 다해 산차로 숙성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증기로 쐬어 숙차병차로 만들었으며 철저한 관리에 의해 보관하여 부드럽고 깊은 보이차만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산차 ~~45,000원~~ 38,000원
산차 ~~70,000원~~ 65,000원
병차 ~~165,000원~~ (500개 한정수량) 99,000원

• 판매원 : 마 하 몰 02)732-1520
• 제조원 : 다 영 보 이 02)959-8874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67 토마토파르코오피스텔 1507호

www.dayoungtea.co.kr / www.다영보이.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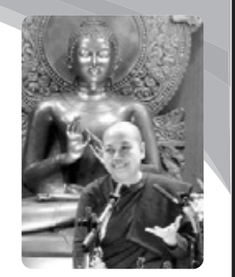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세계적 여성 명상 지도자
『디빵까라 세얄레이』와 10일 명상 체험



· 1964년 미얀마 출생.
· 어린 시절부터 수행에 전념하여 여러 큰 스님 들로부터 명상지도를 받음.
· 대학 시절 파아욱 사야도께 가르침을 받아 수행을 이룸.
· 1990년부터 호흡관, 자비관, 부정관, 4대 요소관 위빠싸나 등을 수행 지도함.
· 미국, 캐나다, 타이완, 영국, 홍콩 등 해외에서 외국인 위한 수행지도 중.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 그대로 싸마타(선정) 와 위빠싸나(통찰) 수행을 단계별로 지도합니다.

수행의 시작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개인 면담 지도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는 매우 귀하고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초심자는 명상의 주된 주제로 아나빠나사띠(호흡관)나, 사대(지, 수, 화, 풍대) 요소관이 주어집니다. 그 후 집중과 지혜의 계발에 따라 개별적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 일 시 : 2011년 6월 30일 ~ 2011년 7월 9일 (9박 10일)
◐ 장 소 : 남양주시 봉인사 031)574-5585 www.bonginsa.net
◐ 동참금 : 18만원 (1박 : 2만원) 스님 9만원
스님들의 참가비는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많이 오셔서 정진하십시요.
입금 계좌 – 농협 355-0000-5973-03 (예금주 봉인사)
◐ 준비물 : 개인세면 도구

한국 선불교위 중심도량, 장중한 역사의 물결을 읽다

㊺ 신라의 바람소리 들리는 봉암사(상)

불기 2555년 사월 초파일,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부슬비로도 내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대비로도 쏟아졌습니다. 푸릇푸릇 눈뜬 5월의 나무들이 비를 머금고 서서 부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풀꽃들은 물기를 머금어 더욱 어여쁜 날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연등에도 중생의 숱한 소망은 어려 있고 절로 향하는 길마다 법우(法雨)에 몸을 적시고 싶은 사람들로 넘쳐 났습니다. 산천초목과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날, 사월 초파일에 비가 내렸습니다.

차를 달려 비를 헤치며 문경 봉암사(鳳巖寺)로 갔습니다. 봉암사는 신라 이래로 그 찬란한 명성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나중에 산문을 연 희양산문의 중심도량 봉암사는 오늘날 한국 선불교 중심이기도 합니다. 1982년 6월 조계종이 특별수도원으로 지정해 한국의 선불교 전통을 오롯이 이어오고 있는 도량입니다. 구산선문의 전통과 함께 현대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봉암사 결사'의 정신이 살아 있기 때문에 특별수도원이 된 것입니다.

1947년 청담, 성철, 자운, 우봉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데 뜻을 모으고 봉암사에서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암사 결사의 초점은 수행의 처음과 끝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는데 있습니다. 봉암사 결사는 일제의 잔상을 담고 있는 가사 발우 장삼 등을 전통 복식에 맞춰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불공과 각종 재(齋)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노동하며 생활을 하는 등 철저한 수행 위주의 수행자상을 확립하는 획기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참선수행, 포살실시, 능엄주 암송, 자주 자치정신의 구현, 청규와 율법 준수 등 실천의 규칙들은 17개 항의 '공주규약(共住規約)'으로 모아져 결사의 지주가 됐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그 정신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조계종은 2007년 10월 '봉암사 결사' 60주년을 맞아 봉암사에서 대규모 법회를 열고 3대 실천의지를 선언 한 바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일체의 명리를 버리고 본분에 충실하자 △수행을 생활화 사회화 하자 △우리 국민 각자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자 등 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실천 의지는 역력하게 살아 있는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답은 사부대중 각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지증대사적조탑의 몸돌과 옥개석의 서까래 문양

콸콸콸 호탕하게 흐르는 계곡을 따라 '봉암문'을 들어서니 어디선가 진한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천년 도량의 법향 일 것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하얀 철쭉이 낮게 피어있는 도량에 걸려 비를 맞고 있는 초파일등도 모두 하얗습니다. 남훈루를 통해 도량 안으로 들어서니 모든 전각들이 준엄한 수좌상으로 앉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웅보전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금색전에 들어가 절을 합니다.

"부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금색전 뒤에는 조사전이 있고 그 뒤에 비각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져 한 낮임에도 약간 어둑한 기운이 있는데 새로 지은 비각의 목재는 색상이 선명합니다. 비각 안에는 봉암사를 창건한 지증 대사(智證大師) 도헌(道憲 824~882) 스님의 부도인 지증대사적조탑(보물 제137호)과 지증대사적조탑비(국보 제315호)가 천년 하고도 1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초월한 채 서 있습니다. 두 성보 앞에서도 삼배를 하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지증대사적조탑은 팔각원당형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두툼한 방형의 대리석 위로 시작되는 하단의 단단한 결구와 낮게 엎드린 사자상들, 화려한 구름문양이 탑의 중심을 잘 잡아 주고 있습니다. 안상의 가릉빙가는 지금도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듯하고 그 소리를 받아서 중대석의 천녀들이 비파를 타고 구름 속을 노닐며 극락세상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연꽃잎으로 떠받들어진 몸돌은 문비와 사천왕의 조각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스러운지 손으로 쓰다듬고 얼굴을 갖다 대 보고 싶은 충동이 일 지경입니다. 지붕의 팔각 모서리는 사뿐하게 하늘을 향해 솟구쳤고 그 안쪽으로 정연한 서까래들은 그윽한 시간의 저장고인 듯합니다. 한쪽 면이 떨어져 나가 아쉬움이 남지만, 지증대사적조탑이 이렇게 도량의 중심공간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탑의 높이는 341㎝, 지대석 너비는 228㎝로 지증대사가 입적한 다음 해인 883년(헌강왕 9)에 세워졌습니다. 9세기를 살다간 한 수행자의 이력이 이렇게 비 오는 초파일의 봉암사 풍경에 법향을 더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지증 대사도 사월 초파일에 태어났습니다.

최치원이 지은 적조탑비 비문에 선불교 초기역사 '생생'
1947년 성철 스님 등 '결사'로 한국 선불교 맥 되살려


적조탑 귀부의 뒷면. 발톱과 도드라진 갑골문 속의 문양이 기운차다

지증대사적조탑비는 오랜 풍상을 견디기 버거운지 빗돌의 각 면에 강철 지지대를 감싸 두었고 뒤에는 두 개의 긴 쇠파이프가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용머리를 치켜 든 귀부와 하늘을 훨훨 날아 갈 것 같은 구름과 용문양이 화려한 이수는 탑비의 품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 탑비의 몸돌은 남해의 물속에서 채취해 왔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지증 대사를 흠모하고 존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탑비를 더욱 고결하게 하는 것은 빗돌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지증 대사의 찬연한 생애를 6가지의 신이한 일과 6가지의 모범적인 일로 나누어 기술하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무엇보다 이 비문에 9세기 당시 신라불교의 면면이 잘 묘사돼 있어 역사를 읽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문을 지은 사람은 그 유명한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입니다. 글씨는 경주 분황사의 혜강(惠江) 스님이 썼는데 당시 83세의 노장이었습니다. 이 탑비의 내용이 당시 불교의 여러 보습을 보여 준다면 글씨는 당시의 서예를 읽는 중요한 창이 되는 겁니다. 이 탑비는 신라의 선종사와 서예사, 한문학사를 두루 밝혀주는 열쇠와 같은 존재입니다.

비문으로 남아 전하는 최치원의 명문장 가운데 특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네 가지를 '사산비명(四山碑銘)'이라 합니다. 봉암사의 이 탑비와 성주사 낭혜화상비, 쌍계사 진감국사비, 경주 숭복사비가 그에 해당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입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젖은 옷을 털고서서 탑비를 바라봅니다. 적조탑과 함께 세워진 이 역사적인 탑비는 전체 높이가 412㎝에 이르고 빗돌의 높이는 273㎝, 너비는 164㎝입니다. 1963년에 보물 138호로 지정됐다가 탑비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받아 2010년 1월 국보 315호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비각 안의 안내판은 여전히 보물 138호로 소개돼 있습니다. 이 안내판의 오류는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그대로 사진을 올리기 때문에 오류의 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봉암사 홈페이지 문화재 소재 코너에는 탑과 탑비 등의 문화재 지정 번호 자체가 없습니다. 속히 시정돼야 할 일입니다.

비문은 '서(序)에 말한다. 오상(五常)을 다섯 방위로 나눔에 동방에 짝지어진 것을 인(仁)이라 하고 삼교(三教)의 명호(名號)를 세움에 깨끗한 곳에 나타난 것을 불(佛)이라 한다. 인심(仁心)이 곧 부처이니, 부처를 능인(能仁)이라고 일컫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글로 시작됩니다. 최치원은 불교에 정통하고 유학과 도학에도 정통하여 그 세 가르침이 셋이 아니고 그 셋 아님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승함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 날카로운 식견을 남김없이 이 비문에 담았기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인연의 소중함을 찬탄하고 구산선문으로 정리되는 당시 선불교의 빛나는 연원을 분명하게 서술했습니다. 읽을수록 유려하고 장중한 비문의 앞부분에 당시 선불교의 흐름이 기술돼 있습니다. 도의 국사가 귀국해 선불교를 펼칠 인연을 기다리는 일과 홍척 대사가 실상산문을 여는 일을 비롯해 구산선문의 주역들이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대목 등이 큰 물결처럼 넘실넘실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의(道義)라는 승이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서당(西堂)의 오지(奧旨)를 보았는데, 지혜의 빛이 지장선사와 비등해져서 돌아왔으니, 현계(玄契, 선불교를 지칭)를 처음 말한 사람이다. (중략) 외우는 일에만 마음이 쏠려 다투어 비웃으며 '마어(魔語)'라고 한 까닭에 빛을 지붕 아래 숨기고 종적을 협소한 곳에 감추었는데 (중략) 그 후 구도승의 뱃길 왕래가 이어지고 나타낸 바의 방편이 진도(眞道)에 융합했으니, 그 조상들을 생각하지 않으랴. 진실로 우리가 번성했도다. 혹 중원에서 득도하고는 돌아오지 않거나, 혹 득법해 돌아왔는데 거두(巨頭)가 된 사람을 손꼽아 셀만하다."

여기서 최치원은 거두가 된 사람 즉 한 산문의 개창조가 된 사람들로 가지산문의 도의, 실상산문의 홍척, 동리산문의 혜철, 봉림산문을 연 진경 대사의 스승인 고달사 현욱, 사자산문의 개창자 절중의 스승인 쌍봉사 도윤, 굴산산문의 범일, 선주산문의 무염 등과 쌍계사의 진감 국사 등을 두루 거론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덕화를 옛말에 빗대어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세상에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명예가 나를 따르며, 명성을 피해 달아나도 명성이 나를 좇는다."

글=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봉 국가안녕과 불교중흥을 위한 호국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 축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6월 11일(토) 오전 9시부터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천불천탑 조성도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는 법화경 사경을 탑 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예로부터 법화경은 나라를 지키는 호국경전으로 알려져 왔으며,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국난극복의 의지로 법화경을 사경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일심으로 사경한 법화경 사경을 탑 속에 모시는 봉안식을 통하여 불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발원합시다. 아울러 불자가수들의 참여하에 흥겨운 산사음악회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주 석 도 림 · 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합장

행사일정표

6월 11일
오전 헌공 및 설법
오후 법화경 사경봉안식
초청가수 공연
서화문화축전
철야기도

천안역 셔틀버스운행안내
1호선 전철 천안역 하차(천안역 호두과자점 앞)
11일(토) 오전 7시 30분 ~ 낮 11시까지 운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행사장 도착

버스표 구입안내 법화정사
1호선 제기역 1번출구 출발 02-928-1331, 1340

6월 11일 천안 구룡사 사경봉안 대법회
■ 각 지역별 연락처 (차량은 지역별로 운행)

천안 구룡사	041-552-9666	진주 박인순(관음행)	011-9312-5712
제주평화통일불사리탑	064-783-8801	수원 박찬희(보현심)	010-6304-3459
부산대연 법화정사(묘진행)	051-623-3595	분당 구순희(명심행)	011-9248-3844
부산초읍 법화정사(청정심)	010-2798-6666	울산 윤태숙(수선화)	010-2548-0753
대구 법화정사(백운)	053-751-2366	강릉 민영희(자비화)	010-2287-8855
구미 법화정사(문수행)	011-825-8558	원주 강옥녀(대도행)	033-743-8845
전주 법화정사(정수행)	010-6808-2807	횡상 심명옥(일승행)	010-9921-3690
청주 김명복(백련심)	043-231-5136	인천 정영섭(마이심)	010-6295-1068
광주 은미사(연등행)	062-223-4752	마산 윤숙자(묘연화)	010-2591-3934
광주 영광사	062-266-6981	창원 조민경(관음성)	010-8528-4218
순천 김덕임(대덕행)	017-622-1965	대전 김영숙(지혜심)	010-4433-9100
진해 김기연(성불심)	010-9570-3475	김해 박태향(관음행)	016-9374-3571
진주 조갑임(금선화)	010-6799-8584		

■ 문의 : 서울 법화정사 02-928-1331 ■ 장소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041-552-9666~8)

개인의 업에서 벗어나면 공업도 벗는다

헝가리 출신 청안 스님, 운명과 자유의지에 관한 지침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펴내



"인구밀도가 높고, 수직적인 사회구조를 가진 한국은 스승 없이도 인과법을 잘 배울 수 있는 나라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청안 스님이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기 전, 운명과 자유의지에 관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를 출간했다. 스님은 헝가리에 한국식 사찰인 원광사 준공 중에도 한국과 헝가리를 오가며 법문을 펼쳐왔다. 책은 2008년 불교TV에서 방영된 'ONE MIND ONE CHANCE'라는 법문을 정리하고 다듬어 엮은 것이다. 청안 스님은 책을 통해 누구나 살면서 벽에 부딪히거나, 삶의 무게에 고통스러워하는 업, 숙명,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보고, 세상과 모든 존재의 업에 연결돼 영향을 받는 자신의 운명, 숙명, 업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의 15년의 세월은, 헝가리의 40년 세월을 보는 것과 같다. 그만큼 효율적이고 빨리 흘러간다. 이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현시대에는 그 방향이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옛날 한국의 수직구조가 서서히 해체돼가면서 그 현상은 더욱 심각화 되고 있다. 이렇게 20~30년 이 현상이 지속되면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는 인간소외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안 스님은 "한국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라며 "앞으로 사회가 바르고 힘을 가지려면, 이 시대 젊은이들이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안 스님은 지혜를 증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인간 스승을 찾는 것이다. 스님은 "가슴을 열고 스승을 찾아 나서면 인연이 맺어진다"며 "스승을 찾아 나설 때에는 신뢰, 존경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찾아야 한다. 신뢰와 존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서로를 알아가기 힘들고, 스승 또한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자연을 스승으로 삼는 일이다. 스님은 "자연은 완전한 스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청안 스님은 책을 통해 자연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스님은 "고통은 국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분법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고통은 여기저기 옮겨 붙게 된다. 때문에 수행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통찰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자연이든 인간이든 정직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다면, 세상도 나에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스승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어 "소비자 사회에서 본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많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귀의이다"라고 강조했다.

"일체의 불필요한 생각을 끊어 낼 때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나타납니다. 지혜와 자비는 대승불교의 기반입니다. 업에서 자유로워지면 나의 업을 중생 구제를 위해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라' "

스님은 "개인의 업을 벗고 자유로워지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업을 벗는 길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책은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로 끝을 맺으며 각자의 삶 속에 진정 불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또한 불자들의 개인적인 질문을 비롯해 기본적인 불교의 가르침, 세계 운명, 경제를 가리지 않고 넘나들며, 직설적이면서도 명쾌한 청안 스님만의 서양식 화법이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풀어나가고 있다.

청안 스님은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로 지도법사 자격을 가지 헝가리 출신 스님으로, 20대 초반에 숭산 스님을 만나 1993년 미국 프로비던스 선원의 동안거 결제에 참가하면서 비구계를 받았다. 그 후 화계사, 해인사에서 수행했으며, 숭산 스님의 지도 아래 6년간 수행했다. 2000년도 고국으로 돌아가 헝가리 관음선원 주지를 맡아, 부다페스트에 선원을 세워 대중을 지도하고 수행했다. 이어 헝가리에 유럽 최초 한국식 사찰 '원광사'를 건립했다. 저서로는 〈꽃과 벌〉〈마음 거울〉 등이 있다.



청안 스님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청안 지음 | 양언서 옮김 | 다산초당 |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연꽃이 꽃과 열매를 함께 피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대는 아는가? 경전 속 식물들의 시원이 담긴 책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담긴 연꽃,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깨달음의 상징 보리수, 열반에 든 사라수 등 불교 경전에는 수많은 식물들이 등장한다. 허나 이런 식물들은 경전의 배경에서 풍광을 아름답게 꾸며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책은 그간 크게 이목을 끌지 못했던 불교 경전 속 식물을 집대성해 독자들에게 꽃과 나무의 이야기, 나아가 우리 삶 속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연꽃은 불가에서는 처염상정(處染常淨), 화과동시(花果同時)라 한다.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오염되지 않고 본성을 유지해 마침내 세상을 정화한다는 뜻이다. 일반 꽃들과 달리 연꽃이 꽃과 열매가 동시에 핀다는 사실은, 깨달은 이후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없애고 자비심을 키우며 이웃을 위해 사는 삶 자체가 깨달음임을 알려준다. 즉 경전 속 식물은 그 자체로 가르침이다.

책에는 식물분류학적 체계에 의해 구성된 콘텐츠로 식물학적 정보 또한 놓치지 않고 수록돼 있다. 식물의 모습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섬세한 일러스트로 고유의 색과 모양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게 했다. 독자들은 불분명하게 형상화된 경전 속 식물들을 책을 통해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경전 속 불교식물 | 민태영 · 박석근 · 이윤선 | 이담 | 3만원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사랑할 일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들 때까지 감사하고 사랑할 일 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사랑, 이것을 '참 좋은 행복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우학 스님(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회주)이 수행과 포교를 통해 겪은 일들을 엮어 〈감사하고 사랑하며〉를 출간했다. 스님은 도심 포교당과 무문관 수행, 해외 여러 도량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스님의 느낌과 깨달음을 책을 통해 말하고 있다.

책은 마치 우리 자신을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처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스님의 일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책 속에 담긴 스님의 말씀은 철학적 사유의 산물이 아닌, 직접 일상의 삶에서 체득한 것들을 통해 진리를 구하고 있다. 그 '일상'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그 속에 항상 행복이 존재함을 깨닫게 해준다.

감사하고 사랑하며 | 우학 지음 | 좋은인연 | 1만3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1~1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솔
2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삶
3	기도	법륜	정토
4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7	마음하는 아우야	박성직	녹야원
8	현문우답	백성호	중앙북스
9	이향봉 스님의 일체유심조	이향봉	우민사
10	부처가 부처를 묻다	스티븐 미첼	물병자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진리 깨달으려면 모든 생각 떨쳐 버려라"

서양으로 건너간 최초의 한국 선사 숭산 스님의 가르침 한권에 담아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베트남의 틱낫한, 캄보디아의 마하 고사난다와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았던 숭산 스님의 100가지 가르침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

책은 숭산 스님이 처음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선불교를 가르치던 법문, 선문답, 일화,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편지에 이른 모든 것이 엮어져 있다. 숭산 스님은 40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른 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스님은 세탁소에 취직해 수리공으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 프로비던스의 브라운대학 학생들이 숭산 스님에게 매료돼 스님을 찾았고, 이어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 등 미국의 각 대학 학생과 교수들까지 스님을 찾게 됐다. 영어를 할 줄 몰랐던 스님은 당시 제자들의 질문에 짧고 쉬운 단어로 핵심을 찌르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스님의 '오직 모를 뿐'이라는 메시지와 몽둥이 30방으로 머리를 얻어맞으며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가진 조건, 모든 생각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리하면 생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것을 맑은 마음이라 부른다. 이 맑은 마음은 안과 밖이 따로 없으며 그저 그러할 뿐이다. 바로 그러할 뿐이 곧 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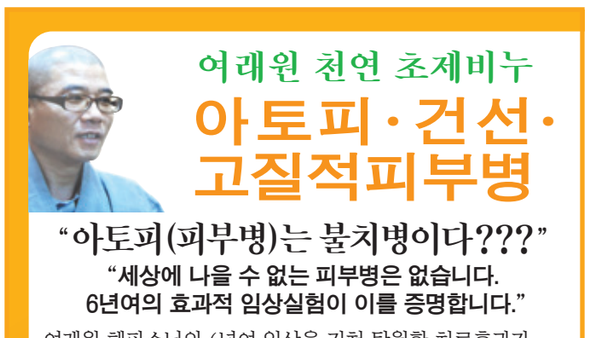
숭산 스님의 해외 포교로 당시 선불교의 매력에 빠진 해외 명문대 출신의 많은 젊은이들이 출가를 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출신으로 화제를 모은 화계사 국제선원장을 지낸 현각 스님, 유럽 최초로 한국 전통사찰을 건립한 청안 스님, 현재 국제선원 주지인 대진 스님, 예일대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전통사찰 태고사를 건립한 무량 스님 등이 있다. 스님은 1966년 일본 도쿄에 홍법원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 화계사에서 입적하기 전까지 전 세계 36개국에 120여 개의 선원을 설립했다.

책에는 당시 미국 청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스님과 나눈 대화들이 담겨있다. 단순한 이 대화들을 통해 독자들은 더 깊은 깨우침으로 다가갈 수 있다. 삶, 죽음, 사랑, 깨달음, 집착 등 동서고금을 막론한 삶과 정체성에 대한 많은 의문들에 대해 숭산 스님의 명쾌한 답이 들어 있다.

부처가 부처를 묻다 | 스티븐 미첼 편저 | 권지연 · 김연재 옮김 | 물병자리 | 1만3800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佛祖正脈 불조정맥
바로보인 선문염송 17
Hwa-du 话头 화두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정맥 중,영,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화 두 영,중,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My Bride Dongguk!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편)입생모집
2011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 불 교 | 차문화콘텐츠 | 불교사회복지 | 생사의례 | 명상상담
전 공 | 불교학 선학 | 다도 · 제다 | 사 회 복 지 | 생사의례 | 명상상담
모집인원 | 00명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1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 · 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
•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행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전형일정
구 분 | 일 자 | 구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 5. 16(월)~6. 8(수) |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 2011. 6. 18(토) 10:00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특 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생사의례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의의 상제례사 인증·응시자격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교 출신자 진학 시 입학금 면제.
■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3097 • FAX 02-2260-8627
• http://gsbs.dongguk.edu
dongguk UNIVERSITY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 · 건선 · 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을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방부제,인공향유,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체질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까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 래 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주)현대에너텍 2011년 최신형
농협융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융자지정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 · 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평 ~ 20평까지
건조기(11채반) 건조기(22채반) 건조기(33채반)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

꿈에 스님만 봐도 옻이 오른다더니

성파 스님의 '성파 칠화전' 30일까지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려


성파 스님의 금강계단.

칠문화는 요즘 차(茶)문화처럼 대표적인 불교문화 중 하나이다. 경상도 속담에는 '꿈에 스님만 봐도 옻이 오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칠문화의 요람은 본래 사찰이었다. 고려시대에 사찰을 중심으로 활발히 발전하던 칠문화는 조선시대의 억불숭유정책으로 인해 위축되고 말았다. 일본이 칠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안 한국의 칠문화는 퇴보돼 갔다.

이런 한국의 칠문화를 다시 부흥시킨 곳은 다름 아닌 통도사 서운암이었다. 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통도사 서운암에는 국내 유일의 칠공방을 마련했다. 21세기 사람들이 칠문화를 다시 알아가는 데에는 통도사 서운암의 성파 스님이 중심역할을 했다.

성파 스님은 전통 공예기법에 있어 남다른 연구와 활용으로 이미 명성이 높다. 전통 제지술과 천연염색으로부터 도자 십육만 대장경 제작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전통 공예에 대한 천착은 범인의 수준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스님의 이 같은 전통 공예 분야의 천착은 곧 수행으로 이어진다. 얼마 전 산수화 개인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듯이, 스님의 예술적 감각과 기량은 엄청나다. 이미 스님의 공예작품은 종류와 수량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스님은 칠공예 외에도 감지금니 사경, 서법, 도예, 천연염색, 산수화, 칠화 등을 통해 구도적 경지를 표현해왔다.

한국인은 칠 위에서 자라고, 칠 위에서 생애를 마감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칠문화는 한국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옻칠의 경우, 천연도료로 수명이 길기 때문에 생활용구에서부터 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방습효과, 살균력, 살충력 등이 뛰어나 목재 용품에 효과적으로 이용됐다.

1983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스님의 전시는 사찰과 밀접했던 칠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미술평론가 윤범모는 "성파 스님의 칠문화는 현대작가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분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칠문화 증흥이라는 원력을 갖고 있는 성파 스님의 작업은 미술 영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통 유화는 덧칠하면서 표현되지만, 칠화는 덧칠한 부분을 깎아 내면서 작업한다. 이런 속 색깔의 우러남이 칠화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런 내부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바로 법열(法悅)이다.

성파 스님의 작품 특징은 무엇보다 색채 구사의 화려함을 들 수 있다. 원색의 자유자재한 활용은 화면 구성을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한다. 원색의 자유스런 구사는 유화 재료 이상의 독특한 효과를 느끼게 한다. 색채 이외에도 스님만의 적확한 묘사력은 대상을 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구성의 짜임새 또한 뛰어나다.

칠문화의 선도자로 알려진 성파 스님의 작품은 5월 25~30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성파 칠화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스님의 칠화 작품들은 근래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한 성과물이다. 길이 6m이상의 대작 3점을 포함한 20여 점의 칠화 작품들이 감동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작품은 알루미늄 판을 상처 내어 바닥처리를 하고 부드러운 기와 가루와 옻을 섞어 발라 시멘트 이상의 견고함을 보인다. 삼베를 바르거나 반복해서 칠하는 작업과정은 스님의 수행과정이다. 모든 칠화 작품들은 수행을 바탕으로 이뤄져, '불교' 그 자체라 말할 수 있다.

전시는 '선칠불이(禪漆不二)'라는 성파 스님의 화두를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미술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칠문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이다. (02)736-1020 이은정 기자

소금으로 들려주는 매나리 가락


대금연주가 이생강

우리 시대 악성으로 불리는 대금연주가 이생강의 새 음반이 출반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이생강은 최근 우리의 역사 안에서 자라온 아름다운 음악 유산을 알기 위해 '우리 소리' 시리즈 앨범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앨범은 우리 소리 4집 '소금 소리'이다. 소금은 약 1350년 전 신문왕 때 부터 대금, 중금과 함께 신라 3죽이라 불린 악기이다. 서양 악기 피콜로와 비슷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이 악기는 현대의 악기와 어울려 크로스오버 협주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전통악기중 하나다.

특히 이생강의 소금 연주는 이미 국악과 양악계에서 모두 인정받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강원도 산간지역의 매나리 가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가 소금이라고 강조하며, 밝고 신선한 느낌의 매나리조를 자주 연주해 왔다.

이번 앨범에서 역시 물 흐르듯 풀어가는 이생강만의 독특한 매나리 가락이 잘 담겨있다. 소금 특유의 밝고 맑은 소리와 더불어 절제된 애조로 그만의 독특한 기교들을 느낄 수 있다.

앨범에는 정선아리랑, 한오백년 등 대중적인 전통민요을 비롯해 아일랜드 민요인 '안개이슬', 동요 '반달' '오빠생각', 가곡 '기다리는 마음' '봉선화', 대중가요인 '소양강 처녀' '목포의 눈물' 등 모두 47곡이 담겨있다. 이생강은 이번 앨범 발표에 대해 "우리의 아름다운 음악 유산이 오늘날 문화적 정서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많은 대중들이 우리 소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길 바란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음악적인 재조명과 더불어 우리 소리 정리 차원에서 이번 앨범을 출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괘불을 본다

995cm 규모 내소사 대형 괘불, 8월 28일까지 불교회화실서 전시

큰 재나 초파일 같은 대중이 많이 모이는 날, 의식용 불화로 쓰이는 대형 괘불을 도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8월 26일까지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 테마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평상시에는 보기 어려운 사찰 소장 문화재를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내소사 괘불은 1700년 6월에 그려진 것으로 중앙의 석가모니부처를 중심으로 보살과 여래가 타원형으로 에워싼 7존 형식이다.

괘불의 높이는 995cm으로, 괘불의 등장인물의 광배 좌우에 붉은색 테두리를 마련하고 여기에 금색 안료로 각각의 이름을 써 넣어 조선후기 괘불 도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역할을 한다. 영산교주석가모니불, 문수대보살, 보현대보살, 관음대보살, 세지대보살, 증청묘법다보여래, 극락도사 아미타여래 등이 함께 자리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6년 '법당 밖으로 나온 큰 불화, 청곡사 괘불' 이후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괘불전시회를 열고 있다. 원래 괘불은 부처의 힘으로 질병이나 기아,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의식용으로 쓰여 졌다. 조선시대에는 천도의식이 가장 왕성하게 이뤄졌으며, 천도의식 중에서 49재, 예수재, 수륙재, 영산재 등이 성행했다. 괘불은 의식을 행할 때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형으로 제작됐다.

내소사 괘불의 도상은 〈법화경〉에 근거하면서도 당시 간행됐던 영상회 의식집의 거불편에 거명되는 인물들과도 일치해, 불교 의식집에 근거한 도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괘불의 하단에는 괘불조성에 참여한 49명의 시주자들이 기록돼 있는데, 이 가운데 주목되는 성씨는 포산 곽씨다.

바탕시주자 곽선흥, 공양시주자 곽수홍, 곽기흥 등은 내소사 괘불을 조성할 당시 김제에 거주했던 형제들이다. 괘불을 조성할 당시 큰 아들 선흥은 이미 1697년 7월 6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따라서 괘불은 먼저 사망한 선흥의 나머지 일족들이 망자의 천도를 위해 1700년 6월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괘불을 그린 화승은 천신을 비롯한 승선, 각융, 새형, 난익, 해안, 국견 등 모두 7명이다.

내소사 괘불은 18세기 괘불을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18세기 괘불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그린 '내소사 괘불'을 통해 불교문화에 한층 더 친숙해 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2077-9000 이은정 기자



'대장경'이 오페라로 나투다

고려대장경 1000년의 해 맞아, 오페라 '대장경' 제작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6월 3~4일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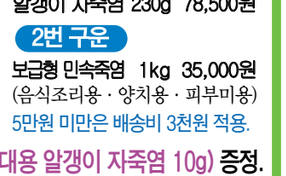
고려대장경이 오페라로 부활했다. 경상남도음악협회는 고려대장경 1000년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오페라 '대장경'을 제작했다. 공연은 6월 3~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오페라 '대장경'은 소설가 조정래의 장편소설 〈대장경〉을 원작으로 김봉희 각색, 최천희가 작곡을 맡아 2막 4장으로 작품으로 완성시켰다. 몽고군에 의한 초조대장경의 소실과 새로운 대장경의 제작, 그리고 대장경의 완성 과정을 그리는 오페라 '대장경'은 불교적 색채와 한국전통음악을 활용한 오페라다. 특히 공연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공급되던 공연문화에서 벗어나 지방의 창작오페라가 서울로 진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오페라 '대장경'에는 오페라 전문연출가인 방정욱이 연출을 맡았으며, 송기창, 김종흥, 이정원 손정희, 이윤숙 김희정, 정능화, 김성진, 류현승, 한상식, 김화정, 김철호,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인천오페라합창단, 창원시립무용단 등이 위대하고 장엄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02)580-1300 이은정 기자

'한글세대·영어세대를 위한 유식학 출간!'
Mind-Only Science
모직 마음밑 멸인
유식의 세계
지은이 고 목
신간

연락처
도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유식사상연구회
T.055-353-6142
신국판 300쪽
₩12,000
도서출판 미르아이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것
주얼드림은 은(銀) 99%로 만든
염주 · 단주 · 금강저 · 반지 · 목걸이 · 핸드폰줄 · 백옥 · 청옥 · 자수정 · 호한석 등
기타 다양한 제품생산 기업입니다.
제품소개를 지면으로 다하지 못하오니
연락주시면 책자(카다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⑨ 호인석단주
⑩ 자수정단주
⑪ 은 단주
⑫ 은 단주

반야심경 목걸이 ❶
반야심경 목걸이 ❷
반야심경 목걸이 ❸

반야심경 목걸이 ❹
반야심경 반지 ❺
옴마니반메훔 반지 ❻
금강저 목걸이 ❼
옴 - 회전 반지 ❽
귀 - 회전 반지 ❾
주얼드림(석도) JEWELDREAM ·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인터넷 쇼핑몰
NAVER 주얼드림 검색
www.jeweldre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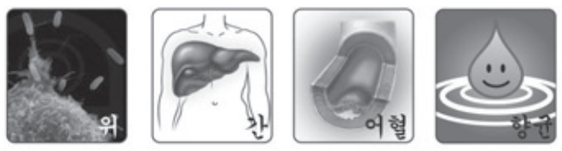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피를 맑게, 냉적(冷積), 적취를 풀어주는 참옻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과 유황오리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그의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우리 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냉적(冷積)이란, 차가운 것이 뭉쳐있는 것인데 위장, 대장, 자궁이 냉하여 순환이 안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자궁과 장이 딱딱하게 굳어진상태를 말합니다.

1)자궁에 차가운 기운이 쌓여 있으면 혈액 순환이 안되고 어혈이 생겨 자궁물혹, 근종, 생리통, 냉대하 등의 각종 여성 질환이 유발되고

2)위와 장이 차가우면 소화기능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운동도 안되서 배변장애가 생긴다.

3)복부비만의 가장중요한 원인도 복부에 냉적(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대사기능이 떨어지고, 붓고, 저리고, 비만을 유발 하는 하체 순환장애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에 뭉쳐진 차가운 기운 즉 냉적은 각종질환 특히 여성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소화장애,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복부비만과 하체비만, 여성의 생리통 냉대하 등의 경우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하체의 순환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紅崩(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痛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지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서울국제발명전시회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금상-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우수발명 기업선정 (2011년 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D 제조업체등록, 공정자격등록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손발저림, 황금색변 (2011년 3월 28일) 역삼동 에서 세무사 윤ㅇㅇ

저는 50대 중반의 남성이고 어머님은 70대후반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업무상 술을 자주마시는 저는 다음날 화장실을 여러번 다녀오고, 양 엄지 발톱의 무좀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목에 가래가 낀듯한 느낌과 손발 저림으로 고생을 하시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이며, 농삿일을 하시는 관계로 농사철 때는 손바닥과 발바닥에 거북등처럼 갈라져서 고생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는 체질적으로 옻나무 금방에만 가도 옻이 오르는 알레르기 체질이며, 저는 옻닭집에서 약은먹고 옻닭을 먹었다가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4대나 맞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옻을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손사래를 쳤으나 (주)옻가네에서 개발한 '위간보'라는 제품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에 용기를 가지고 음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간보'라는 제품을 음용한지 3일도 안되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변의 색깔 부터 황금색으로 변하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음주를 하지 않은 날과 같아지게 된것 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달쯤 음용한 후에는 발톱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했는바 무좀에 다 허물어진 발톱안쪽에서 전혀 새로운 발톱이 나기 시작했고, 현재 약 2개월정도 음용한 저는 완치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손발저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 생각에 여름휴가때 시골에 가서 어머님께 권유드렸으나, 처음의 저와 마찬가지로 손사래를 쳤으나 저의 음용결과를 설명드리면서, 우선 한봉지만 들어보신것을 간청하니 아들의 진심어린 걱정에 보답해주는 맘으로 음용해보시고, 바로 다음날 저에게 '애비야 목에 끼던 가래가 없어진것 같이 상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문해주셨은 부탁해서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한 열흘정도 드시고 부터는 손발 저림에 완화되고 잠도 잘주무신다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5개월정도 음용하신 결과 손발저림과 손발바닥에 갈라지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젊은 사람의 손발처럼 되어 정말 좋아 하셔면서 온동네 사람에게 자랑하시고 친인척에도 자랑하며 이제는 동네주민과 친인척이 모두 (주)옻가네의 제품인 '위간보'의 팬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옻가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료 또한 역류성식도염도 저의 권유로 음용후 완치가 되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여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향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즉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40-70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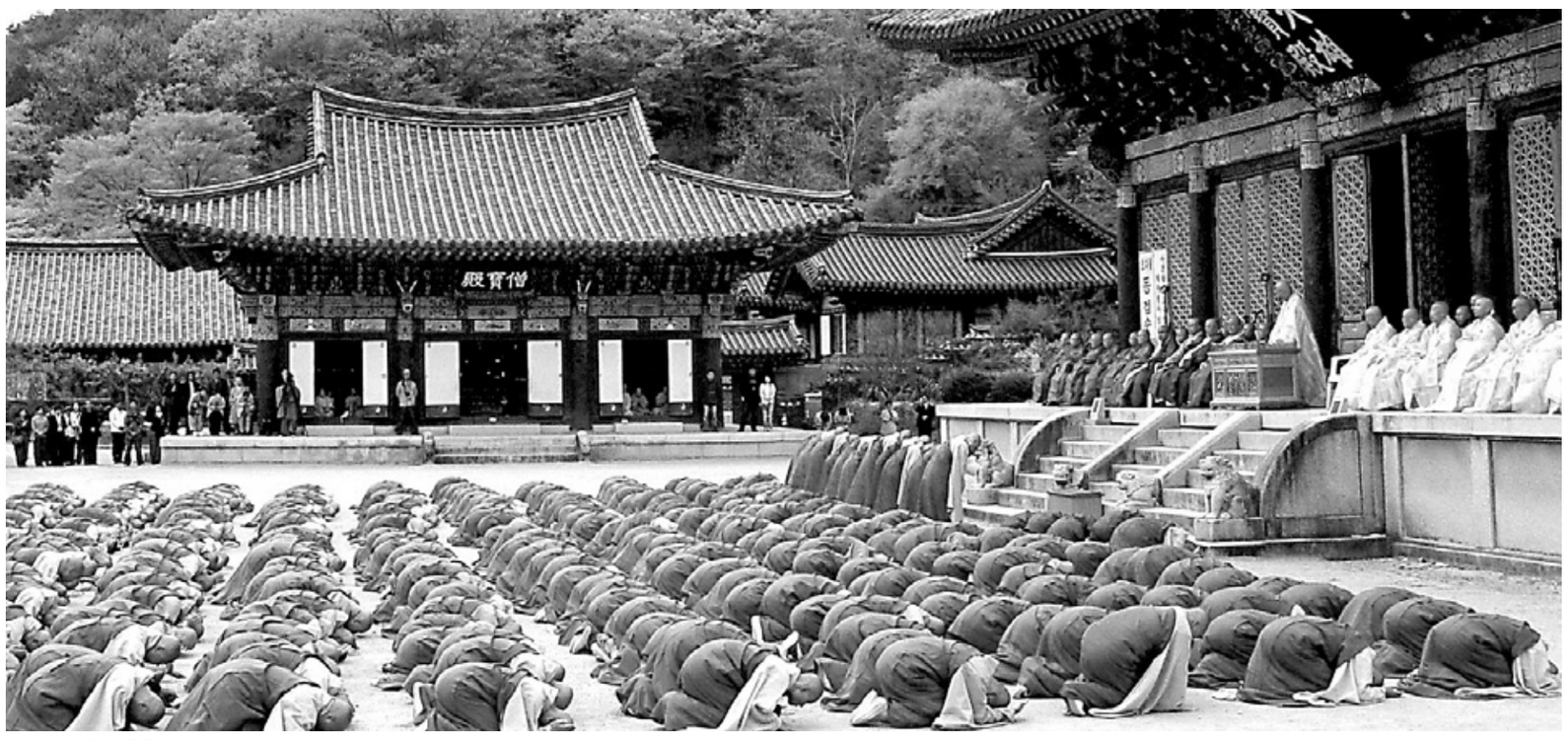


윤창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㉜

선원총림의 수계의식- 사미계와 비구계

속(俗)을 버리고 열반으로 나아가다



2005년 송광사 구족계 수계법회

사미계(沙彌戒, 사미니계)는 20세 미만의 행자가 받는 계이다. 불살생 · 불투도 등 모두 열 가지(10계)로 이것은 스님으로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조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율장에 따르면 사미는 아직 정식적인 스님이 아니다. 정식 스님은 구비된 계율인 구족계(具足戒: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받아야 한다. 초기불교 당시 석존의 아들인 라훌라가 출가하자 어린 나이에 무려 250가지나 되는 계율을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열 가지만 뽑아서 제정한 것이 사미 10계이다.

'사미'란 산스크리트어 스라마네라(Śrāmaṇera)의 음사어로서, 남자는 '사미(沙彌)', 여자는 '사미니(沙彌尼)'라고 하고, 한역하면 '근책남(勤策男)', '근책녀(勤策女)'라고 한다. '장래 비구, 비구니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 혹은 책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비승', '견습승려'이지만 정식 스님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자와 사미에 대해 인도와 중국의 다른 점은, 인도에는 행자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출가해 승단으로 들어오면 바로 사미가 되지만, 중국에서는 약 1년 동안 행자과정을 통해 삭발, 수계 후 사미가 된다. 같은 점은 20세 이전에는 모두 사미계를 받고, 20세가 넘으면 사미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비구계를 받는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나이 불문하고 처음에는 모두 사미계를 받으며, 4년이 지나서 기초선원이나 강원 등을 졸업하면 비구 · 비구니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초기 인도불교에서는 행자과정이 없으므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경우 사미니와 비구니 사이에 '식차마나니'라고 하여 2년 과정을 더 두었다.

중국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수계의식은 모두 세 종류이다. 구족계(비구계 · 비구니계)와 보살계, 사미계인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격식 있게 치러지는 것은 사미계이다. 그 까닭은 비구계가 대계(大系)로서 더 중요하지만, 사실상 사미부터 정식 스님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구계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다. 승당에서 좌차(座次, 앉는 자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비구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었다. 선은 계율보다는 깨달음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 경지가 남다르면 격식을 떠나서 고승으로 존숭됐다. 예컨대 방거사 같은 이는 세속인으로서 벼슬도 하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선승 못지않은 존숭을 받았다.

당송시대 때 불교는 거의 전 기간에 걸쳐 국가의 통제와 관할 아래에 있었다. 행자과정을 거쳐서 승려가 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청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합격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사미계를 받을 수 있고, 사미계를 받아야만 승려로 인정됐다.

고시는 중앙과 각 지방 관아에 있는 사부(祠部) 소속의 승록사(僧錄司)에서 주관한다. 당말 경종(景宗, 825~826) 때 치러진 시험 내용을 보면, 남자 행자는 〈법화경〉 등 지정된 경전을 150장, 여자는 100장 암송하도록 돼있다. 당말 오대(五代)와 송대에는 다섯 가지 시험을 보았다. △경전에 대한 설명 △참선 △경전 암송 △논술 △경전에 대한 주석이 그것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에서는 출가허가증인 도첩(度牒)과 세금 · 부역 · 병역 면제증인 면정유(免丁由)를 발급한다. 이 두 가지는 계첩과 함께 승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분증이다. 이것이 없으면 사도승(私度僧), 가짜승으로 취급돼 행각(만행)할 때 제재를 당하거나 안거 때 괘탑(입방)할 수가 없다.

〈선원청규〉와 〈칙수백장청규〉에 의하면 행자로서 1년이 돼야 사미(니)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1년 동안 총림의 예의범절과 의식, 염불 등을 익힌 다음 시험을 치른다. 시험을 통과한 행자는 도첩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다시 해당 총림으로 돌아와서 방장(주지)화상과 계사와 증명법사 그리고 스승과 대중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부처님 앞에서 득도식(수계의식)을 거행한다. 이것은 부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은 계를 지키겠다는 서약의식이다. 이날 비로소 계사(戒師)로부터 10계와 계첩, 7조가사와 장삼, 법명 등을 받는다. 행자 때까지 기르고 있던 긴 머리도 이날 깎고, 승복도 정식으로 입는다.

라훌라 출가때 부터 사미 10계 선별

당·송때 스님 되려면 관청 시험 필수

그런데 당일에 삭발을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미리 삭발을 한다. 다만 정수리 부분만은 남겨뒀다가 수계식 날 10계문을 낭독한 후 스승이 마저 깎아 준다. 사미계를 받아야만 비로소 자타가 공인하는 승려이다. 수계 사실을 본관(本貫, 본적지)에 통보하면 해당 관아에서는 그 사람의 호적을 사찰로 전출시켜 준다.

득도식 절차는 먼저 교수아사리가 계를 받게 될 행자들을 데리고 입당(入堂)해 부처님과 계사를 향해 각각 3배를 시키고 호궤합장(무릎을 꿇고 선 채로 합장함)을 하게 한다. 이어 여러 가지 법식을 행한 다음 행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속복(혹은 행자복)을 벗기고 승복으로 갈아입힌다.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서 부처님께 3배, 계사에게 1배하고 꿇어앉으면, 계사는 정병(淨甁, 깨끗한 물병)에 있는 물로 정수리를 적신다. 정수리에 남겨 둔 머리는 스승만이 자를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와 대중 모두는 다음과 같이 세 번 낭독한다.

"훌륭하도다. 대장부여/ 능히 무상을 깨달을지어다. 속(俗)을 버리고 열반으로 나아가노니, 그 희유함은 사의(思議)하기 어렵 나니라."

이어 교수아사리는 수계자를 데리고 본사(本師, 스승. 대체로 해당 사원의 주지가 스승이 됨) 앞으로 가서 호궤합장하게 한다. 본사인 스승은 삭도(削刀)를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후의 일결(一結, 한 가닥 머리카락)/ 이것을 주라(周羅)라 한다./ 오직 스승만이 능히 끊을 수 있나니,/ 나는 지금 그대를 위해 이것을 제거하고자 하노라/ 그대는 동의하는가?" 수계자가 "가(可)하나이다"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세 번 반복한다.

이어 낙발(落髮)의 게송을 읊는다. "형(形)을 허물어 지절(志節)을 지키며/ 애(愛)를 끊고 소친(所親, 부모형제)과 이별을 고한다./ 출가해 성도(聖道)를 넓히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대중도 모두 소리 내어 함께 복창한다. 수계자는 일어나서 3배를 하고 다시 호궤합장한다

이렇게 하여 정식으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으니 다음은 스승으로부터 가사를 받을 차례이다. 본사(本師, 스승)는 정중하게 가사를 들어서 수계자의 머리 위에 얹은 후 다음과 같은 게송으로 말한다.

"위대하도다. 해탈의 옷이여,/ 무상(無相)의 복전이로다./ 여래의 계를 받들어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대중들도 모두 함께 복창한다. 수계자는 가사를 착용하고 스승과 부처님 그리고 계사에게 각각 3배를 하고 호궤합장한다.

정수리 머리는 수계식서 스승만이 낙발

사미계 후 방장화상에게 오체투지 인사

그리고 또 계사는 말한다. "선남자여/ 불법은 대해(大海)와 같아서 들어 갈수록 더욱 깊어진다. 그대는 이미 출가하였으니 마땅히 먼저 삼귀계와 오계를 받을지어다. 그래야만 비로소 대승(大僧, 비구)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수계자는 "제가 지난 날 지은바 모든 악업은 모두 탐 · 진 · 치로 부터 비롯된 것이며, 신 · 구 · 의(身口意)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일체를 지금 모두 참회하나이다"라고 한다. 이어 삼배를 한 다음 첫 번째로 삼귀계를 받는다. 삼귀계는 삼귀의로서 행자는 계사(혹은 갈마사)가 낭독하는 대로 따라 복창한다.

"불(佛)에 귀의 하나이다,/ 법(法)에 귀의하나이다./ 승(僧)에 귀의하나이다./ 불(佛) 무상존(無上尊)에 귀의하나이다./ 법(法) 이욕존에 귀의하나이다./ 승(僧) 중중존(衆中存)에 귀의하나이다./ 여래, 등정각, 이는 곧 나의 큰 스승이시니, 지금 저는 귀의하였나이다. 지금부터는 불(佛)을 칭하여 스승으로 삼겠나이다. 다시는 사마외도에 귀의하지 않겠나이다."

이상과 같이 세 번 하는데 그때마다 오체투지하고 대중들도 함께 복창한다. 다음에는 오계를 받는다. 갈마사의 낭독을 수계자는 그대로 따라 복창한다.

"이 형체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살생하지 아니한다/ 투도하지 아니한다/ 음욕하지 아니한다/ 망어하지 아니한다/ 음주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5계이다. 그대는 능히 지킬 수 있겠느냐?"

수계자는 능히 호지할 수 있다는 뜻에서 "능지(能持)"라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10계를 받는데 순서와 절차는 앞과 같다. 이후에도 계사의 법문과 부연설명 등이 상당히 많고 절차도 많다.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수계자는 3배와 호궤합장을 반복한다.

행자는 사미계를 받은 후 2~3일 내로 방장화상을 배알하고 오체투지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한다. 또 6두수와 6지사 그리고 승당의 대중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한다.

비구계 수계에 대해서는, 〈선원청규〉 '수계편' 등에 기록돼 있는데, 사미계의 1/10 정도로 아주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비구계를 받을 때는 수계자는 삼의(三衣, 3종류의 가사)와 발우를 새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 새 것이 없으면 기존의 것을 깨끗하게 세탁한 다음 비구계를 받아야 하며,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은 절대 금하고 있다. 의발을 빌려 쓰면 비록 수계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수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미계를 받은 자는 반드시 대승계(비구계,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미는 비구를 만나면 "저는 사미입니다"라고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율장대로 시행됐는지는 의문시된다.

간화선의 거장인 대혜 선사(1089~1163)의 경우, 연보를 보면 16세에 입산해 17세에 바로 비구계를 받고 있다. 율장대로라면 20세 이전에는 비구계를 받을 수 없다. 율장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신뢰 받고 있습니다"

저 '고복자 효사'가 지난 10년에 걸쳐 임상실기용으로 써낸 아래 '육임활용서' 및 '육임CD프로그램'들은 매서운 그 '정확도'와 탁월한 그 '효과성'과 놀라운 그 '귀신 · 사숭 · 산소탈등의 적시'는 이미 검증 되어있습니다. 즉시 활용할 수 있으며, 구입하신 분이 원하시면 '효과성'을 위해 방문 드리겠습니다.

1.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인증 없이 여러곳에 장착됨)
아래 육임활용서 및 각종 오행술의 종합 장착품 – 인증기능을 없애고 여러곳에 장착 시키게끔 되어 있으며 방문자의 속사정들이 순서적으로 화면에 미리 떠 있습니다. 정가 : 450만원

2. 고귀명수 (좌정용 / 휴대용 순별 10일치씩 전6권)
육임 법칙에 의한 내방자의 당면 핵심사는 물론 그의 일생사를 정형화시켜 구구한 해석 없이 즉시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도록 한면 한눈으로 명시 해 놓았습니다. 정가 : 350만원

3. 효사육임산책 (휴대용 / 순별 10일치씩 전6권)
방문자의 당면사들을 고차원단계로 적시해 놓은 2011 개정 증보판 휴대용입니다. 정가 : 250만원

4. 효사육인복변집 (좌정용 / 순별10일치씩 전6권)
위' 육임산책'을 좌정용으로 제본 되어 있습니다. 정가 : 250만원

5. 효사오행제례의식집
방문자의 해당 재액별로 독자적 수법의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매우 탁월한 수법서 입니다. 정가 : 5만원

6. 위 외 다수의 육임 학습서, 활용서, CD프로그램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 대표전화 02)738-868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주식회사 www.taotemple.net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사)대한노인회중앙회
복 지 사 업 단

앞서가는 상장례 선진문화시스템과 불교(상장례)문화를 선도해 갈 뜻있는 각 지역장님, 팀장을 모십니다.

– 모 집 –
1. 덕행이 겸비된 스님
2. 종단 간부스님
3. 조직력을 갖춘 간부 불자님
4. 활동력 있는 재가 불자님

※ 한글염불봉사단, 합창단에서 활동할 분.
장례관리사수강생모집

서울(강북) 일월심 지역장 010-7193-2165
서울(성북) 혜량스님 지역장 010-2898-4264
강원도 총괄 화담스님 011-447-2111
충남(천안) 총괄 청해스님 010-6409-6025
경북(울산) 총괄 만우스님 010-5471-9960
경북(영양) 묘심스님 지역장 017-211-2411
부산 총괄 지우스님 011-9319-0107

* 희망하시는 분은 각 지역 총괄본부로 연락주세요.

전국불교 총괄본부 현 오
02)980-2177, 011-772-2177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한국구술인물사 / 여 익 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⑥

불교운동이 시작된 오대산 월정사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법정 스님이 "거기 찾아가면 자네 얘기를 하면은 될 거다. 그러고 내 얘기를 같이 해라"라고 하길래 소개장을 한 장 써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개장을 받았지. 법정 스님이 소개장을 써 준거야. 그러고 인저 말하자면 효당 스님한테 간 거지(1976년). 그랬는데 "아 거긴(다솔사 효당 문하) 내가 더 머물러야 될 곳은 아닌 거 같아. 그러고 인저 마침 탄허 스님…"

그 스님(현각 스님 등)하고 나하고 의기투합이 됐어. 의기투합이 되가지고 저 "탄허 스님이 천재니까 우리 저 천재를 한번 저거 해가지고 큰 공부하는 회상(會相)을 만들어보자." 이를 산림(山林)이라고 하잖아, 절에서는(1977).

"한 잔씩 먹이는 거야. 송차를. 그러면서 친한 거야 그 때 (화엄산림에서) 친한 사람들이 대불련 지도법사단 했던 사람들이야."

"(탄허) 스님이 주례 서기로 하고(1980)"

발언은 여익구가 효당 스님의 제자로 출가했다가 다시 탄허 스님의 품에 안긴 뒤, 월정사에서 불교운동의 새로운 역량을 잉태하는 시간을 갖은 부분이다. 1980년 환속한 그는 그해 9월 탄허 스님의 주례로 결혼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검거된 여익구는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후 당대의 고승들을 두루 방문해 자문을 들었다. 유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뒤 골목사진. 지금은 사라진 건물 2층에서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창립됐다

신독재에 항거하는 역량을 불교계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인식과 같이 하는 스승들을 찾지 못하다가, 효당 최범술 스님과 탄허 스님의 시대 인식을 읽었다.

이미 민중불교회 사건으로 여익구와 전재성은 검거됐지만, 탄허 스님 역시 당국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대원암 독서클럽은 와해됐다. 당시 탄허 스님은 〈신화엄경합론〉 탈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승으로 추앙받던 탄허 스님의 출판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 때 여익구는 당시 월정사 교무였던 현각 스님(現 원주 성불사 주지) 및 비구니 성일 스님(現 대부도 신흥사 주지) 등과 이벤트를 협의했다.

'화엄산림'으로 불리는 〈화엄경〉 대강좌 법석을 기획하고 전국에 방을 붙였다. 젊은 수좌들이 몰려들었다. 법석은 1977년 겨울 성황리에 진행됐다. 여익구는 이때 수좌들과 친분을 쌓았고, 불교운동을 주제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오대산 솔방울로 담근 송차를 마시면서. 월정사 '화엄산림'에서 인연을 맺은 스님들은 후에 여익구의 든든한 후원을 자처한다.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에 의해 종단과 사원이 짓밟힌 사건이 10·27법난이다. 이 때 여익구는 스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항거하지 못하고 순종이 가져오는 피폐를 역설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스님들의 지지를 받았다. 승가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여익구는 이듬해인 1981년 대불련사무총장에 취임한다. 그 직책은 대불련의 불교운동을 지원하는 담당이다. 여익구는 1977년 당시 화엄산림에서 만났던 스님들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얻어냈다.

황칠명인 구영국 교수의 전통문화산책-1

황칠은 대자연의 근본적인 섭리에 순응한 전통

모처럼 촉촉한 봄비가 아침부터 내리며 만개한 꽃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 바람을 가르며 인사동을 향해 달려가는 빨간 좌석버스의 먼지 낀 차창을 비가 핥으며 종로 길을 바삐 내주고 있다.

한 나라의 태평성대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을 때 좋았고, 한 국가의 건재함은 전쟁이 없으니 좋았고, 한 민족의 행복은 풍요로운 그리고 먹을거리가 풍족한 먹을 곡식이 걱정 없는 풍년 속에서 행복했다.

인간이 대자연을 무참히 파괴해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어처구니없게도 자연의 혜택을 다시 받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너무 이치에 맞는 도리가 아닌 것 아닌가. 지구 중심부에 모든 것을 녹이는 3000도가 넘는 극한 열기가 존재하고, 여러 지형 판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대재앙의 지진과 쓰나미가 지구안쪽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심장 중심부에 뜨거운 전통을 사랑하는 민족적열정과 연민과 사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들 심장 안쪽에 장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원이 가득차고 폭발이 끝나 미움의 판들의 이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인류 문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통이 있게 마련인데 어느 민족이건 간에 자국민의 고유전통이 존재 해 있고, 이 전통은 인류를 심각한 문화의 재난으로부터 구원 할 수도 있고 위험으로부터 인간답게 진화 할 수도 있게 만든다.

언제나 부족한 인간은 순리 앞에 겸손해야 함을 알아야하고, 진리 앞에서 마음이 겸허해야하며 대 자연 앞에서 거듭 숙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치를 진정 모른다면 지구상의 인류는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연현상의 체험으로 그리고 실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은 순리이고 순응섭리현상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대자연 안에 스스로 멍들어 있으며 우리가 저 거대한 대자연을 수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과오적 착각은 이미 옛날에 했어야 했다. 지금은 똑똑하다는 우리 인간군집들이 만들어 낸 문명과 원자력 발전기에 의해서 스스로 파괴되는 파멸의 바람으로 대재앙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진 실제 문화지구의 현실이다. 세상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순리는 현상에 있어서 잘못됨을 끌어들이지도 밀어내지도 않는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상대적 순응이라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며 거를 뿐이다.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뒤집어지면 배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는 배를 내놓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 정을 주고 문화를 주고 소중한 가치의 생명과 혼을 안겨 주면 어떨까? 그것으로 그 사람의 배를 따뜻이 덮어주고 보듬어 주면 안 될까. 그러면 그도 돌아누워 일어나 언젠가는 나와 우리와 전통을 사랑하지 않을까?

1400년 전의 황칠은 이미 우리조상들의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서 200여 년 전 절종됐었지만, 왕실과 궁궐의 귀족공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찬란한 천연 황칠은 지금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연현상이고 순리를 따른 어쩌면 정말 신이 내려준 신비의 나무에서 나온 천연 칠(漆)인 황칠(黃漆)이 대자연의 근본적 섭리에 지극히 순응한 것이라고 필자는 평생을 두고 생각하고 있다. 이 진솔한 이야기의 사실에 지금의 우리가 다행히 조금이라도 행복해 져 가고 있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아닐까 싶다.



백제황칠명인 제1호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㉘ 용문석굴2

신앙이 새로운 옷을 입다



용문석굴에는 다채로운 신앙 표현 돼
밀교, 화엄, 선종 등 불교신앙 총 망라

용문석굴은 측천무후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면서 화려한 석굴의 조영시기를 맞이한다. 봉선사동(奉先寺洞), 만불동(萬佛洞), 뇌고동(擂鼓洞), 고평군왕동(高平君王洞), 간경사동(看經寺洞) 들이 그러하다. 봉선사동이 화엄 신앙의 중국 정착을 보여주는 예였다면, 만불동은 중국에 전래된 다불 신앙의 변천을 보여준다.

1269년에 중국 송나라의 고승 지반(志磐)이 고승의 전기(傳記)를 집대성한 〈불조통기(佛祖統紀)〉에는 만불동 개착당시의 고사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대감(大監) 요신표(姚神表)와 내도량 운선사(運禪師)가 황제와 황후 태자 여러 왕들을 위해 만오천의 불상을 석굴내에 조성하였는데 그때가 영륭(永隆) 원년(680) 11월 30일 완성했다"

만불동의 굴천장에는 이러한 기록이 같이 새겨져 있다. 고구려에서도 다불신앙 〈현겁경(賢劫經)〉이 번역된 후 상당수 조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현겁경〉은 산스크리트 원전은 없으며 티베트역과 한역본이 남아있다. 한역의 경우 3세기 후반기에 축법호(竺法護)가 번역했다.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서도 〈불명경(佛名經; 부처님들의 이름을 기록한 경전류)〉 가운데 매우 이른 시기 번역된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 북위 시대에도 이러한 천불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 발전하다 당나라 시대에 들어와 만불 신앙으로 새롭게 꽃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만불동의 주존불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노사나불등이라고 추정된다. 다불신앙과 주존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앞선 시대에는 신앙의 대상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했기에 불상의 종류를 밝히는 것이 가능했지만 시대가 흘러 신앙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하면서 불상의 종류를 명확히 구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 또한 만불동에는 비구니 발원의 조상기가 새겨져 있는데 이러한 조상제기는 만불동에 집중돼 있는 점도 흥미롭다.

용문산 건너편 향당산 쪽에 조성된 뇌고대동에는 3개의 석굴이 있어 뇌고대삼동이라고 불리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의 해석이 가능하다. 남동의 불상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데 특이하게도 보관을 쓴 불상의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보관을 쓴 불상이 주불로 자리 잡고 있다. 북동의 불상도 보관을 쓴 모습으로 봐서 남동과 비슷한 형태를 지녔던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불상의 모습으로 대일여래상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배진달 교수는 이러한 뇌고대 남동을 주존인 법신비로자불과 화신 석가모니불의 천불(千佛) 도상으로 구성된 연화장세계해를 구현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밀교, 화엄, 선종등 무수한 종파적 성향의 불교가 석굴 속에서 신앙의 형태로 녹아내리고 있는 점은 불교의 색체가 다양해지고 보다 화려한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평군왕동은 연화화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미타신앙이 녹아 있다. 아미타 정토의 세상을 지상에 구현하고 있는 이 굴은 무중규(武重規)에 의해 8세기 초반에 조성됐다. 이렇게 다채로운 신앙의 색채가 용문석굴에 쌓여지면서 불교신앙 또한 보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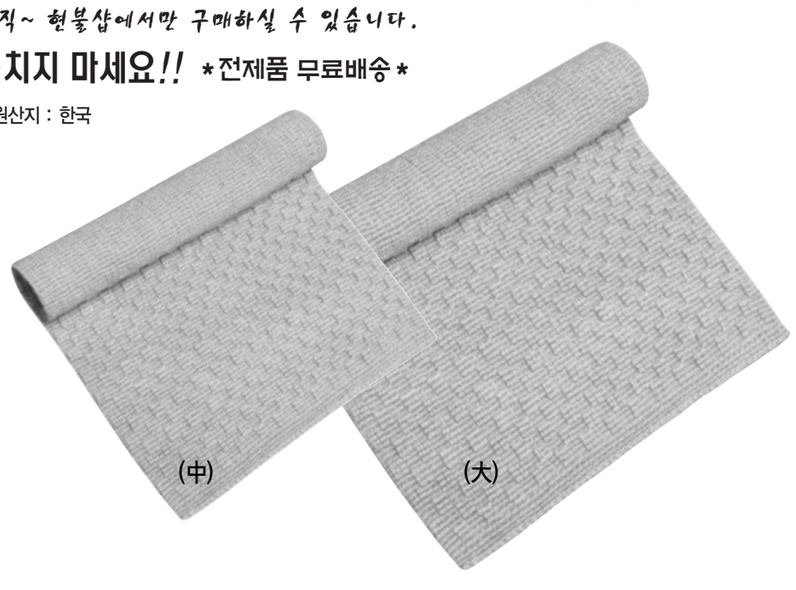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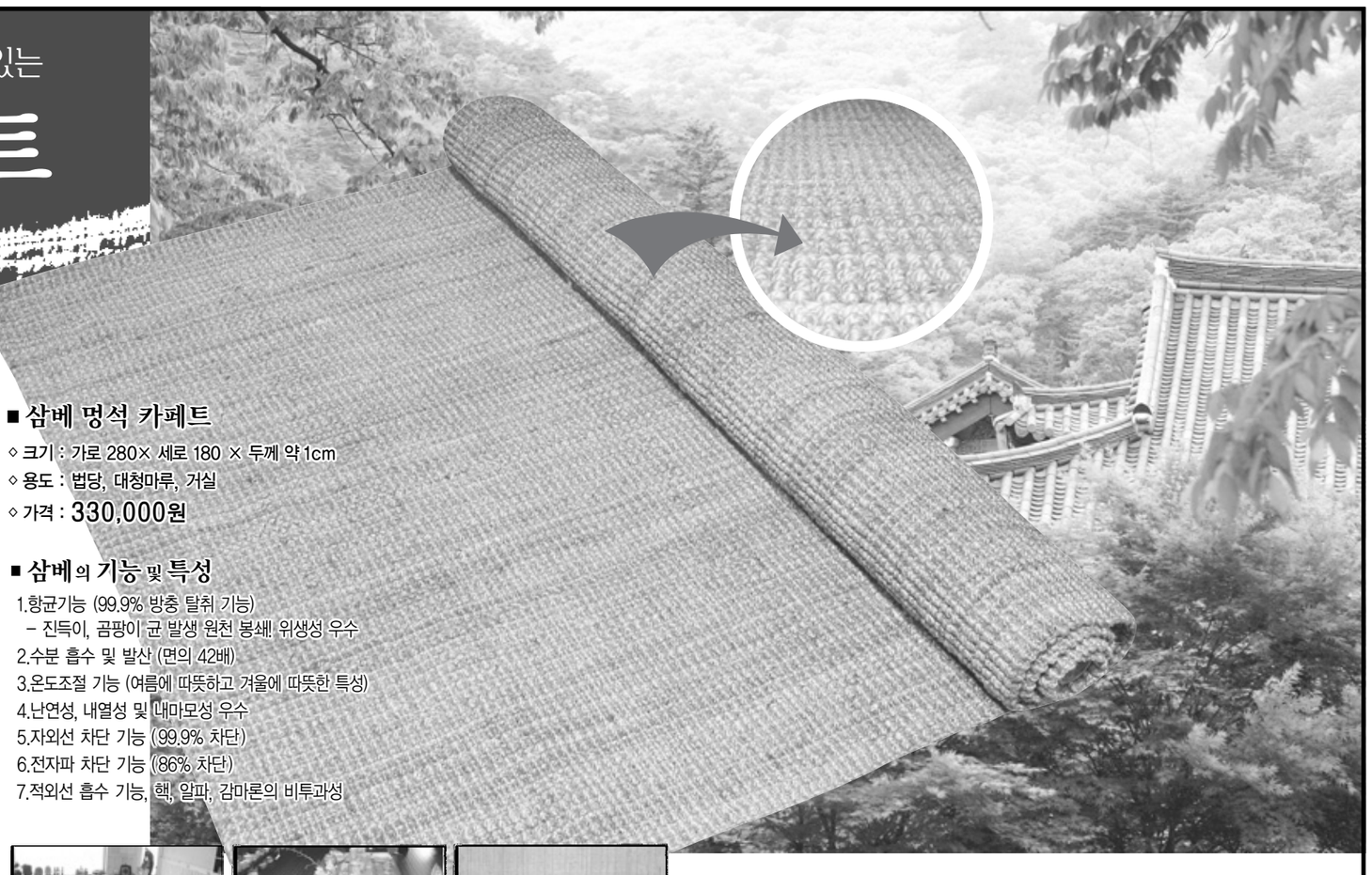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간경화, 치매, 사업성취
각종 난치병 치료보장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 찰 행 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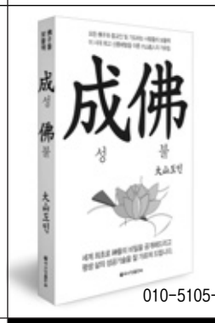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우주 기(氣) 천도재
재물을 차리지 않고 특별한 우주 기(氣)천도재?
1.시공을 초월한 천도재법?
2.목탁,염불을 하지않는 새로운 천도재법
3.빙의치료,퇴마,천도재 전문
4.조상,빙의영가와 직접대화
※ 액운,우환이 많은분 상담
일광사 東禪
011-586-6091
031)321-9555

사주 통변술 강의
사주, 궁합, 택일 등
사주 초보부터 실전까지
비법특강합니다
그룹지도, 개인지도
수시접수
010-8606-6151
현인스님 합장

LA에서 부전하실 스님, 한국에서 부전할 스님 사무실 직원, 공양주 모십니다
042)272-1223
010-5792-3000



전국서점에서 구입(주문)해주세요!!

평생 佛事에 뜻이 있거나 신통가능 또는 神끼가 많은 男女스님, 보살님, 법사님, 초보행자 등 특별한 사람을 찾으니 꼭 연락바랍니다.
成佛책과 운명책 20권씀
남해안 '용궁사' 大山도인스님
010-5105-5000

염 불 과 역 학
1달 속성 완성
승려가 1대1 개인지도
지금 배우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서울)
011-716-3811

수맥탐지 특강
대불정능엄신주기도
가정,회사 방문 상담기도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변비,
가족갈등,결혼인연,
묘지선정,이장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부산, 대구
010-6789-5008

사 업 대 박 !
약사대불 영험도량
개운비법 천도재 점안식
예수재 49재 선박중장비고사
조상령 , 태아령 , 빙어령 등
(각종 불교의식 전문가, 무형문화재 이수스님팀 구성)
東禪 전국(예약시)출장환영
상담문의 010-3563-2566
070-4256-2566 도선

매 각 공 고
법원 등기된
법인 종단양도
법인 불교단체양도
011-412-8040
법광

입 종 안 내
한국불교법화종
위 종단은 50년된 전통종단이며
종단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입종을 안내합니다.
(행사협조, 친목도모, 계첩, 법계증, 사찰등록증, 권익보호와 운영에 관심있으신분 환영)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2 (성불사)
법화종 051)204-8494
총무원 011-885-898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남 김해
011-9514-3721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절을 맡아 운영해 주실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011-9491-9227

빙의 퇴마교육 및 상담
▶ 최면 퇴마, 전생요법
▶ 다양한 방법의 특수빙의 대화퇴마법
▶ 저렴한 비용으로 퇴마 해드림
▶ 실전 명리학 무료강의
031)666-7732
청운사 경담 합장

백가지 병을 고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백병산, 사계절 풍광이수려하고 포근하며 남한강 자락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맑은 공기와삼림욕을 만끽하며 달마대사의 수련법인 기공참선을 통한 심신단련과기도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산사체험을 권장합니다.
수련 031)772-2020
문의 010-4641-5474
대웅사(경기 양평) 주지 일학

불사用 달마도 보급
청암(靑巖)친필 달마도를
불사용으로 저렴하게 드립니다.
인터넷 : www.달마.kr
전화 : 051)202-8770
H.P : 010-2953-8770
청암 달마원 드림

기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도 모십니다
▷ 충남 아산
010-9421-07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창원시내,
55세 이하
011-879-254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871-5330

불심있고 절 일 도울 수 있는 청신녀를 모십니다
숙식과 잡비를 제공함
▷ 부산
011-573-08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기 성남
011-9854-9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279-0024

사 과 문
대승불교 본원종 포교원장 대련 스님 귀하
지난 2011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에 '대한불교본조계종 포교원장 대련' 이라고 광고기재에 본인의 허락이나 승인없이 기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사과하며 다음부터는 광고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 5월 17일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아주 특수한 기도비법
☎ 032)664-0048 / 011-741-0867

청도 한재 미나리 진액
흰 민들레, 강화약쑥
복부비만해소, 고혈압, 수족냉증, 노화방지, 숙취제거, 간질환, 위암, 폐암, 유방암, 항암효과, 변비, 만성피로
60개 1박스 6만원 (스님,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농협 356-0150-1551-73 정승열
지 장 암 010-2367-0200
010-5251-4196 (대명화보살)

약손 활법치유 배우실 분
◐ 혜봉스님 19세때 신명으로 전수 받아 귀신같이 아픈곳을 알아내는 비법
◐ 빙의,심인성질병 병원에서 치유되지않는 업병,신병,무병 치유하는 비법
◐ 전수기간 : 3개월 전수비 99만원 농협 703088-51-013554 예금주 :지장선원
◐ 대상:영적기감,염력,예지력,야손치유법에 관심있는 성직자 일반인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 011-9585-4908
[알콜해독,식욕부진,아토피,주부습진,옴,아르레기,빙의 등에 비방있음]

통증 제거 기술 무료교육
스님들 요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원심수기요법을 배워 활용하신다면,
사찰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심수기는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배우는데도 쉽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원심수기는 침이나 지압도 아니며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도 아닌 우리전통기술입니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연락처 : 한의원 019-305-9138
* 또한 불자님 중에 한의사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숙식제공 가능)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무문관 재가수행자 특별 모집
▶ 입방 후 문 폐쇄 – 하루 한끼 공양제공
▶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기간 : 보름이상 – 자유
▶ 입방 날짜는 개인별로 함 ▶동참금 있음
▶문의 : 054)753-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감포도량 무일선원 무문관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사 찰 건 축 전문
▶ 평생 단 한번의 중요한 일
▶ 불사(佛事)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실행한다면 사찰 內 도량(道場)은 빛날 것입니다.
人 安 고 건 축
031-637-8886 / 063-643-1373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 4개월 : 중급 4개월 : 연구 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 7시 ~ 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 9 ~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5월 25일 (수) 오후 2시
6월 1일 (수)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 초보반 별도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노량진역(1.9호선) 5번출구 동작구청 옆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0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 진주 055) 747 – 8419
■ 수 강 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 명 합장

(사)한국불교조계종
입 종 안 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제방에 계시는 큰 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써 초빙코저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화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25번지
연락처 010-3262-1005

불 자 정 보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진구
- 법당 : 20평
-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2억 7천만원

010-7157-16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 법당 : 17평
- 요사 : 55평
- 부지 : 100평
- 가액 : 3억 8천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5평외 35평
- 요사 : 27평
- 부지 : 218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인천
- 법당 : 50평
- 요사 : 45평
- 부지 : 420평 (사용평수 : 1500평)
- 가액 : 1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온천장 사찰

- 대지 : 3,600평
- 법당 50평(목조 7포 9포)
-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40평 , 주지실25평
- 금정산 솔발 자락
- 가액: 13억

해운대 바다근처 토굴

- 대지 : 56평
- 법당 및 요사, 방 3칸
- 해운대10분거리, 송정바닷가 5분거리
- 정남향, 뒤편 산세 최고
- 총금액: 1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부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가람터 추천

당사가 보유중인 전원주택지. 별장지 중 지세에 밝은 큰 스님이 특별히 절터나 기도원용지로 적합하다고 추천한 다음의 토지를 불자 사부대중께 우선 양도합니다. 공통적으로 남향, 뒤로는 소나무 숲, 앞으로는 탁트인 경관, 포장도로를 접하고 계곡을 끼고 있습니다

1. 경남 밀양시 상동면 1,300평 토목공사 완료 평당 27만원
2. 경남 밀양시 상동면 1,400평 과수원 평당 14만원
3. 경남 양산시 원동면 560평 택지조성 완료 3백년생소나무숲 평당 60만원
4. 경남 양산시 원동면 290평 택지조성 완료 평당 60만원
5. 경남 창녕군 길곡면 1,200평 낙동강 내려보임 평당 60만원
6. 경남 하동군 청암면 650평 토목공사 완료 큰계곡, 평당 38만원
7. 경남 사천시 곤양면 2만 2천평 임야 호수가, 관리지역 약 5천평, 소나무숲 약 3천평 평당 2만

청산전원주택 대표 중산 010-3872-035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1평 (4층) 법당, 친견실, 삼존불
- 5층 : 주택 약 30평 큰방 4, 공양간
- 시설비 : 상담후 절충 현재 법회중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010-4840-393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 3층건물중 3층(46평)
- 시설완비,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월40만원 시설비 3천만원(조정가)

010-2083-9992
010-2608-355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우포늪
- 대지 총 : 320평
- 법당. 조립식 24평
- 화실 24평(탱화제작)
- 요사, 적벽돌기와 27평, 황토방 4평, 석탑1기
- 가액: 1억 8천만원(절충가)

010-6582-2848

사 찰 안 내

- 경남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산 1-1
- 대지 : 1,000평
- 건평 : 150평
- 요사채 : 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접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산 1-1
- 대지 : 1,000평
- 건평 : 150평
- 요사채 : 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접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최고의명당 사찰터안내

- 위치:상주화서IC 4km
- 5,000평 (전1,700 임야3,300평)
- 포장도로접 관리지역
- 가액: 5억

043)288-1579
010-4467-8305

사찰(급)안내

- 경북 김천시(시내에서 7분거리)
- 대지 171평,건물단청, 수미단, 영단
- 법당, 종무소: 1,2층 각 20평씩 1동
- 요사채:1,2층 각 30평씩, 방6개, 1동
- 마을옆 산아래 물이 흐르는 도량
- 주차공간 넓고, 텃밭도 있음
- 가액: 1억 9천만원(융자1억포함)
- 새로 불사접안을 하실분에 한함

010-7144-006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장
- 평수 : 약 40평
- 방2개, 창고2개, 주방, 욕실
- 2층 건물에 2층, 에어컨 3대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 모든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011-9317-6686

토 굴 안 내

- 위치: 창원시 의창구 용전마을 뒤
- 건물 2채, 인법당, 입식부엌, 방3칸
- 텃밭 50평
- 가액: 4년 임대료 1,000만원

011-9393-4965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 북구 천곡동
- 대지 : 총평수 4800평
- 대웅전 법당(목기와)
-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대형건물시설(6층)
- 건물 총평수 : 약 1400평
- 가액 : 60억(은행융자20억)

017-511-0074

멋진토굴 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 건평, 사용평수 70평이상
- 황토기와집 1동(올수리)
- 조립식 3동
- 가액 : 1억 3천만원(조절가능)
- 노후대책, 방사많음

010-5572-1501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 계룡산 동학사 입구 관광지 대도로앞
- 임대 전 월세 가능
- 평수 50평, 1, 2층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50만원
- 전세 : 2억

010-3440-9682

암자(급)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유구 앞에는 물 뒤에는 금계산
- 대지(210)이지만 400평이상 사용
- 건평 150여평 큰방 5개, 큰거실1, 종무소20평1 • 법당 20평 별채 1동
- 비구니스님이나 철학인이 살기 좋아요
- 읍내와 (자)1분거리
- 주변 조용, 행정도시 20분
- 가액 : 3억(절충가능 주인직거래)

010-9468-4235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이용
- 2층 법당 20평,실평수 35평
- 방1, 화장실1, 방1 시설완비, 주차2대
- 남향, 북산산 보이고 공기 좋고 조용한 주택가
- 비구니스님, 보살님 원함
- 보증금 3000만원, 월 100만원

010-5206-2066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충남 행정도시에서 20분거리
- 평수 : 420평
- 도로, 전기 되있고, 옆 계곡, 청정지역

011-753-0768

사 찰 안 내

- 충남 공주시 유구읍 연종리 21-6번지 세종시에서 40분거리
- 임야 840평, 대지 종교용지 683평, 전 150평- 계 1673평
- 대웅전,목조 , 외5포, 내7포, 설선당, 삼성각,석굴암,기타참고 해우소등
- 2006년 신축 경관 화려
- 가액: 6억 5천

041)551-8672
011-9413-804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근교 (4호선 당고개역 이용)
- 평수 : 70평,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에 3층
- 법당,방3,사무실1,공양간,욕실,창고
- 심존불및후불,산신 칠성탱화
- 지장, 관음, 호신불 각 108위
- 보증금 2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꼭 하실분 전화 상담

010-3422-257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자락
- 건물: (3층 단청) 100평
- 대지 230평
- 가액: 4억 5천만원

010-8640-66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 법당 19.5평
- 시설: 인등 198, 영가 인등 550개
- 보증금 5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주차완비, 시장편리
- 법사스님 일반포교 가능

010-9755-300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 평수 : 71평
- 방4개, 거실, 법당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상가건물 2층
- 가액: 전세 8천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8-287-2655
032)666-6692

포교원안내

- 위치 : 최상의 장소 (부산구포시장 입구)
- 완벽한 시설 (2층 건물 2층 60평, 옥상 사용)
- 저렴한 임대료
- 가액: 2천만원에 월 3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5대 주차가능

010-9611-03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 5거리
- 3층건물 2층, 법당 42평
- 삼존불, 산신, 각탱화, 돌상한분, 소불 270불(지장, 관음)
- 위치 최상, 깨끗한 동네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집기류일체

010-2224-89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지장보살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입구
- 평수 63평
- 법당 25평, 산신2평, 요사채 20평, 주방 10평, 스님방 3개
-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자항과 관광이 모이는곳 사찰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는 형편맞게 결정

011-831-73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감천1동, 최고 큰도로변
- 대지 50평, 법당 15평
- 요사채 10평, 공양실 방2, 화장실1, 별도 화장실1
- 가액: 2억 (전세 5천에 삼십만원)

010-7280-880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 대지(임야포함) : 5500평
- 법당14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 28평 총47평
- 가액 : 2억5천만원

010-8561-316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차탁
- CCTV. 대용량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4억 3천만원(대출 1억 3천만원)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787-666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8천만원

011-816-9104
010-3815-9104

사 찰 안 내

- 경기도 안성 시내 최고 중심지
- 3층건물 전체 약 20평
- 1층 : 친견실 및 공양간
- 2층 : 법당,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영단, 원불 외 모든 시설 완비
- 3층 : 요사채
- 가액: 2억 5천만원
- 불사 관계로 급 양도 함

010-8678-0520

경관좋은사찰, 토굴터

- 위치: 경남 합천읍 용계리 읍내에서 차로 10~15분 거리
- 답, 임 793평 남동향, 시멘트 포장도로 접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경관
- 만대산 7부능선, 건축 허가가능. 전기 무
- 가액: 3,900만원(절충가능)

010-9367-1010

영천 토굴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외관 중간
- 평수: 준농림 2850평
- 법당, 요사 70평
- 주차장 300평
- 가액: 2억 8천만원 전세도 가능
- 경관과 전망이 너무 좋음

010-3131-109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용성리
- 대지 200평, 바로 뒤에 산
- 임법당 1동, 산신각 1동
- 방4, 창고1, 공양간, 보일러실, 샤워실
- 가액 : 6천만원

010-7377-35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산밑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 인연되시는 스님에게는 정말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5054-6782

사찰(급)전세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 대지 : 110평
- 법당, 산신각, 공양간 방 大 3개, 용왕각
- 마을 뒤편 산세 수려 계곡 접
- 전세 5천만원, 시설비700만원

010-5504-9085
010-6540-2584

도심사찰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평수 : 총 120평
- 3층: 90평, 법당 45평 방5, 화장실4, 후원 및 주방
- 4층: 30평 요사(대중살림가능)
- 시설 A급 모든시설완비, 현 법회중
- 삼존불, 후불, 인등 300등, 관음원불 108불, 삼성각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011-679-1080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 댐과 지방도로 인접
- 별장 및 굿당 최고적합
- 리모델링 완벽 • 요사채 2동
- 대지(등기상)1500평 실평수 2,000평
- 가액: 2억 9천만원

011-369-415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1동
- 부산 진역 지하철 5분거리
- 총평수 : 70여평
- 법당 40평, 요사채(별채)30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0-2326-2176

암자안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 계곡 좋은 기도처, 산중 마지막 암자
- 상시 기도 손님 많음
- 전체 630평, 대지 300평
- 건물 40평, 굿당1칸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55)973-2333
010-9318-2247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1,2번출구에서 1분거리
- 35평정도,
-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70만원
-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9472-757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 대지(임야포함) : 5500평
- 법당14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 28평 총47평
- 가액 : 2억5천만원

010-8561-31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 -412-246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 대지(임야포함) : 5500평
- 법당14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 28평 총47평
- 가액 : 2억5천만원

010-8561-31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소재
- 평수 1,300평 시설완벽
- 주차시설완벽, 관광지 시내인접
- 가액 : 4억 2천만원

010-5224-6239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안내

- 위치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외관 근교
- 평수 약 510평, 산밑 잔듸마당
- 법당 25평 목조단청 산신각 단청, 요사채 2동
- 가액 : 4억 3천만원
- 융자 4천포함(가액조절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 인연되시는 스님에게는 정말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5054-6782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
- 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3억 2천

- 위치 : 경남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전각 5채
- 가액 : 32억 5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현동 (최요지) 전철 3분, 시장 2분 거리
- 부지 130평, 건평150평/ 주차 7~8대 가능
- 1층 50평 큰방1개, 큰거실1개, 큰공양간
  2층 대웅전, 방1개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개, 다실 별도
  2,3층 베란다 사용
- 가액 : 7억 8천만원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7-572-371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지장보살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사찰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정자동 정자항 입구
- 평수 63평
- 법당 25평, 산신2평, 요사채 20평, 주방 10평, 스님방 3개
- 동해 바다가 보이고 정자항과 관광이 모이는곳 사찰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는 형편맞게 결정

011-831-73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감천1동, 최고 큰도로변
- 대지 50평, 법당 15평
- 요사채 10평, 공양실 방2, 화장실1, 별도 화장실1
- 가액: 2억 (전세 5천에 삼십만원)

010-7280-880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백산리
- 대지(임야포함) : 5500평
- 법당14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 28평 총47평
- 가액 : 2억5천만원

010-8561-31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1동
- 1층건물 3동 (방 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1억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 -412-246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 실등기 5000평)
- 대지(종교용지)약 700평 어떤행위던 허가 나는 준보전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4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3억 8천만원

011-816-9104
010-3815-910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소재
- 평수 1,300평 시설완벽
- 주차시설완벽, 관광지 시내인접
- 가액 : 4억 2천만원

010-5224-6239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주택안내

- 위치 : 인제원통 터미널에서15분거리. 산중턱
- 전원주택겸 토굴로 사용가능
- 마당까지 차진입가능
- 이중 흑벽돌, 심야보일러
- 총 1,400평, 대지 300평
- 건평 25평, 밭 잘가꾸어져 있음
- 앞에는 큰강 산세 수려
- 가액: 3억 3천만원(가격절충)

010-3337-9736

이유가 뭐든 우리한테 이러는 건 아주 웃기는 짓이라고!

수리아의 검-Ⅲ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2)



삽화 · 김흥인

"휴. 이제 숨 좀 돌리겠네."

난다가 숨을 고르며 구부러진 허리를 폈다.

"진짜 이 정도 속도로 계속 뛸 수만 있다면 굳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필요 없겠어."

"이 정도라고? 아까 네 무거운 책들 때문에 칸타카가 홀랑 다 탈 뻔 했어. 분명히 말해. 칸타카가 정말 하늘을 나는 말인 거 맞아?"

난다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칸타카가 '암리타의 말' 이라면 하늘을 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날지 못하는 걸로 봐서는 확신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답 대신 짐짓 딴청을 피우다 괜히 마을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한창 저녁때인데 연기 나는 굴뚝이 하나도 없어."

무니 역시 집들이 모인 쪽을 내려다봤다. 집집마다 꼭꼭 잠긴 문, 인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람이 안사는 마을인가."

"그건 아니야. 저기 봐, 옥수수가 열 맞춰서 자라고 있잖아. 저건 관리 받는 옥수수라고."

난다가 가리킨 쪽에는 진짜 잘 가꾼 옥수수 밭이 보였다.

"정말이네. 그런데 아직 따 먹을 때는 아닌 거 같다. 그나저나 옥수수 보니까 배고프다. 그렇지, 칸타카?"

칸타카가 하얀 꼬리를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었다. 무니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확실히 요즘은 아무래도 먹는 거에 비해 힘을 너무 쓰는 거 같다니까. 칸타카, 우리 뭐 먹을 것 좀 찾아볼까."

마을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파악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한 난다와 달리 무니의 모습은 천하태평이었다. 결국 무니는 "옥수수는 덜 익어서 안 되겠고…"라고 혼잣말을 하며 어둑어둑한 풍경 속으로 사라졌고, 칸타카 역시 그런 그를 어슬렁어슬렁 뒤따랐다. 하지만 난다는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마을의 모습은 평범했다. 무니와 난다가 살던 마을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뒷산을 배경으로 비슷비슷한 모양의 가옥들이 모여 있었고, 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는 이런저런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 주변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판자 혹은 짚으로 올린 지붕 아래에는 조그맣게 각자의 집에서 생산하거나 팔 수 있는 물건을 그려놓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낡긴 했지만 분명 잘 손질된 상태였다. 확실히 이상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돈된 모습인데, 어째서 인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걸까. 난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보라색이었던 하늘이 점점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무니는 어디에 간 거야?"

난다는 주위를 둘러봤다. 무니는 어떤 집 마당의 큰 나무 밑에 칸타카와 나란히 앉아있었다. 이미 어디선가 먹을 것을 구해온 모양이었다. 난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뭐하긴 뭘 해. 여기 무화과나무가 있더라구. 거기 멍하니 있지 말고, 너도 와서 좀 먹어. 그럭저럭 달아서 먹을만해."

하늘이 어두워질수록 불안감도 짙어지는 걸 느꼈지만, 난다도 허기를 어쩔 수는 없었다. 그는 무니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주인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무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으로 껍질을 탁 내뱉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없잖아. 그렇지, 칸타카?"

칸타카는 이번에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결국 과일을 받아든 난다는 또 다시 주위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불을 밝힌 집은 한 채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 감돌던 적막감이 더 짙어진 느낌만 들 뿐이었다.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난다는 잠깐만 쉬다가, 마을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다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화과를 실컷 먹은 무니가 금세 곯아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마을을 떠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난다로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심상치 않은 마을 분위기를 비롯해서 낮의 그 산불은 왜 났던 것이며, 찾으려했던 검 조각을 이제 어디서 찾아야할 지, 당장 내일부터가 걱정이었지만 이럴 때는 '일단 잘 수 있을 때 자두자'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수밖에는 없었다.

바람이 솔솔 불어 들어왔다. 무니는 그 바람을 타고 콧속으로 스며드는 달콤한 향기에 입맛을 다시며 잠에서 깼다. 반만 뜬 눈으로 킁킁거리며 냄새가 나는 곳을 찾던 그는 어젯밤 코 밑에 묻은 무화과 냄새인 걸 알고는 혀로 살살 핥으며 잠시 맛을 음미했다. 그러다 눈을 뜨니 나무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셨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니의 잠이 확 달아났다.

"여기가 어디지?"

무니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헛간처럼 보이는 공간 구석에는 아직도 단잠에 빠져있는 난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칸타카가 보이지 않았다! 무니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밀어보았다. 바깥에서 잠긴 것인지 열리지 않았다. 더욱 힘을 줘 덜컹덜컹 문을 밀어봐도 마찬가지였다. 그 소리에 난다 역시 눈을 떴다.

"야. 일어나자마자 뭐해. 시끄럽게." 그래도 무니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문을 열기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필사적이었다. 난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완전히 낯선 공간에 난다와 무니, 단 둘 뿐이었다.

"칸타카가 없어. 내 마법가방과 책들도."

난다는 불현듯 생각나서 허겁지겁 허리춤을 살폈다. 수레바퀴도 사라지고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난다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때, 아무리해도 열리지 않는 문을 등지고 서 있던 무니가 말했다.

"우리 갇힌 게 분명해. 그럼, 이거 감옥인 거지?"

난다는 그의 얼굴이 마을을 떠나야했던 날 이후로 가장 어두워 보인다고 느꼈다.

"난다. 이거 꿈이겠지? 꿈이라고 말해줘."

무니는 난다를 간절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난다는 그런 친구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무니는 문에다 다시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난 갇히는 게 제일 싫어, 싫다고!"

"그런데 우리 왜 갇힌 거지? 누가 우릴 가둔 거야?"

난다의 그 말에 무니의 발길질을 멈췄다. 창 밖에서 들어오던 눈부신 햇살이 구름에 가려졌는지 순식간에 짙은 그림자가 그들을 둘러쌌다. 두 소년은 감옥인지 헛간인지도 분명치 않은 곳에 멍하니 선 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콧노래 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그들이 있는 곳과 서서히 가까워졌다. 무니와 난다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러나 흥얼대던 그 콧노래 소리는 바로 끊기고 말았다. 난다는 고개를 갸웃했다. 문 앞에 귀를 바짝 대고 있던 무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이었다. 문이 활짝 열리며 햇빛이 환하게 쏟아졌다.

"하필 촌장네 무화과를 훔쳐 먹은 재수 없는 녀석들이 너희냐!"

느릿느릿하지만 장난기 있는 말투였다. 두 사람이 갑작스런 눈부심에 눈살을 찌푸리고 바라본 쪽에는 키가 아주 커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다.

그들이 그 남자에게 이끌려 마을 광장에 도착했을 때, 칸타카는 어젯밤 그 나무 밑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굵은 줄에 묶여서 어떤 소년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까만 피부의 그 소년은 작은 눈과 납작한 코에 꽉 다문 입만 어울리지 않게 커서 고집에 꽤 세 보였다.

"왜 내 말을 묶어둔 거야!"

무니가 소년을 향해 외쳤다. 잡혀있는 칸타카를 보자 꾹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한 것이다. 무니 자신도 칸타카를 그런 식으로 구속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칸타카는 그 잘난 무화과 하나도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풀어줘. 풀어주라고!"

무니는 발버둥 쳤다.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나온 남자만 힘들게 할 뿐, 칸타카와 마찬가지로 묶여있는 상태에선 별 소용없는 짓이었다. 반면 난다는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태를 가늠해보느라 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참이었다. 고작 무화과 몇 개 따 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다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게다가 어젯밤 마을에서는 분명 어떠한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것일까. 난다는 한층 더 심하게 발버둥치고 있는 친구를 안타깝게 쳐다봤다. '얼음의 성' 이라는 곳에 갇혔다 나온 이후로, 저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게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무니에겐 소중한 칸타카였다.

"남카. 그 말을 풀어주려무나."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카라고 불린 그 검은 피부의 소년이 명령에 따라 칸타카를 풀어주었다. 자유의 몸이 된 칸타카는 바로 두 소년 쪽으로 달려갔다.

"그래. 말은 풀어주지. 그런데 너희들은 정말 단지 내 집의 물건을 훔쳐 먹어서 이렇게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그게 아니면 뭔데! 이유가 뭐든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건 아주 웃기는 짓이라고!"

난다는 여전히 흥분해서 소리치고 있는 무니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올려다봤다.

"당신이 그 촌장님인가요?"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슴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시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청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웅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가마속에 5일간 껍질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❻

대미산과 소미산



의재 허백련의 화중군자. 소치의 아들 소미산 허형은 근대 남도 화단 최고의 대가인 허백련을 가르쳐 남종화의 진수를 전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5대 넘게 화맥을 이어온 남도화단의 가문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가문은 양천 허가인 교산 허균(蛟山 許筠; 1569~1618)의 자손인데, 광해군 때에 박해를 피해서 진도까지 피난해 간 이의 자손이라 한다. 이 가문이 바로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애제자이며, 초의 선사(草衣禪師)에게 불교를 공부하고 다산 정약용과 교류를 이어간 조선 후기의 불우한 왕인 헌종(憲宗)의 총애를 받았던 소치 허유(小癡 許維; 1807~1892)가 일으킨 남도화단의 명문가이다.

소치선생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다. 맏아들인 미산(米山) 허은(許澱)은 뛰어난 화재(畵材)를 지니고 있었으나 병약해 19살의 어린 나이로 병사하고 만다. 자신의 대를 이어 화맥을 전수해줄 맏아들을 잃은 소치는 한동안 술과 가무를 벗삼아 한탄하며 세월을 지내고 있었다.

다른 아들들에게서는 별다른 재주를 발견 못해서인지, 집에 여러 제자들을 들여서 화숙을 운영하면서 그림을 가르치던 소치는 한동안 별다른 희망 없이 살아간 듯 했다. 후에 맏형인 허은의 호 미산을 물려받은 넷째 아들 허형(許瀅; 1862~1938)은 기록에 의하면 마치 하인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집안일이나 거드는 신세였다고 한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소미산 허형은 어릴 적에 마마를 앓아서 얼굴마저 곰보였다. 때문에 당시 최고의 멋쟁이였던 소치선생의 눈 밖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당시 화숙에서 머물던 소치의 제자 중에 호인지 이름인지 알 수 없는 성명을 가진 남전(藍田)이란 제자가 있었다. 이 제자 덕에 소미산은 형을 이어 화맥을 이었고, 남도화단에서 지금까지 융성해 한국미술사를 풍요롭게 하는 기연을 마련했다.

소치선생이 외출하고 없던 어느 날, 제자인 남전은 소치의 채본을 벽에 붙여놓고, 열심히 묵모란(墨牡丹) 그림을 연습하고 있었다.

소치의 묵모란은 이미 그 품격이 정평 나있었기에 남전도 멋진 묵모란을 그리고 싶어 열심히 연습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하인처럼 취급받던 허형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남전이 그리고 있던 붓을 뺏어들고 화선지에 묵모란을 떡 하니 그려놓고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다.

몇 시간 후,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소치선생이 제자인 남전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허형이 그려놓고 나가버린 묵모란 그림을 발견했다. 소치선생은 탄복하면서 남전에게 "네 묵모란 그림이 이제 품격을 갖췄구나"라고 칭찬을 하자, 남전은 "허형이 그린 것"이라고 답했다. 소치선생은 이후 하인처럼 일만 부리던 허형을 불러다가 목욕을 시키고, 명주옷을 해 입히고, 그림을 가르쳐서 소치 가문의 대를 잇게 했다.

소미산 허형은 소치의 고매한 필치를 모두 물려받지는 못한 까닭에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근대 남도 화단 최고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1891~1977)을 가르쳐 남종화의 진수를 전하도록 한 그의 업적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5대 넘게 화맥 이은 명문 출신 허유
헌종의 총애 받으며 남도화단 일으켜

재미있는 것은 의재 허백련의 제자 중 판소리에 뛰어난 구한말의 기생이며, 전주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인 행원을 운영하고, 국전심사위원까지 역임했던 남전 허산옥(1926~1933)의 호가 소치의 제자였던 김남전과 이름이 한자까지 일치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인사동에서 30년 넘게 화랑을 운영하던 분이 100여 년이 넘은 장지에 멋진 묵모란 그림을 보면서 "남전 허산옥의 그림"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미소만 짓다가 나왔다.

종이의 연대가 허산옥이 태어나기 전의 연대이긴하나 호가 한자까지 같으니, 그리 생각할 수 밖에는 없는 듯하다.

최근에 남전 허산옥의 예술의 경지로 승화된 삶이 만화로 그려져 네이버 웹툰에 '권번기생 비밀의 기억'을 타이틀로 연재됐었다.

권번기생에서 판소리의 대가로, 사군자와 화조도의 대가로서 전주 최고의 한식당 행원을 운영하며 당대의 예술가들을 제접했던 남전 허산옥을 일생을 틈나시면 읽어보시길 빈다.



동화사 포교국장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73 좋은날

아누룻다가 게송을 읊었다. 무위(無爲)에 머무시는 부처님 / 나고 드는 숨결 멈추시도다 / 본래 적멸에서 오신 부처님 / 신비로운 광채 이곳에서 거두시도다 /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80년이 되던 해, 깨달음을 이루신 후 45년 되던 해, 기원전 544년 2월 15일. 그로부터 아득한 시간이 흘러 그 때의 이야기는 어두운 중생의 마음을 밝히는 데 제일인 이야기가 됐다.

며칠 전 부처님오신날이었다. 해마다 좋은날이다. 연등도 달고, 꽃비도 내리고 부처로 태어난 모두가 2500년 전으로 돌아가 부처가 되는 날이다. 우리 모두는 부처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오늘도 어두운 길에서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어두운 길 끝에 분명 부처가 기다리고 있음 알기에 오늘도 그 어두운 길을 간다. 그 부처를 만나는 날, 그 날이 2500년 전의 그 날이다.



편집국 사진부 차장

한국의 **선시감상**⑩ **조선 정관일선 선사의 '유은선우음(留隱仙偶吟)'**

내 마음이 곧 부처

佛在爾心頭 (불재이심두)
時人向外求 (시인향외구)
內懷無價寶 (내회무가보)
不識一生休 (불식일생휴)

부처는 단지 마음에 있건만
때에 사람들 밖을 향하여 구하네.
안으로 가없는 보배를 품고도
일생동안 쉴 줄 알지 못하는구나.

정관일선(靜觀 一禪; 1533~1608) 스님이 은선암에 머무르며 지은 이 시는 참다운 불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찾아 헤매는 중생의 전도(顚倒)된 생각을 읊고 있다. 기구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심즉시불(心卽是佛)의 법을 드러냈다. 승구는 그러함에도 사람들이 밖을 향하여 부처를 찾고자 하는 전도된 모습을, 전·결구에서는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 가운데 다섯 번째 의리계주(衣裏繫珠)의 비유를 들어 법을 밝혔다.

〈법화경〉 내용은 이렇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친구의 집을 찾아 하룻밤을 지내며 진수성찬 대접을 받고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 이때에 부자인 친구가 바쁜 일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배구슬을 가난한 친구의 옷 속에 달아 주고 떠났다. 가난한 친구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걸식하여 조금만 얻어도 만족하였다. 뒷날 부자인 친구를 다시 만나 옷 속에 구슬이 있음을 알게 되고 가난한 친구는 부자가 되어 재물로써 즐거움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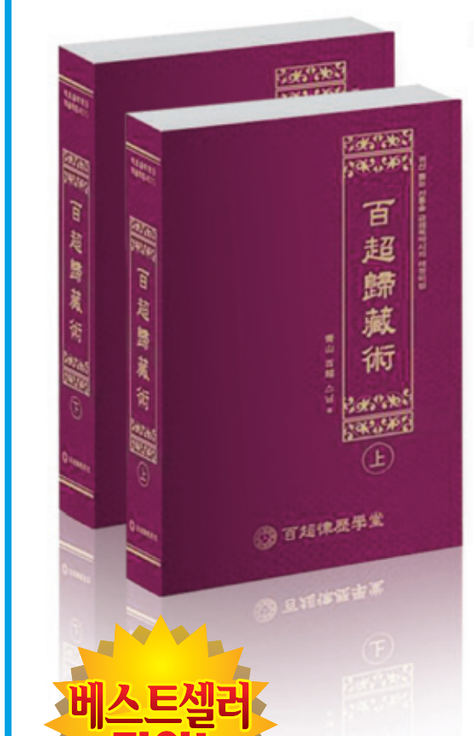
부자는 부처님에, 가난한 이는 중생에, 무가보는 일승에, 조금의 만족은 작은 열반에 비유한 이 내용은 사람은 본래 무가보와 같은 부처님이므로 각각의 마음 보배를 잘 운용하여야 함을 설한 것이다.

이 시는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내 자신이 무가보임에도 밖에서 부처를 구하려는 중생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경이 전편에 짙게 흐르고 있어 스님의 자비심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부처님오신날이다. '내 마음이 곧 부처'라고 우리 각자에게 수기를 주신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밖으로만 도를 구하고자 하는 전도된 내 생각을 쉬어 보자. 그 자리에는 그대로 무가보의 법등(法燈)이 밝혀져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할 것이다.



원법 스님(성균관대 문학박사)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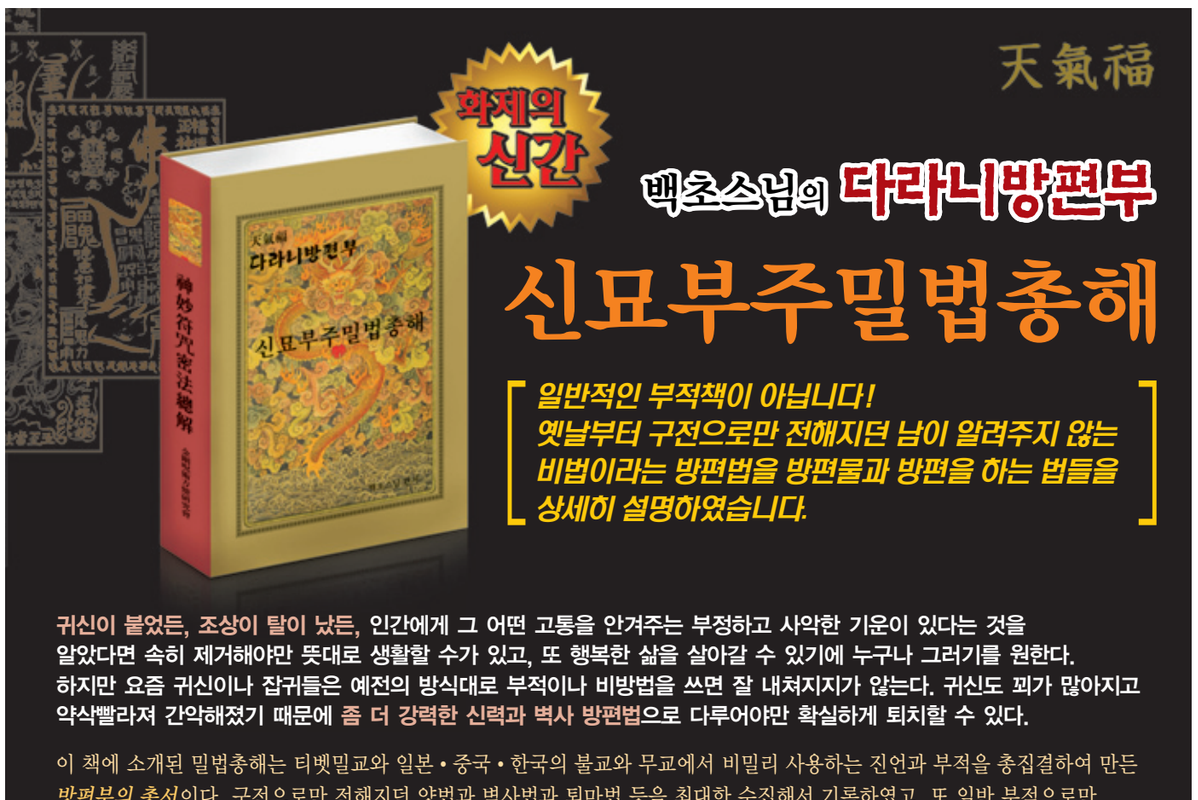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입금계좌 농협 023-02-500940 예금주 : 임현주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대행 스님

이 세상 모든 만물만생이 근본에 따라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림 · 최주현

대구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죽고 살고 하는 이 도리가 바로 부처님 도리입니다. 우리 삶을 떠나서는 부처님 법도 없을 것이고 우리 자체가 없이는 부처님도 없을 것입니다.

'불(佛)'이라 하는 것은 일체 생명의 근본이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敎)'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서, 또 통신과 통신으로 통신을 하면서, 말과 말로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佛敎)라는 그 단어는 전체 삼천대천세계가 돌아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목탁을 치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 전체, 생명이 있는 것, 움죽거리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다 불교인 것입니다.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것만이 불교가 아니라 전체, 곤충 한 마리의 생명도 생명이 있으니만큼 불이요, 지수화풍도 불이요, 모두가 불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불교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마음으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 달리 종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불자로 하여금 광대무변하며 더하고 덜함도 없는 이 진리 자체가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마음을 넓게 써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고정됨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고정되게 보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깎은 것은 이 세상만사가 천자만별로 고정됨이 없이 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무명초라고 해서, 그릇을 비운다는 뜻에서 다 깎아 버린 겁니다. 승복이라는 것은 순색을 표현한 것으로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고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뜻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귀중한 옷인지 얼마나 귀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돌아가고, 과일나무도 10리 안팎으로, 아니 20리 30리라도 서로 말 없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체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를 모시면서 말로만 그르니 옳으니 시비를 해서야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마음과 마음의 전달로써 자녀들과 부모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을 합디다. 자식이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나쁜 일만 저지르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일러 줬습니다. "말로다가 몸을 붙잡으려고 하고 몸으로다가 몸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붙잡아지지 않는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바로 이 세상만사가 다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 그러니 우주간 법계가 다 그렇게 같이 상응하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라. 아들이라고 알고, 부모라고 아는 생각이 바로 가설되었다는 것이다. 가설이 돼 있으니 내 주인공에 맡기면 함께 돌아가게 된다. 즉 말하자면 내가 있음으로써 바로 불이 들어올 수 있고, 불이 켜질 수 있고 불이 꺼질 수 있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생명의 근본이 둘이 아니듯이, 전력이 둘이 아니듯이, 금속이 둘이 아니듯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니까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전력이나 금속을 끌어 쓰는 데에 달렸다. 모든 것은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다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할 때 비로소 아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바로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서 밝게 살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 드렸죠. 그랬더니 마음으로 그대로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모든 거를 따뜻하게 해 주면서 안으로 놓고 굴리고 하니까 너무 착해졌답니다.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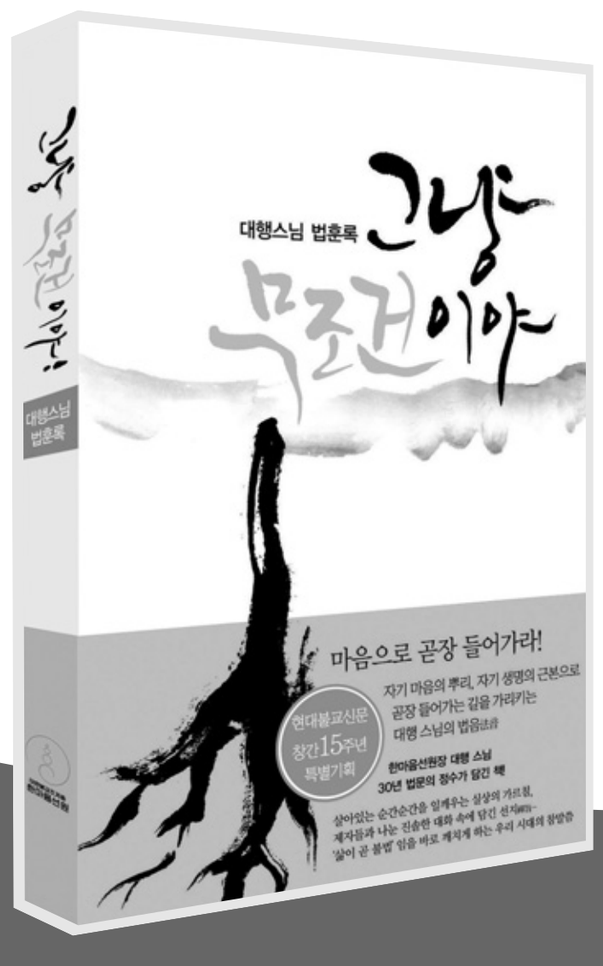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살림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본과 마음을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같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또 먹고 삽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 이것이 항상 우리들한테 재료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재료로 주어져 있으니 마음과 마음이 삼천 년 전이든 삼천 년 후든 언제든 전달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8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어떤 분들은 4월 8일에만 부처님이 오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한 그 마음속에는 항시 부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네 가지 재료가 다 있다고 그랬죠?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 광력이 전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고요. 주어져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한 바구니에 담긴 꽃다발 하나라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다 꿰뚫어서 맛을 알고 보고 감촉하고 그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로 합쳐 여러분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 나투면서 응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 보지 않아서 맛을 모르는 것은 생각도 나지 않듯이, 중생들은 마음을 널리 내려야 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을 널리 내시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아니 되시는 게 없고, 어느 모습 하나 부처 모습 아닌 게 없고, 어느 자리 하나 부처 자리 아닌 게 없고, 어느 생명 하나 부처 생명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생각으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을 다 내 마음 아닌 게 없이 나투시는 데 대하여, 내 몸 바깥을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저 기도나 하고 이러는 게 부처님 법인 줄 아시고 칠성 찾고 독성 찾고, 또 약사 찾고 지장 찾고 이렇게 갈갈이 나누어서 찾는데 말입니다,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나 한 어머니가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내 마음속에 나를 끌고 다니는 자성부처가 있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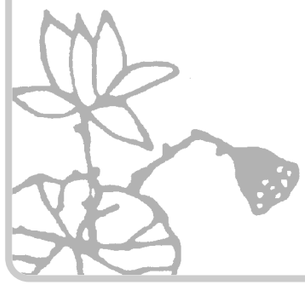
자동적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자동적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때에 따라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되고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뜻과 말과 행이 화해서 바뀌지면서 생활을 여여하게 해 나가듯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놓고 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 부적을 안 하면 이사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 자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여러분의 관습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봅니다. 이제는 개선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 한생각을 잘 돌린다면 너무도 광대무변한 도리에 의해 밝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법이며 우리들의 자유스런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책을 봐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생각을 해 뒀다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서 여기 들어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이 서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그릇이 무조건 어느 거든지 다 받아들여서 내 거를 만들고 내가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둘 아닌 도리를 가져야만이 아주 마음과 마음이 편안하게 돼서 나도 여러분한테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마음의 그릇을 텅 비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만이 서로가 다 편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절에서 예불을 모실 때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염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꽃을 공양 올릴 때도, 여북하면 꽃공양입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꽃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를 켜는 그 마음 자체를 바로 밝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기 물을 떠서 공양을 올리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향을 피우는데, 악한 것은 다스리면서 선하고 아주 똑바른 마음을 내서 굴리는 것이 바로 향을 피우는 것이며 마음의 향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떠나서는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부처님도 생겼고 종교도 생겼고 상대성 원리가 모두 생긴 것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어찌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발견하라 하는 겁니다.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것과 같으니 바깥으로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찾으세요.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모든 것을 둥글려서 내 주인공에 놓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내 친구여! 나를 관리인으로, 시자로, 또는 심부름꾼으로 삼아 이렇게 몸뚱이를 끌고 다니니 모든 것은 다 당신이 하는 거야.' 하시라는 겁니다. 이 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니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그게 바로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또는 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요, 업보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계향이지 그냥 입으로만 부르라는 계향이 아닙니다. 250계든 280계든 일일이 개수로 따져서 어떻게 계를 지킵니까?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향 하나만 잘 지켜도 천차만별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으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향이니, 이 세상 모든 만물만생이 근본에 따라서 하나로 돌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바로 주인



우리가 마음 한생각을 잘 돌린다면 너무도 광대무변한 도리에 의해 밝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법이며 자유스런 생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 보십시오. 집이 헐어지면 집에 들어 있는 주인이 고칩니까, 헐어진 집이 고칩니까? 반드시 집주인이 집을 고칩니다. 그렇듯이 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끊어 낼 수 없고 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바로 자성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제도해야 여러분이 제도가 되고 깨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첫째 '계향' 할 때 말입니다, 먼저 내가 태어난 까닭에 계향이라는 것도 있고 계율도 생겼고, 또 스님 노릇도 하고 부처님 법도 배우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머릴 깎고 안 깎고 이걸 떠나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실 때에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이런 거지 내 탓으로 돌린다면 하나도 밉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지 누구 탓이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향' 할 때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거기에 놨을 때에 미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없어지고, 남의 탓으로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화목 공 선을 세워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기 놓고 '잘못 일어나게 한 것도 너니까 잘 일어나게 하는 것도 너지.' 하고 잘못되는 거는 한생각 잘 내서 돌려놓으면서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향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하찮게 듣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린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줄 때에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같이 할 수 있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재수도 있을 수 있고, 공덕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을 바로 여여하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혜향이니,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봄이 없이 관찰하고 둘로 보지 않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 바로 혜향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혜향입니다. 그러니 스님네들만 '정향 혜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둘로 보지 않는 사랑,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 부드러운 말, 이것을 떠나서는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고 사랑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계의 나 자체를 물질계로 내놓으면서 우리가 서로 둘 아니게 굴리면서 참다운 삶을 보람 있게 누릴 것입니다.

해탈향이니, 만물만생 그리고 내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 모두가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 항상 밝아서 여여하니 바로 그것이 해탈향입니다. 항상 마음과 마음이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전달이 되면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게 돼서 여여하니, 항상 밝아서 안팎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중생들을 둘로 보지 않고 제도하게 돼서 가고 오면서도 그대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해탈지견향이니, 삼라만상 만물만생을 생각하고 보살피되 밝게 보살핌이 항상 걸림 없이 구족한 까닭에 더하고 덜함도 없이 여여함을 바로 해탈지견향이라고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이 있느니라. 너는 해탈지견향까지 이루었다 하더라도 첫째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 다 버려서 다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셋째, 너는 누가 보시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일체 만물만생에게 나투어 줄 수도 있거니와 내 도량 아님이 없이 나투면서 아픈 사람에게는 약사가 돼서 응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관세음이 돼 주시고, 명이 짧은 자에게는 칠성이 돼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는 사람에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용신이 돼 주시고,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지신이 돼 주시고, 관청의 일이 벌어졌을 때는 독성이 돼 주시고…. 천차만별로 어느 거 하나 하나 아니 돼 주시는 게 없고, 아니 나투시는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백억화신이요, 천백억응신이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법신이요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요 응신이라. 마음 하나가 이렇게 구족하고 이렇게 광대무변한, 평등공법이면서도 활궁공법이고 활궁공법이면서도 수레공법으로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누구나가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컵도 흙을 물에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구운 것으로 어느 것 하나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컵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살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데 합쳐져서 합성체로서 등장이 됐다가, 흩어지면 물로 갈 거는 물로 가고 불로 갈 거는 불로 가고, 바람으로 갈 거는 바람으로 가고 흙으로 갈 거는 흙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모이게 되면 또 모습을 바꿔 가지고 형성돼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주어지고,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집니다. 미래가 주어지는 자체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미래가 따로 있고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천당도 바로 현실에,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수화풍이 대두가 돼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여러분 앞에 충만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도 마음과 마음, 정신계의 50% 물질계의 50%가 서로 상응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맥 동맥이 뛰듯이 말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고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부터 제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안팎으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올 때도 내가 생각해 보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상대방을 원망 안 하고 돌아간다면, 바로 상대방에서도 불이 켜지고 자기한테도 불이 켜져서 다 밝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6월 6월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 룸 비 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 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팔 것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조기 예약 할인

7월 27일 출발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2,000,000원 → 1,770,000원 (할인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2,100,000원 → 1,850,000원 (할인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방콕 | 파타야
9일 2,300,000원 → 2,050,000원 (할인가)

가족방학 특선 장사 | 장가계 5일 940,000원

※ 포함 : 특급호텔, 최고의 식사, 가이드+기사팁포함 여행사 대표가 직접 여러분을 모십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불자 세상보기

삼독심, 버리라고만 할 것인가?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삼독심이라고 하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거듭 주지시키고 있다.

범부중생들의 일상적 삶이 끊임없이 무명번뇌의 바다를 헤매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이 탐진치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불교는 우리들로 하여금 탐진치가 가져오는 그것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최종목표인 깨달음은 탐진치를 완전히 지멸한 상태와 사실상 동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안거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특별히 수행에 몰입하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출재가자를 불문하고 모든 불자들이 삼독심을 끊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삼독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불교는 언제까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는 말을 그저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동안은 누구나 삼독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착각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쩌면 불교가 요즘 사람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희화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 본다.

지금 불교계 안팎의 시선들은 한국불교의 이런 표리부동함을 예의주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불교도 불교고유의 전통적 문법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저마다 이기적이고 물질지향적인 경향이 뚜렷한 현대인들에게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앞세워 다가가는 용기와 이에 필요한 몸짓 및 현장언어를 구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삼독심을 버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이를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 과연 당신은 삼독심을 버렸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삼독심을 버리라'는 명제는 사실상 죽은 명제나 다름없다.

요즘 들어 불교공동체의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들에 실망하는 경우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나 또한 같은 불자로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다.

여기서 문득 암 전문가인 어느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암을 상대할 때에는 무턱대고 쫓아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려니 하고 마음 편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암이 내 몸을 떠날 때까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오히려 암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불자들이 평생의 부담으로 안고 사는 '삼독심 끊기'도 마치 내 몸속의 암 덩어리를 사이좋게 대하듯 하라는 의사의 조언처럼 해야하지 않을까? 삼독심이 비록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한동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일생의 동반자쯤으로 치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불교적인 방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교의 주요 가르침들이 시공간상 부처님 당시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포교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다시 말해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오직 극복의 대상일 뿐인 삼독심에 대해, 예컨대 지나친 욕심을 가리키는 △'탐심'은 일에 대한 열정과 미래의 당찬 포부로 △자신과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마음인 '진심'은 자기반성 및 세상의 옳지 못한 일에 대한 정의감의 표출로 △밝지 못해 어리석은 마음인 '치심'은 맹목적인 지식의 숭배를 경계하는 가운데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겠다는 각오 등으로 승화시켜 재해석될 수는 없을까? 라고 반문하고 싶다.

가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삼독심은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에너지이자 동기유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란 발칙한 상상을 해 본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삼독심이라면 굳이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함축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불교를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불교의 각종 진리들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부대중 칼럼

지혜의 눈 갖추면 아름다워져



김윤희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

일곱 살이던 아이가 물었다. "세련됐다는 말이 뭐예요?" 라고. 순간, 멈칫 했다. '백지상태일 아이에게 무어라 답을 해줘야 제대로 해주는 것일까.' 며 정리를 해보았다.

"응, '아주 이쁘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아주 조화롭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는 "조금만 더 자라면 정확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힘들겠구나"하며 대화의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경전을 접하는 시간에 난 무릎을 탁 내리쳐야만 했다. 경전의 구절을 조목조목 짚어 내려가던 스님의 설명은 그리도 간단없이 답을 주는 것이었다.

"아름답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화롭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화롭다는 말은 세련되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안목(眼目)이 있다는 표현이면 족합니다."

자칫 현상에 끄달린 외형만을 평가하는 잣대로 그칠 수 있으나 실은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여실히 들여다봐야 한다. 그것은 현상만이 아니라 의식을 관장하는 사람됨의 도리이기도 하며 상황을 잘 알아, 분에 넘치지도 않으며 부족하지도 않은 '순간의 예지'와도 같은 타당성의 발휘라고 보면 옳을 듯하다.

그런가 하면 자연이 연출해 낸 생멸의 노래로도, 고졸미를 풍기는 고택의 고색창연한 자태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빚어내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들은 조화로움의 실체를 발견하곤 한다.

내가 지금껏 목도한 자연은 언제나 겸허한 대상이었다. 주위를 몰고 와 숨을 죽이듯 움츠리고 있다가도 새순을 틔워 꽃을 피우고 잎을 돋게 하는 경이로움은 해를 더하며 보고 또 봐도 새록새록 하기만 하니 그만한 조화가 어디 있으랴. 그런가 하면 사물을 통해 발견하는 조화 역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를테면 전통의 미를 간직한 고택이라든가, 천년의 사원이 뿜어내는 고졸미에서는 선인들의 장인정신과 함께 문화유산의 우수성, 그리고 풍요를 느끼게도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서도 으뜸의 자랑이다. 그러기에 사람이 가져다주는 희망의 언어는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천재지변 속에서도 회생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한다.

나의 무대는 언제나 사원이었고, 그 사원에 들어 살아가는 승가와의 어울림이다. 언젠가의 글에서도 잠깐 밝힌 적이 있듯이 불교에서의 승과 속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승가는 위없는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녀 그를 재가에게 가르쳐주는, 부처님을 대신하는 스승이며 재가는 존재하지 않는 부처님의 실상을 수승한 승가의 모습을 통해 끊임없이 익히고 훈습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승가가 어깨를 걸고 나란히 걸어 나가는 도반이듯 승·속의 관계 역시 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승가의 면면을 글로 옮기는 나의 작업이라든가, 책을 만드는 일은 오래도록 보아 온 승가의 전통과 훼손되지 않은 오롯함을 바르게 전하는 몫이 되며 오도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록 내가 정해놓은 원칙이긴 하나 난 그 원칙에서 이탈하지 않고자 했으며 수행과 복력이 더해져 원력을 갖춘 법담을 수지하고 돌아서는 때의 감화는 늘 모골을 송연케 하는 양식이었다. 그러니 끼니를 거른다 할지라도 허기는 느껴지지 않았으며 그 '공부'만을 쥐고도 거뜬한 일상을 꾸릴 수 있었다. 그렇듯 차곡차곡 쌓여가는 에너지가 나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기운이었으며 최상의 아름다움이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지나고 보면 미간을 훑고 지나치는 바람처럼 순식간의 일로 점철된다. 그러기에 단 한 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며 정성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리하여 자애로운 언어와 행이 구족되면 진정으로 안목(眼目)을 갖춘 불자로 거듭날 것이며 그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모습의 실체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여덟 살이 된 아이를 향해 난 답을 한다. "지혜의 눈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를 일러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라고 말이다.

社說

조선왕실의궤 오대산사고에 둬야

일본 황실에 보관됐던 조선왕실의궤가 이르면 올가을 반환된다.

문제는 의궤가 반환된 이후이다. 의궤가 국내로 돌아오면 법에 따라 우선 문화재청이 보관·보존처리를 한다. 그러는 동안 문화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궤의 소장처를 논의하게 된다. 소유권은 국가가, 관리는 문화재청이, 장소는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 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의궤에 앞서 2006년 반환된 조선왕조실록은 이런 과정을 거쳐 규장각에 보관 중이다.

의궤 반환을 앞두고 오대산 월정사, 서울대 규장각, 국립고궁박물관이 각각 자신들이 의궤 소장처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정사를 비롯한 불교계에서는 의궤만큼은 조선왕조실록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반환된 문화재는 제자리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조선시대 문화재를 모두 이씨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최 청장은 "더 길게 말하면 오해가 생긴다. 나중에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끝냈지만,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이 같은 생각이 문화재위원들의 공론이 될까 우려스럽다.

나아가 해외에 반출돼 앞으로 환수될 문화재 다수는 불교문화재일텐데, 국가의 소유권 운운하는 주장에 두 번, 세 번 양보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로 굳어지기 쉽다. 이것이 불교계가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되찾은 문화재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옳다.

한중일 불교교류 활발발하길

천태종이 중국 국청사에서 조사기념당 개금불사 회향 및 낙성 제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교류를 시작한 지 20여 년, 양국간 우호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중국 불교는 한때 문화혁명으로 큰 해를 입었다. 시들었던 불교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벤치마킹한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천태종이다. 중국은 천태종의 3대지표인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정신적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겼다. 부처님 법을 중국을 통해 들여왔던 한국이 1600년이 지난 지금 중국으로 불교를 역수출하고 있다.

중국 천태종 본산 국청사에는 천태종 상월 조사상이 봉안된 조사기념상이 있다. 천태산 기슭의 지자육신탑원에는 일본 천태종 본산 히에잔 엔랴쿠지 불자들이 중일 불교 친선을 기원하는 기념탑을 세웠다. 천태산은 한국·중국·일본 천태종이 하나로 만난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가르침이 현현한 도량이다.

만공 선사는 "세계는 한송이 꽃이라는 생각을 바로 지니면 세상은 편한 것"이라며 "세계일화의 참 뜻을 펴려면 미웠던 원수마저 부처로 봐야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부처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하물며 나라만 달랐지 같은 불자들임에랴.

많은 이들이 세계평화를 기원한다. 불자들이 부처님법으로 하나되는 것은 세상을 편하게 만드는 일이다. 한중일 천태불자들의 교류가 존귀한 불사인 까닭이다. 한중일 불교계의 활발발(活發發)한 더 큰 교류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신간
한국최초 계절로 풀이한 사주팔자
춘하추동
당신이 태어난 계절은? 직업은? 운명은?
흔히 3박자가 맞아야 대운길격(大運吉格)이라고 한다. 당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의 3박자는 무엇인가?
봄·여름·가을·겨울
일년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이 4계절은 각 3개월씩 나뉘어져 운명의 흐름이 각각 달라진다. 당신은 어느 계절에 태어났으며, 그 계절의 운세의 흐름이 당신의 운명에 어떤 작용을 할까?
사람을 깊숙이 꿰뚫어 보는 법 / 21C 신개념 행복 부자되는 사주팔자
■甲長慧印 이준용 지음 / 신국판 / 340쪽 / 정가 2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상권·하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한국의 재혈풍수' 상·하권은, 교구통맥법에 의지해서 태교혈을 찾아내는 재혈의 이법과 실제를 손에 잡히도록 알기쉬운 이해의 경로를 밟아 상술하므로서 난해하다는 재혈의 한 기법이라도 바르게 캐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엮어내었다.
상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하권 風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육임이 보인다 |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통도(通度)의 가풍(家風)



창건주 해동(海東) 율조(律祖) 자장대국통(慈藏大國統)께서는
중국으로 구법의 길을 떠나 청량산에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了知一切法 自性無所有"
"일체의 법이 불변의 본성이 없음을 또렷이 알아야 한다."
"如是解法性 卽見盧舍那"
"이렇게 법의 본질을 알면 바로 노사나부처님을 뵈리라."라는
화엄경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통도사가 존재하는 1차적 가치와 의미는 바로 4부대중의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지를 누가 하는가는 결코 통도사 대중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임자로, 절의 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1차적인 출가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모든 대중들의 뜻은 모아졌습니다. 모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출가정신으로 되돌아갑시다. 이제 우리들이 모신 선지식 방장스님과 어른 스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결제를 맞이하여 용맹정진하여 견성성불합시다. 이것이 이 나라와 불교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통도사를 망치는 불법집회인 산중총회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의 법통을 수호하고
청정승가를 위한 모임 일동 구배